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3월 5일 수요일(주간) 제411호

"간화선 잠재력 무한하다"

실상사서 선우논강 간화선 · 위빠사나 장단점 열띤 토론

"발심 · 인가스승 부재가 문제일뿐"

"간화선 자체가 아닌, 발심(發心)과 교육체계의 부재가 문제일 뿐이다."

2월 25일 밤 전북 남원 실상사. '간화선과 위파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란 주제로 제7차 선우논강(대표 철오)이 열린 화엄학림 강당에서는 수좌들과 학승 100여명이 두 수행법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논강에서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교육체계와 발심 부재의 수행풍토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전국선원장회의 회장 혜국 스님(제주 남국선원장)은 "간화선이 '힌두화되었다' 거나 '어렵다'는 등의 비판은 간화선을 깊이있게 천착하지 않은 데서 나온 단견"이라며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파악되는 간화선은 가장 잘 갖춰진 수행체계로 제대로 발심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발제를 통해 간화선과 위빠사나 모두 가장 빠르고 간명한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데 동감하면서도, 선지식의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수행풍토를 비판했다. 각묵 스님은 "한국 간화선은 불성, 여래장, 참나 등 힌두이즘적 개념인 아트만(자아)이라는 대상을 세우고 그것과 하나되는 수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권위의 원천인 인가의 법맥도 끊어졌기에 이제 간화선의 권위를 인가가 아닌 부처님 법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인경 스님은 "일부의 잘못된 간화선 참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간화선이 힌두이즘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가는 수행의 점검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이는 위빠사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좌들은 특히 인가 문제와 관련, "한국 불교사에 존재했던 큰스님들의 깨침을 부인하는 발언은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간화선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행정도를 세세하게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논강의 사회자인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랍 수행원장)은 "매회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정진하는 구도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결된 수행력을 보여준다"며 "교육체계 확립 등 방향성만 잡아주면 간화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간화선 수행의 사회적 회향을 통한 참여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세계적인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침묵을 지키는 현실을 꼬집고, "구도심과 보현행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언론의 여과되지 않은 '간화선 위기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간화선을 정점으로 위빠사나, 염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방편에 대한 체계화와 수행지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월 26일 총무원 집행부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31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시대 바뀌었으니 종단도 변해야"

인선자문위 추천받아 집행부 구성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종단도 변해야 한다" "희망찬 종단,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언해 달라"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2월26일 현 총무원 집행부 및 선대본부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이같은 종단 운영방침을 밝혔다. 임기 시작 3일 만이다. 또 총무원 부 · 국장 인선을 위해 각 교구본사에 인재추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인사방침도 내놓았다. 이런 인사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종단 변화와 개혁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 법장스님은 12명의 중진급 스님이 포함된 '총무원 구성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구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날 곧바로 각 교구에 인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 구성은 추천 마감 시한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또 선거기간 중 제시했던 종책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장스님의 한 측근은 "승가 노후대책이나 불합리한 선거법 등 시급한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원장스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종단 변화와 개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법장스님은 2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유효표 319표 중 1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함께 경합을 벌였던 종하스님은 140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인단 321명 중 319명이 참여, 9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법장스님은 당선 다음날인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해인사를 찾아가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합, 북한산 관련 광고 안냈다"

서울고속도로측 간부 찾아와 명의 빌려가"

서울개인택시조합 밝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월 15일자로 일간지에 낸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재개 요구 광고와 관련해 광고가 나가기 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이 조합에 찾아왔으며, 광고비 또한 조합측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 한 관계자는 일간지 2월 15일자에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난 광고에 대해 "우리는 그런 광고를 낸 적 없다. 우리 돈 주고 낸 것이 아니다. 서울고속도로공사측에서 찾아와 윗분들(조합측)과 상의해 이름만 빌려갔다. 우리도 신문을 보고 광고가 나간 걸 알았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백창근 전무는 "광고 내기 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곽규옥 부장이 찾아와 만난 적이 있지만 광고는 우리 돈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부장 또한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본지가 단독 보도한 북한산 관통도로 토론회 현금 살포 기사(410호 1면 참조)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은 돈 봉투의 출처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해 법적 사회적 처벌을 행하라"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북한산 관통로 백지화 등 불교공약 실천 관심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여러분께 바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교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산 및 금정산 · 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 △불교문화재 보존 · 관리정책 강화 △사찰 소장 비지정문화재 전면 조사 및 관리지원 확대 등 10가지를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환경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북한산 및 금정산 · 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속보 호외발행 <2월24일>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율스님의 목숨 건 단식



2월28일 부산시청 앞, 지율스님은 천막을 법당 삼아 24일 동안 물만으로 금정산, 천성산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윌 대로 여윈 얼굴과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새까맣게 타들어 간 피부 빛을 제외하곤, 단식 24일째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단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 당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이 단식 21일째였던 25일 치러졌다. 그러나 당선 이후 지금까지 불교계 제1공약이었던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 약속 이행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그런데도 불교계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율스님의 생사를 건 단식을 보면서도. 하지만 다행히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종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는 지율스님의 뜻을 이은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다녀간 의사는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면 내장이 거의 활동을 못 한다."고 충고했다. 이쯤에서 단식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율스님은 요지부동이다. 혈압이 낮고 맥박이 약해서 혈압검사를 하려했지만 스님은 이마저 거부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천성산과 운명을 같이 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천미희(지방주재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 (02)737-0090 부산 : (051)632-0064 대구 : (053)768-8008 광주 전남 : (062)375-9986 전북 : (063)255-2274 대전 : (042)489-9390 충북 : (043)258-3282 강릉 : (033)643-5599 동해 삼척 : (033)521-6293 영주 : (054)634-3429 경남 동부 : (055)353-1196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축
당선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31대 총무원장 추대위원회

사 설

참여정부 출범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 자체가 역대 어떤 대통령과는 남다른 점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장점이 가장 충실히 드러나 묵은 숙제로 남아있던 개혁과제들이 임기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에 불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실히 구하는 것이 야말로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개혁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되는 올바른 개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서둘러 나갔다가 그것이 빚는 갈등을 빌미삼은 반개혁 세력의 공세에 쉽게 좌초해버리는 개혁은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다. 늦더라도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의 단단한 건축물을 세우듯 하는 개혁이어야 뒤를 이어서 완성되는 빛나는 개혁의 탑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의지를 적절히 중화시키고 다른 포장을 씌워 내놓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가장 선명하게 개혁을 뜻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지속시키되, 정당한 목표에 정당한 방식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키고 민의를 수렴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아울러 불교계에 대한 공약 사항도, 그것이 불교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아래 성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만해스님 고택 보존 절실

만해 한용운 선사가 살았던 고택이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만해 선사에 대해서는 우리 근현대사에 우뚝 선 인물이다. 독립운동가로서도 민족문학을 개척한 문학인으로서도 그리고 중생교화를 위한 종교인으로서도 당대의 모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를 기리는 우리 후손들의 정성과 노력은 매우 미약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을 기초한 곳이며, <님의 침묵>을 집필하는 등 민족의 독립과 중생제도를 위해 활동을 하던 시기에 10여 년간 살던 고택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후손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뜻 깊은 고택을 찾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더욱이 3·1절을 눈앞에 두고 보니 감개가 더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택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이 시급함에도 예산 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이 일에 어찌 예산 따위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현대에 활약했던 인물과 관련된 사적(史蹟)들이 훼손 또는 철거되고 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러다가 만해스님의 고택도 그 꼴이 날까 우려된다.

지난날의 잘못을 갚고 역사 앞에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택 보존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고택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후손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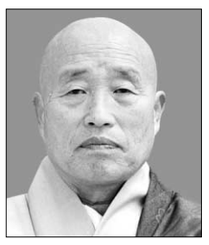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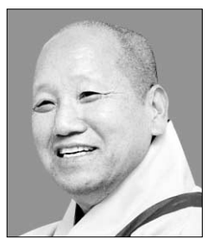
법장스님 총무원장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 지혜·초우·혜정·진제 새 의원 선출


◇지혜 스님


◇초우 스님


◇혜정 스님


◇진제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월27일 20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법장스님을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또 지혜(범어사) 초우(통도사) 혜정(법주사) 진제(해운정사)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조계종 원로의원은 18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지혜스님은 1927년생으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금어선원과 해인사 백련암 등에서 46안거를 성만하고 현재 밀양 대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으며, 초우스님은 1933년생으로 동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주지와 종앙종회 부의장,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도사 부방장으로 있다.

혜정스님은 1933년생으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선의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주사에서 주석하고 있고, 진제스님은 1931년생으로 석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과 조계종 기초선원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이어 이날 원로회의에 참석한 14명의 원로스님들은 종단 화합을 위해 98,99년 종단사태의 징계자를 사면하라는 내용의 원로회의 유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현 종헌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원로의원을 두기로 돼 있는 종헌과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원로의원 자격에 대해 70세 이상 23인까지 원로의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2대 종회 때 상정됐다 자동 폐기된 원로의원 선출과 관련한 종헌 및 원로회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

또 원로회의는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백지화와 관련해 불교환경단체들이 올린 진정서를 검토하고 총무원과 종회가 함께 대처해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현재 단식농성중인 지율스님을 격려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김태복장군 끝내 누명 못벗어

상고 기각돼, "제정신청 통해 진실규명"

석탑 시주와 관련 뇌물혐의로 피소된 김태복 장군이 결국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재판장 변재승)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군은 "어이없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그 동안 성원과 기대를 해 준 불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도 "김 장군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제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1999년 2월 군검찰이 경기도 파주시 호국백일사 군법당 불사와 관련,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태복 장군에 대해 뇌물수수, 사기미수 및 횡령건 등 5건을 기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뇌물수수 1건(이후 현금수수로 공소 변경), 횡령 1건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도 횡령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현금수수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는 절충판결을 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2002년 5월 유죄판결을 내렸고, 김 장군은 6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남동우 기자

출가~열반절 수행주간 선포

조계종포교원 10~17일 신도회·단체별 정진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출가절인 10일부터 열반절인 17일까지 정진주간으로 선포하고 각 신도회와 신행단체별로 수행정진을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수행주간으로 정착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정진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도선사, 봉은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구 관음사, 광주 무각사, 수원포교당, 창원 성주사 등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교사불자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30여 단체들은 10~17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대법회를 연다. 정진법회는 예불대참회문 독송, 108배,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종단과 연대 수행환경 수호"

녹색연합 공동대표 추대된 원택스님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월 22일 녹색연합 대의원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된 원택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은 "개발로 인해 사찰수행환경의 침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교생태운동 이념이 일반사회에서 빛을 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 백지화 공약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1991년 6월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 창립한 한국 환경운동의 대표적 단체이다. 녹색연합에는 부산 대구 관주 인천 대전 등 7개 지역조직과 9개 시민모임, 환경소송센터등 3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만여명이다. 김원우 기자

문화관광부장관에 이창동씨



영화감독인 이창동씨가 2월27일 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이창동(49) 문광부장관은 경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전리>로 등단했으며, 영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을 연출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을 주도했으며, 영화 '오아이스'로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말 수가 적으나 논리적이며 소신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19개 부처 장관(급) 가운데 불자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장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명우 기자

청소년불자들 국제교류 '클럽 25한국모임' 결성

세계 청소년 불자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임인 '클럽25'가 22일 발족한다.

한국 WFBY(The World Fellowship Buddhist Youth Korea)는 2월 22일 준비모임을 갖고, 12~25세 미만 청소년 불자들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단체인 '클럽25' 한국모임 결성에 들어갔다.

'클럽25'의 결성은 지난해 말레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3차 WFBY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달 22일 오후 4시 연등국제회관에서 '클럽25' 한국모임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다.

'클럽25' 한국모임 준비위원회(위원장 문상현·외국어대 2년)에는 외국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불자 청소년 25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강유신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문화재 보존대책 마련을…



통 도 사
적멸보궁

금강계단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8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3월 일

■ 일 시
- 입제일 : 2003년 4월 6일(음 3월 5일) 일요일
- 회향일 : 2003년 4월 8일(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아사리 대화상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6-8393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 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 통 편
◉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9:00**
◉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
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주 지 이산 현문 합 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기와접수처 : 055)381-1288

‘신뢰·존경받는 종단’ 급선무

법장스님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추락한 종단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는 법장스님이 누차 강조했듯이 사회적 신뢰를 얻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가다운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법장스님은 선거로 양분된 종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시급히 매달려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여겨져 온 ‘종단화합’ 과도 맞물려 있다.

법장 총무원장의 과제

법장스님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원융살림’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종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장스님 측은 이번 선거의 승리가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문중간의 갈등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문중 중심 구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중간의 ‘세력다툼’이 약해지면 종단화합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고, 따라서 인사탕평책이나 지방 교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법장스님의 기본 인식이다.

다음은 사면문제다. 연초 종정 법전스님이 사면 교시를 내린데 이어, 지난달 27일 원로회의가 종정스님의 교시를 받드는 ‘사면 유시’를 내림으로써 법장스님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사면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승가노후복지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임기 내에 토대를

98·99년 종단사태 징계자 사면 숙제
승가노후복지 임기내 토대 마련해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승가전체가 바라는 숙원과제다. 더욱이 교구별 노후시설 건립 및 승가노후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장스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를 실현시켜야 할 입장이다. 각 교구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의 선거법 개정도 숙제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비하고 불합리한 총무원장 선거법은 물론, 계파간 나눠먹기식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방식 등도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선거인단 수 조정이나 추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승가에 적합한 선출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장스님이 개정의지와는 별개로 중앙종회나 문중, 각 교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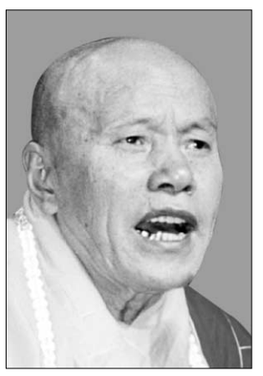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 및 종단 기본교육기관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승가교육의 첫 단계인 행자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이 일률적으로 기본교육기관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됐고, 또 교육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법장스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종단 행정 참여 요구, 수행환경 및 사찰 환경 침해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이행 등도 임기 내에 풀어야 할 과제들로 꼽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중국 관정스님 바람’ 엇갈린 견해

중국 복건성 삼회사의 주지 관정(寬淨 80세) 스님에 대한 국내 불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정스님은 1997년 2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서울 능인선원과 구룡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한국불자들과 인연을 맺은 지 꼭 5년이 되는 날 20번째로 한국을 방문, 13일 신촌 봉원사에서 불화의 거장 만봉스님을 만나 법담을 나눈 이후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를 돌며 법문하고 있다.



국내 불자들의 관심은 6년 반 동안(1967년~1974년) 선정에 들어 극락세계를 친견하고 돌아 왔다는 행적에 대한 신뢰성과 염불정토선 수행법, 마정수기 의식, 허운 화상의 제자로서 스승의 부촉을 받아 중국 본토에 문화혁명기에 폐사된 사찰들을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된다.

관정스님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눈초리’를 환영과 냉담으로 나뉜다. 냉담한 시각에는 극락 친견을 비롯한 행적과 법회에서 마련되는 시주금의 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다분히 묻어 있다.

불자들은 법회에서 “정말 극락세계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관정스님은 극락에서의 여러 체험을 상세히 소개함으로 그 의심을 풀어준다. “그럼 6년 반 동안 육신은 어떻게 보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불가사의함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며 “염불선의 방법과 궁극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한다. 직접 수행을 통해 불가사의한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언어를 통한 설명보다 명확하다는 입장.

한 톨의 밥알도 그냥 버리지 않는 검약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관정 스님은 외국을 다닐 때 항상 혼자 비행기를 탄다. 수행인을 동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20개 사찰의 복원을 원력으로 삼은 스님은 불사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극도의 검박한 생활을 한다는 게 주변의 전언. “한국의 불자들 가운데는 내가 너무 자주 찾아 와서 법회를 하고 불사비용을 모금해 간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는 관정스님은 “한국불자들의 시주금 일체는 중국 사찰 건립에 쓰이고 있으며 맥사암사의 경우 한국전통 사찰 형식으로 건립했고 현판들도 한글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관정 스님은 법회 때 불자들에게 내리는 마정수기와 관련, “부처님이

극락친견·마정수기의식에 의구심
“한국서 받은 시주금 절 짓는데 사용”

하시는 성스러운 의식인 마정수기를 관정스님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볼 수 있다”며 “극락세계에 갔을 때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중생계에 돌아가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을 수기하라는 부촉을 받았다”고 답한다.

동국대학교 교수인 한 스님은 “관정스님의 수행법을 배우려는 국내 불자들의 열의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주변적인 이야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신행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염불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의 전통이 있음을 먼저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불교계 대표적 사회활동가

법장스님은 누구인가

출가한 사촌형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법장스님.

스님은 정혜사 능인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 등에서 다섯 안거를 하며 경봉스님으로부터 ‘중도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수행정진의 지표가 됐다.

법장스님은 불교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는 신장 이식 등 장기기증 결연활동을 벌이는 불교계의 유일한 장기기증기관으로, 이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법장스님이다.

교계 고른 지지·기관장들 폭넓은 유대
다정다감하고 자상·일 야무지게 처리

법장스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아 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원이나 강원 등 수행과 교육분야는 물론, 포교나 행정 분야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과도 폭넓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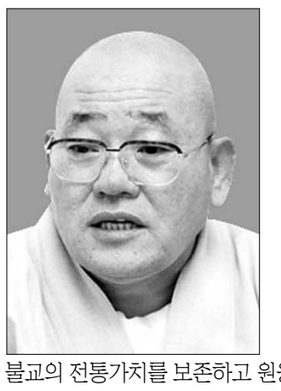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며, 친근감을 주는 스타일로, 매사에 꼼꼼해 일처리가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어른 스님을 잘 모시기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행정에는 밝지만 중앙정치세력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법장스님은 “이것이 오히려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원융한 종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장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0년부터 중앙종회의원을 네 차례 지내고,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정치와 종무행정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한명우 기자

화합·변화 바탕 종단위상 제고

인터뷰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법장스님은 2월 24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뜻”이라며 “한국불교의 전통가치를 보존하고 원융살림을 통해 화합하고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소감은?

—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종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모범을 보이신 종하스님께도 아울러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 화합과 개혁, 안정과 변화를 기조로 종단발전과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북한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어려운 문제는 협의해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일 방식이다.

▲ 종단 개혁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종책은 평소의 생각 그대로다. 모든 분야에서 종단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합리적인 종단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 인사탕평책을 공약했었는데…

— 누차 강조했던 원융살림은 곧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약속했던 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 앞으로 사회활동 계획은?

— 불교의 근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모든 것을 적극 수용하고 참여할 생각이다

▲ 다른 종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은 원융이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원융바탕 타종단과 협조 강화
종무에 비구니스님도 참여해야

▲ 사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바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종회에 법개정을 요청해서 해야 할 것이다. 사면할 부분이 있다면 사면이 돼야 한다.

▲ 총무원 내 비구니부 신설 공약은 지켜지나?

— 종무에는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해인사승가대학(전통강원) 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2.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3.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4.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5. 주민등록초본 2부
6. 호적등본 2부
7. 건강진단서 2부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9. 은사스님 법명,속명(한글·한자),당호,주민등록번호,승적번호

준 비 물
1. 사 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2. 입학금
3.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 불기 2547년 2월 10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7년 2월 14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6일) 일요일
  ◆ 입 방 일 : 불기 2547년 2월 15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 2차 입방 ◆ 제 24기 행자교육원 수료 후 1주일 內 예정

문 의 처
- 전 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7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

일주문



아태장애인경기 공로 표창

혜총 부산 용호복지관장은 2월 24일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제8회 아태장애인대회 성공 개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0회 대구불교대학 졸업식

지성 대구불교대학장은 2월 23일 동화사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300명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대구불교대학졸업식을 가졌다.



법전대종사 57주기 추모재

법타 영천 은해사 주지는 2월 26일 은해사에서 신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경당 법전대종사 57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유산아 천도 49일 기도

영도 고성 건봉사 주지는 9일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일 기도법회'를 입재한다.(033)682-8100



중앙선관위장 표창 받아

자용 서울 수국사 주지는 최근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해인사승가대 신입생 모집

지오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장은 12일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055)931-1016



경기도 극락사서 금강경 강좌

지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6일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3시 경기도 광주 극락사에서 금강경 강좌를 실시한다.



혜광사 부처님 점안식 봉행

혜원 동국대 교수는 8일 오전 10시 서울 평창동 동대 비구니 기숙사(사감 혜원)인 혜광사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추도식

지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은 2월 27일 복지센터 강당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추도식을 열고 상시 분향대를 마련했다.



중앙대 교수 취임 · 강의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은 중앙대 교수로 취임, 3월부터 예술대학원에서 '문화정책' '예술행정학' 등을 강의한다.



'노년의 성생활' 주제 강연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능인복지관에서 노년의 성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02)737-8803



전북불교대 졸업식 거행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2월 23일 법당에서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15회, 법사과 1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보현불교대학 10기 졸업식

오상현 대전 보현불교대학 이사장은 2월 22일 보현문화회관 2층 법당에서 불교대학 제10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GA코리아 대표 취임

김영국 前 고흥길 국회의원 보좌관은 3일자로 'GA 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02)723-0185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⑧

정한담 (전남대 교수불자회장)

퇴직교사들로 경전연구모임 결성
강연보시금 받아 불경마련 · 보급



"하나하나 글을 써서 만들었던 정성이 담긴 경전을 접하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 말씀을 후학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굳건한 신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수 신행모임을 비롯해 각종 경전 연구모임을 만들었던 전남대 교수불자회 정한담(63 · 법명 광무) 회장은 사람들에게 경전을 나누어주고 함께 공부하는 학자다운 면모를 지녀온 대표적인 불자다. 전남대 법대 교수로 지내면서도 경전연구 등 불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왔다.

정 회장은 포교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청강연이나 신도회 강의가 있을 때에는 주례나 강연에서 받은 보시금으로 경전을 제본해 나눠주고 불교의 진정한 사상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급한 경전이 수천 권에 달한다.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의 유발상좌이기도 한 정회장은 청화 스님의 법문을 녹취해 '마음공양'이라는 대중들이 좀 더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이하는 저술활동을 벌이는 것이 정 회장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청화스님 법문 녹취 '마음공양' 포교지

"불자는 경전에 담긴 정성과 신심을 아로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경전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지요."

곡성 성륜사 광주지역 신도모임인 금륜회장을 11년 동안 맡아온 정 회장은 경전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이같은 노력때문에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법화경 연구모임,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모임 등 경전 공부모임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무실에서 경전을 탐독하는 모습을 본 주변 동료들로부터 경전을 끼고 사는 책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퇴직 후에는 후학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정 회장은 불자들이 자신과 가족만의 안위를 바라는 소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주변과 사회로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禪문화 호주에 심을 터"

호주한국문화원 개원 앞둔 정진호 대표



호주 시드니에 우리 전통 문화와 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 오는 5월 3일 개원을 앞두고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정진호 호주한국문화원 대표. 그는 "호주한국문화원은 4만 명이 넘는 교포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의 향기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996년 시드니 와일슨 에비뉴듀어 지역에 6천 4백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작년 9월에는 호주한국문화원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원 설립이 본격화 됐다. "5월 개원을 계기로 곧바로 선 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전시관, 공연장, 전통가마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정 대표는 "한국문화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일깨우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설화할 계획"을 밝혔다. 학술재단과 연구소 등도 세워 각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과 문화운동에 대한 근간을 개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동양에 대한 호주인들의 관심이 상승되고 있는 때에 맞춰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호주의 전통문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미래의 개척이라는 막중한 과제에 국경 없는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5월 3일과 4일 이틀간 열릴 개원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대중가요, 전통의상 기획전, 도예전시 등 풍성한 이벤트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고침 본지 410호 9면 단체장 동정 중 박준영 SBS 불교법우회 고문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불자 '100인에 듣는다' 준비중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 김태제 원장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런 마음뿐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올해부터 제정한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선정된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 재가연대는 불교계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김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년 전 티베트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 지난 해 인도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또 사재를 털어 수원 팔달문 근처에 경기불교문화원을 설립, 지역불교운동에도 힘쏟고 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재가 지도자들이 있어서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김 원장. '생활 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김 원장은,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 지도자들도 초청해 법문을 듣는 '100인에게 듣는다'를 준비 중에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성재도 씨 청와대 행정관에



민족문화정책연구소장인 성재도(46 · 전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씨가 2월 25일자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2 행정관(3급)에 임명됐다.

성 씨는 8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부산지부장, 95년 부산 불교인권위 사무처장, 2002년 청정화합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88년부터 부산불교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부산선대위 부산진을 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현대불교 제8회 신행수기공모 시상식

현대불교 제8회 신행수기 시상식이 2월 22일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을 비롯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관음종 총무원 부원장 지섭스님, 총화종 총무부장 현오스님,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불교대 110명에 졸업장

안양불교대학 졸업식이 2월 20일 지장선원 법당에서 열렸다. 제3기 경전반, 제5기 기초반 등 총 110명은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동국대 권기종 교수는 "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결과 무사히 부처님의 정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양불교대는 13일 오후 2시 기초반 제6기 입학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법장스님의 종단운영 4대 기조

"수행과 전법중심의 종단,
전 종도가 참여하는 원융살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불교를 만들겠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조 계 사

문의: 02)732-2115 / 홈페이지: www.jogyesa.org

"악업은 또 다른 악업 부른다"

반전평화 불교대책위 조계사서 집회

반전평화선언 · '평화의 등달기' 행사

전국 동시법회 · 파병반대 서명운동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진행되고 '인간방패'가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반전평화 집회를 개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는 27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반전평화선언 및 평화의 등 달기' 행사를 열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성관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등 불교계 단체 대표들은 행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반도 전쟁의 서곡"이라며 침공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1부 기자회견에서 박광서 대표는 "자신이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악업은 또 다른 악업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 의장 성관스님도 '반전평화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파병 요청을 비롯한 전쟁지원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부 행사는 평화 휘호 작성, 전쟁반대 편지 낭독, 평화의 등 달기로 이뤄졌다.



◇불교대책위 관계자들이 평화의 등을 달고 있는 모습.

한편 불교대책위는 3월 중순 원로, 중진스님들과 일반 불자를 포함한 대규모 선언 운동인 '불교계 2차 반전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전국 규모의 동시 법회 개최 및 '전쟁중단 및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도와주세요



"간경화 투병 법우 수술비 마련하자"

조계사 청년회원들, 모금 · 일일찻집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는 도반을 돕기 위해 조계사청년회가 두 팔을 걸어부치고 나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원들은 간경화에 걸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연옥(38 · 사진) 법우를 돕기 위해 법회를 통한 수술비용 모금, 일일찻집 등을 개최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가 1천여만원을 마련했지만 1억원이 넘는 수술비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사청년회 봉사팀장으로 활동한 이 씨는 98년 출산 후유증으로 간경화에 걸린 후 힘든 삶을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병세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간 이식수술 외에는 별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병원비로 살던 집마저 넘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 청년회 커플인 남편 정현식 씨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다 산재를 당해, 이 씨는 현재 친정에 몸을 의탁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다. 연락처(019)312-5670.

강유신 기자

불교귀농학교 학생모집

26일~5월23일까지 교육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평화로운 삶, 귀농'이라는 주제로 제12기 불교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3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2층에서 열리는 불교귀농학교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7시에 시작된다. 참가비 개인8만원, 부부12만원. 문의:02)737-6181

남동우 기자

사찰예산 5%이상 회향운동

인사 지침 · 교단공직자 급여 표준안 마련

참여불교 재가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재가연대)가 올해 교단자정전략의 일환으로 사찰예산 5%이상 사회회향운동, 승려 기본생활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재가연대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불교시민사회활동 지원 및 사찰자원활용 제도 마련, 중앙종회 입법 등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또 주지인사 투명성 합리성 제고와 교단공직자의 급여 판공비 공론화를 위해 사찰유형별 인사표준지침과 교단공직자 급여 판공비표준안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불교생활윤리지침 개발 △불자윤리실천 서약운동 △교단쇄신을 위한 출,재가 공동작업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정책 제안-검증활동 등을 통한 '4부대중 청정운동'을 펼친다.

또 인도 법당 및 학교건립과 불교교재 보급을 위해 1억1천4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사)불교아카데미는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미디어 교육센터 건립 △미디어 교재 개발 △불교사회화 연구 및 인력양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재가연대와 불교아카데미는 이를 위해 각각 1억9천3백여만원과 4억여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올해의 재가불자상'으로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을 선정했다.(관련기사 4면)

남동우 기자



불교계, 성금모금 · 자원봉사 '봇물'

대구지하철 참사 온정의 손길 이어져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추모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성금모금,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월 20일 대구시민회관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천태종 1천만원, 진각종 1천만원, 동화사와 은해사가 각 1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 온정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다.

또한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등 지역불교계는 사찰 및 신도회 등과 함께 유족돕기 성금모금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대구 서봉사, 영천 만불사 등은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무료로 봉안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구불교계 자원봉사단체인 불교사회복지회, 영남불교대, 대구경북포교사단,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 등은 사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무료급식, 염불봉사,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민 애도의 날인 지난 23일에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대구 불교계의 합동천도재도 잇따랐다.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합동으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천도재를 23일 지하2층 중앙로역사내에서 봉행하고, 영남불교대학과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도 같은 날 대구지하철 희생자 천도법회와 위령제를 갖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 문의는 지하철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053-429-2923), 대구불교방송(053-427-5114), 대구 참사 아픔 나누기' 성금접수 ARS 060-704-1004.

박원구 기자

미 조지아대학생 18명

송광사 등서 불교체험

미국의 명문대생들이 한국 비구니 선원 탐방과 한국-티베트 불교 수행법 차이 연구를 위해 방한한다.

미 조지아대 학부생 18명으로 구성된 한국사찰 순례단은 16일부터 22일까지 순천 송광사, 청도 운문사 등 한국불교 체험에 나선다. 순례단은 특히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우수 학생으로, 미 정부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재원들이다.

이번 순례단의 방한은 조지아대 의무 교육과정인 해외지역 탐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것이다.

김철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 지율스님 격려방문

28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시로 총무부장 선용스님과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등이 24일 부산=천미희 기자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격려했다.

새만금 살리기 한 · 독 심포지엄

6일까지 서울서, 양국학자 30명 참석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학자 30여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4일~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과 부안성당에서 '새만금 강행 발표, 그 이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이 환영사를 하며 문을 연다.

독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켈러만 박사의 특별강연에 이어 한국과 독일 30여명 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5일에는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방조제와 전시관을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진다. 문의:02)735-7034

남동우 기자

북한산 도로 중단 · 새만금 등 재검토를

환경단체, 대통령에 촉구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맞춰 환경단체들이 친환경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을 파괴하는 관통도로 건설은 미래세대를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인운하건설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2월24일 "북한산관통도로, 천성산고속철도, 새만금간척사업과 시화호, 한탄강댐 건설 등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환경현안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 곡 사
주 지 진각
대 중 일 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 041)841-6221/ FAX 041)841-6222
기타 : 2003년 겨울선수련회 cafe.daum.net/makoksa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조 실 진제
주 지 지성
총무 진담 기획 법륜 교무 선문
재무 상원 사회 승언 포교 진오
호법 고경
금당선원 선원장 : 지환 승가대학 강 주 : 해월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053)982-0101/ FAX 053)985-4405
http://www.donghwasa.net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동참** [우리은행 551-215163-02-001 성거사]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 567-6822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선기공 지도자 과정 원생을 모집합니다.
2년 수학후 총장명의 수료증과 본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교학과 (서울)02-2260-3728 (경주)054-770-2554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 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 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동국대, 경희대, 영산대, 대전대, 서울예대, 한국예종, 부산외대)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참선교육 59기 안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불법 만나기 어렵고 참선법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참선교육 59기를
개최하오니 인연 있는 분은 교육에 동참 바랍니다.

일 자	교육내용
3월 18일(화)	참선의 자세
3월 25일(화)	참선의 종류
3월 25일(화)	선종발달사
4월 1일(화)	화두의 중요성
4월 8일(화)	화두참구법

- 시 간 : 오전 10시, 오후 7시
- 동참비 : 3만원
(참선교육 간이교재, 선종발달사 도표, 참선교육테이프 6개 포함)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9 / Tel. 02)732-5960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 (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상담문의 원증태고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3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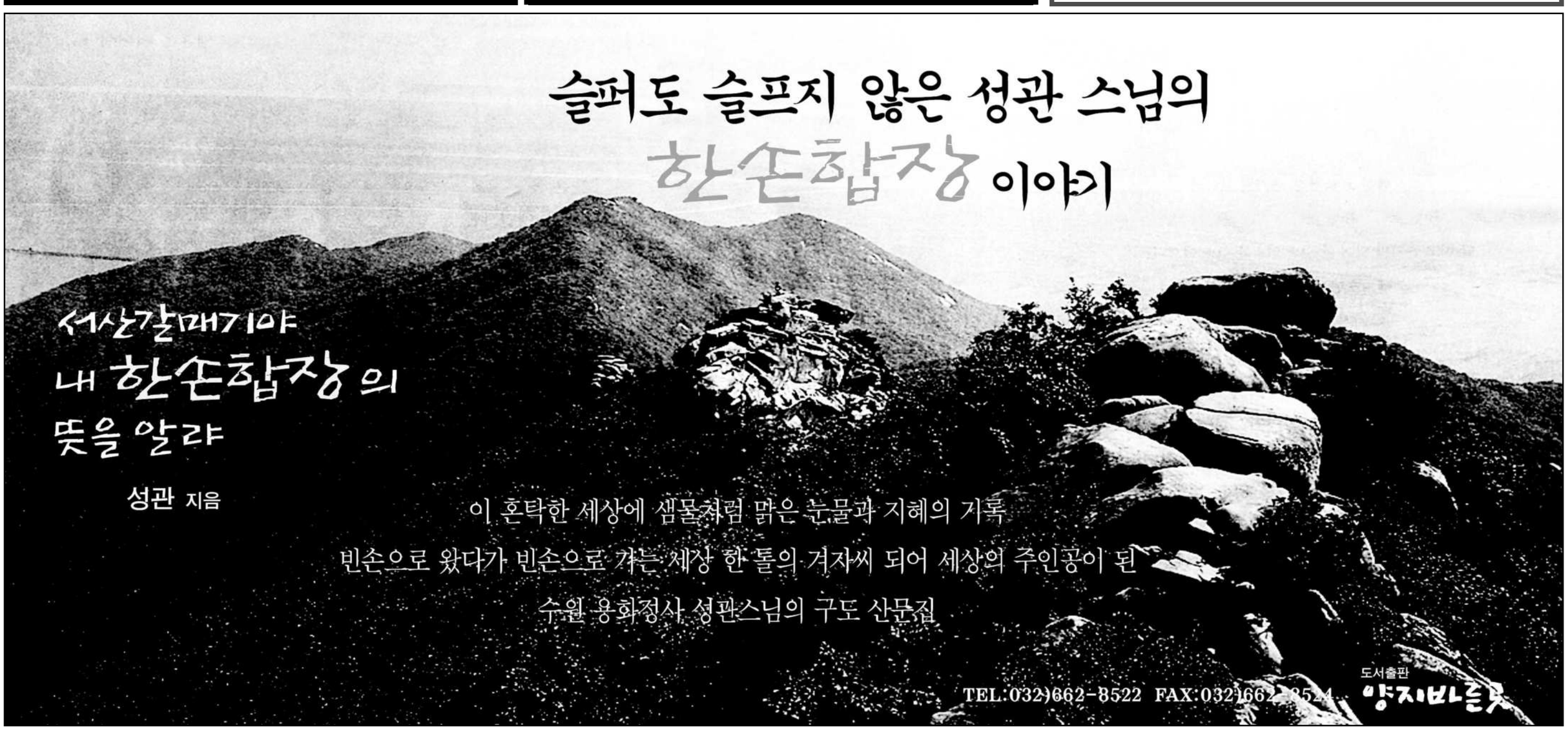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시 연 정 사**
053)853-2211, 011-808-8880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천막 · 컨테이너박스 '노천법당'

환경보살들의 '선방'

부산시청 · 조계사 · 용문사 앞 · 새만금 해창사 등
볼품은 없지만 '중생구제' 치열한 정진 이어져



◇조계사 앞 노천법당에는 매연과 소음이 가득하지만, 스님들의 기도는 이 시대 정신적 '오존'이 되기에 충분하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 금정산 구간 통과, 새만금 간척, 통도사 초산유원지 개발 사업 등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땅이라는 생명의 본령이 처참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중생이 나을 때까지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보살'이 나설 수밖에.

경부고속철의 금정산 · 천성산 통과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율스님의 법당은 부산시청 앞 노천이다.

2월 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율스님의 노천법당을 장엄하고 있는 것은 스님이 찍은 천성산 생태계 사진뿐. 하지만 어떤 법당보다 부처님의 자비로 충만하다.

북한산을 지키기 위해 2월 20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도 노천법당이 들어섰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조직실장 법현스님, 회룡사 성타 · 주현 · 지현스님 등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친화 정책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도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뱉아내는 매연과 소음이 법당 가득하지만 스님들의 기도는 이 시대의 정신적 '오존'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라북도 부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법당이 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해창사(海倉寺, 주지 수경)가 바로 그것이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 기도의 집(문규현 신부)'과 이웃한 해창사에는 향내가 아닌 땀 냄새로 가득하다.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 했던 3보 1배가 3월 21일부터 다시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해창사' (사진제공=불교환경연대)



◇용문사 앞 노천법당 뒤로 철근이 날카롭게 서 있다.

이 외에도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 앞에도 노천법당이 있다. 일주문 150m 앞에 현대식 향토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최근 용문사는 양평군청과 건물 외관을 전통양식으로 짓기로 합의했다.

노천법당의 '환경보살'들. 이 시대의 중생구제인 환경보존을 위해 죽을 각오로 정진하고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몸으로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남동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법현스님(사진 맨 왼쪽)이 지율스님께 편지를 쓰고 있다.

'북한산' 법현이 '천성산' 지율스님께…

"많은 시간 곡기 끊고 건강 어떠하신지? 저도 사패봉 생명에 둥지 약속했어요"

지율스님께 두 손 모읍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우정국로에 행인들의 웃깃을 여미게 하는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봄에게 세월을 내어주기가 무척이나 아쉬운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두면 만사가 여일할 것인데 쫓기듯이 욕망을 추구하며 변화시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산도 천성산도 금정산도 몸살을 앓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지난번 뵈었을 때는 기백이 청정하게 살아서 두 눈빛이 강렬했는데, 이십여 일이 지난 지금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많은 시간 곡기를 끊고 계시는 스님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옵니다.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라며 저를 질책해 주신 스님의 목소리 언저리에 물어나는 촉촉한 기운은, 이 후배 몫인 파란 미래를 저어하고 걱정하시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필요로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그동안 우리가 나 몰라라 한 이 세상의 생명이 그 동안 그들에 대한 유기와 태만을 벌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스님께서 천성산의 작은 꽃잎과 생명들에게 약속을 하였듯이 저 또한 사패봉의 오색딱다구리와 오소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둥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꼭 되찾아 주겠다고요.

스님!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글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의 매화향기를 그리면서….

"천성산 살리자" 메아리 확산

종교계 · 시민단체 · 조계종 원로스님 지원
'100인 100일 단식' 릴레이 철야농성

내원사 지율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농성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돼 2월 28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부산시청 앞 천막 농성장에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인 등 100명이 지율스님을 지지하는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생명 상생을 위한 100인 100일 단식'이라고 명명된 100인 농성은 맑고 푸른 시민연대, 민노당 부산지부, 녹색연합, 정토회,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매일 릴레이식으로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가게 된다.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부산경남 포교사단 임원들의 26일 환경 기도법회 모습.

27일 지신밟기로 행사를 시작한 이들은 "노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무시는 제2의 법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 바란다' 동영상 상영, 시낭송, 생명사랑 실천을 위한 촛불 묵념 등을 진행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또한 이날 부산 경남 지역 교사 1000명은 환경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담은 1000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사 1000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서와 선언문을 지율스님에게 전달했다.

첫날 철야 농성을 마친 이들은 28일부터 5명~10명씩 조를 나눠 매일 매일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100일 철야농성 돌입 하루 전인 26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경남 포교사단(단장 최덕수)의 금정산 천성산 살리기 환경법회가 열렸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환경법회에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단식 정진하는 지율스님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의 불교도들과 연대해 고속철 관통 백지화 공약이 이행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 중 부산경남 포교사단 전체가 동참하는 대규모 법회를 열 계획이다.

28일 현재, 단식 24일째인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장에는 윤희동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신부의 동참 단식을 시작으로 통도사 국과장급 스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신부, 박주미 부산시의원,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 등의 단식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우룡 울산 학성선원 조실 스님을 비롯 수경스님, 법장스님,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이 방문해 지율스님을 지지했다.

한편 조계종 원로회의는 2월 27일 총무원 4층에서 제20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지율스님을 격려토록 총무원장 스님과 부산대구지역에 주석중인 원로스님들이 함께 격려 방문할 것을 결의했다.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은 이제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현 총무원청사에서 총무원장 선출 둘러싸고 벌어진 98년 종단사태 모습.



◇올해말 완공될 조계종 새 청사 조감도. 조계종은 새 청사 시대와 더불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조계종 변화없인 한국불교 미래없다

'조계종이 망해야 불교가 산다.' 98,99년 종권다툼으로 야기된 종단 폭력사태를 보면서 불자들은 이렇게 자조하며 조계종에 등을 돌렸다.

그러나 2003년 오늘, 조계종은 분명 달라져 있다. 하지만 이는 아수라장과도 같았던 당시와의 단순 비교일 뿐이다. 아직도 분란의 소지는 잠재돼 있고, 수행풍토는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은 미미할 뿐이다.

시대는 변했다. 조계종도 변해야 한다. 만생명의 귀의처가 돼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바로 그 기회의 출발점이다. 조계종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2회에 걸쳐 그 방향을 진단해 본다.

글 싣는 순서

㊤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국민들 고통 어루만져주는 의지처로
승가상 정립 · 무소유정신 회복
갈등청산 · 제도개혁 안착시켜야

●조계종, 거듭나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대방을 헐뜯거나 무차별적 금전 살포와 같은 고질적 병폐는 사라졌다. 문중간의 눈에 띄는 다툼도 없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외친 법장스님에게 4년간의 미래가 맡겨졌다.

법장스님의 당선은 법장스님 스스로가 밝혔듯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승가가 본래 청정을 회복하고 불교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사부대중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불교 미래의 갈림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구태를 반복하면 조계종은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시대흐름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낙오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이다. 한국불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의 변화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조계종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 위상과 시대적 소명

조계종은 94년 개혁종단 이후 많은 개혁과제를 이뤄냈다. 현재의 조계종이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해야 산다'는 절박함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4년 이후 지금까지 종단이 불자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동안 불자와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96년에는 승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신도회가 양분됐고, 해인총림의 내부 갈등으로 방장 혜암스님이 사퇴하면서 승가위상에 큰 손상을 입었다. 또 △97년에는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으로 1년 내내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는 당시 종정이었던 월하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종정 직위의 유효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98년에는 순천 선암사를 차지하려는 조계종과 이를 막으려는 태고종 간의 분규가 일어나면서 조계종이 지나치게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상습도박을 벌여온 스님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승가 정화'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폭력사태가 빚어지면서 조계종에 대한 비난은 정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다. △2000년에는 조계사 신협을 비롯해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잇달아 공금 횡령 및 유용사건이 터졌고, △2001년에는 해인사 대불 조성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불교의 '비불교적 관행'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해인사 수좌들이 실상사에서 집기를 훼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 불교계는 또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떨어뜨려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심과 민심은 조계종에 등을 돌렸고, 불교계는 지도력 부재 속에 세속화의 길을 걸으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말았다.

●불교는 만생명의 '귀의처 · 의지처'

조계종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을 만드는 일'이다. 이 말에는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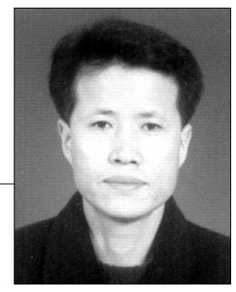
우선 조계종은 사회의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종교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기는커녕 오히려 질타를 받는다면 종교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엄마 품 같은 휴식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받는 승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무너진 계율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무소유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권위의식도 청산돼야 하고, 문중과 계파간의 갈등도 없애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사찰의 재정투명화를 이루어야 한다. 분규와 갈등으로 얼룩진 구습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개혁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조계종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신응균
경불련 희망학교장

희망학교에 사는 이유

노숙자 부모틈에 고개 떨군 아이들 마음놓고 놀고 먹고 공부하게 하자

요즘, 나는 함께 할 실무자 면접에 사람을 요모조모 살펴 헤아리는 것이 일과가 되어 버렸다. NGO현장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이 여러모로 녹록치 않다보니 같이 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희망학교를 찾아온 구직자들은 언제나 표정이 생뚱맞다. '여기가 학교 맞아' 이들의 얼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내게 반말도 모자라 가벼운 욕지거리도 뱉어댄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런 되먹지 못한….'이라며 생각할 행동을,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한다. 사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니, 아이들은 따라 배웠을 테고, 그러다보니 내 입장에서야 그리 타박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색함을 지울 수 없는 모양이다.

지난 97년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가 서민들의 삶을 이리저리 욕보일 때, 경불련은 노숙자들과 함께 하는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참 기막혔던 것은 노숙자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하도에서, 서소문공원에서 거리잠을 청하는 노숙자 가족의 처량함. 부모야 못 배우고 돈 없어 거리에 나앉았으니 그렇다고 친다고 해도,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을까. 노숙자들틈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있어야 할까.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지하도 한 켠에서 불안스러운 눈빛으로 쭈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치솟았다.

'도저히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희망학교를 열게 했다. 아이들이 돈 없이도 공부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원을 모아 문을 열었던 것이다.

희망학교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은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고개가 늘 쳐진 아이들. 말을 붙여도 아이들은 묵묵부답하기 일쑤였다. 마음은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실직해 술에 절어 있지, 엄마는 일용직 봉제공으로 일하는 처지다 보니 아이들에게 느는 것은 눈칫밥이었다. 욕설은 기본, 손찌검에 발길질이 다반사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 '무슨 고상한 교육이념이니 대안교육이니 하는 것은 때려치우자. 그냥 오고 싶어 하는 학교, 와서 마음 편히 아이답게 쉬고, 놀고,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아이들과 눈이 맞게 되고, 친하게 되자 반말과 가벼운 욕지거리가 오가게 됐다.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어제 신문에서 본 만화가 나를 울렸다. 대구 참사로 희생된 어린 영령이 하늘나라에서 엄마에게 보낸 짧은 글, 가슴을 파고들었다. 상식적으로 그 지하철에 '한다하는 종자들'은 타고 있지 않았을 테고, 소박한 꿈을 꾸는 이웃들만 무심히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가녀린 목숨의 못 다한 말은 저 세상에도 울릴 것이다. 엄마 사랑한다고.

이젠 제발 채 피지 못한 생명까지 도둑질하는 욕심은 사라져야겠다. 지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친구할 물과 나무와 꽃들까지 미리 다 파헤치는 파렴치한 폭력도 이젠 그만둬야 한다. 내가 이곳 희망학교에서 아이들과 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 인 사

주 지 수봉 세민

총림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055)931-1001~3

불교호스피스 – 미아 · 해외입양아 찾기

'복지 천태종' 으로 성큼

천태종이 불교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분야에 뛰어드는 등 '복지종단' 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천태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주도해 새롭게 뛰어든 분야는 불교 호스피스와 미아찾기, 해외입양아 찾기 등이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단체인 니르바나 자원봉사회를 발족시키면서 기존의 불교사회복지 활동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여덟차례에 걸친 니르바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통해 양성한 374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하나로 묶어 니르바나 자원봉사회를 발족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활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 오는 19~21일 서울 관문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부산 삼광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등에서 총 8회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봉사자들은 각 병원에 파견돼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천태종복지재단은 호스피스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종단 소속 의료인 불자들로 봉사단을 구성해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불교계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미아찾기도 '복지천태종' 을 실현하는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지난달 미아찾기 전화(557-5518)을 개설한데 이어 경찰청 협조로 장기미아(1개월 이상) 47명의 자료를 제공받아 종단 산하 사찰과 홍보매체를 통해 미아찾아주기 활동에 들어갔다. 천태종사회복지재단은 자비손 미아찾아주기 회보 발행과 불자연예인 · 운동선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해외입양아들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해외입양아찾기 사업은 캐나다, 덴마크에 있는 천태종 해외 사찰과 연계, 자료 수집과 고국 방문 등으로 추진된다.

천태종복지재단 김기태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활동은 종교의 근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 라며 "종단 이미지 개선과 홍보, 나아가 불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호스피스 봉사자 8차례 교육 후 병원 파견

미아찾기 전용전화 개설 · 연예인 홍보위촉

해외입양아 해외 사찰과 연계 자료 수집



◇불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천태종에서 실시한 기본교육을 받고 있다.



진각종 종립학교 교사 · 직원 연수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명)은 2월 25~27일 서울 총인원에서 종립학교 심학교사와 신임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심학교사 6명과 신임교직원 9명 등 모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밀교와 진각종사, 진각종 교리 · 수행의식 등의 강의와 실수로 진행됐다. 사경(寫經)에 몰두하고 있는 심학교사 · 신임 교직원 연수 참가자들.

태고종 '종단중흥결사' 추진

운산 · 종연 현 · 전 총무원장 합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전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2월 18일 회동을 갖고, 2001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종단 내의 모든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고 종단 중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종단 중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종단 중흥결사' 를 조직,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고 종단의 안정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인수, 총무원사 이전, 종단 정체성 확립, 승풍 진작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전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과거를 종단발전의 한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제2창종에 버금가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진정한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답했다.

박봉영 기자

총무원사 이전 결의

태고종 원로회의

태고종은 2월 28일 서울 하림각에서 원로회의(의장 일우)를 열고 총무원사 이전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종도들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원로의원 22명 가운데 일우, 보봉, 원법 스님 등 16명의 원로의원과 운산 총무원장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들은 현 총무원사를 동방대학원대학의 교사(校舍)로 사용하고, 총무원 청사는 서울 봉원사 또는 사간동 법륜사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국제포교사 양성 교육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를 해외에 홍보할 2003년도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교육을 3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 오후에 실시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언어 구사능력이 있는 조계종 소속 스님과 재가신도 가운데 수강을 원하는 자는 이달 1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접수해야 한다.

새 포교사 277명 품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2~23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신규포교사 277명에 대한 품수식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포교사단 김대중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품수식은 포교사의 자세, 포교사단 구성, 조직 및 활동 현황, 포교종책 · 법령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경남종무원 임원진 구성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종무원장 월봉)은 25일 간부회의를 열고 부원장, 국장 등 신임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중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부원장에 환명(밀양 약수암), 종무국장에 호정(마산 세심사), 재무국장에 정광(김해 문수사), 교무국장에 종안(마산 무학사), 연수국장에 대성(진주 광흥사), 호법국장에 기공(밀양 어룡사), 사회국장에 서진(마산 해탈사)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경남종무원은 신임 임원진을 중심으로 종무원사 이전, 승려교육 강화, 지역사회 봉사사업 체계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천태종

구인사 산불진화대 결성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28일 스님들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대장 월중)를 결성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초동 진화와 뒷불 정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이 사용할 산불 진화장비 불갈퀴, 등짐펌프 등 40여점은 산림청 중부지방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종단 소속 의료인 파악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천태종 소속 의료인 불자 현황을 파악한다. 이번 현황 조사는 상호 정보교환과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 발생시 원활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천태종 소속 사찰에 공문을 보내고, 신도 가운데 한의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의 현황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각종

원정각 대종사 추모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2월 25일 서울 성동구 도선동 밀각심인당에서 원정각 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불사 및 헌공다례 올렸다.

혜일 총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진당 회당 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수성 서울교구청장은 추념사를 통해 "원정각 대종사의 법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심인진리의 지팡이로 삼아 밀교중흥과 대중화를 이루자" 고 말했다.

원정각 대종사는 2대부터 6대까지 진각종 총인을 지냈으며, 서울 도선동 밀각심인당은 원정각 대종사가 주석했던 곳이다.

종교교과서 연구모임

진각종 교육원은 2월 25일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종교교과서 제작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덕정 교육부장, 원명 진선여중 · 고 정교실장, 보훈 심인중 · 고교 정교실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기존 교과서 수정 및 보완, 재편집, 윤문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진각종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심화시키도록 서술하고 △밀교 사상과 진각종지 부각 △난해한 용어 풀이 보완 △설화, 비유 등 내용 추가 △컬러 편집 등의 방침을 정하고 8월까지 제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게시판

구인

▲경주장애인복지관은 함께 일할 사회복지사 1명을 찾고 있다. 마감은 채용시까지. (054)776-7522

▲노인요양원 감로당은 생활지도원(남 2인, 여 4인)을 구한다.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031)671-3677

▲성라실버타운은 청소 및 세탁, 간병인, 경리사원,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등 직원을 채용한다. (02)743-0294

모집

▲서울시립 금천노인복지관은 금천산악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산악회는 13일 가야산과 세심천 등지로 산행을 떠난다. (02)804-4058

▲안양불교대학은 2003년도 제6기 학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화, 목 오후 2시~4시. 졸업예정일은 11월 13일. (031)444-5935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1년), 교리반(6개월), 경전연구과정(2년), 수화반(6개월). (051)867-9944

강좌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19일부터 한식조리사 교실을 마련한다. 수업은 수, 목, 금요일 오후 2시. (051)264-9033

▲만해불교대학은 5일 오후 7시 30분 불교공예반 강의를 시작한다. 12주 과정의 이번 교육에서는 개금방법, 만다라 문양새기기 등 강의가 진행된다. (02)738-3385

▲동산불교대는 12일 오후 7시부터 불교교리 강좌를 개강한다.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등의 과목을 배운다. (02)732-1206

▲청교련 대전지부는 18일 오후 5시 대전시 선관위 강당에서 공명선거교실을 운영한다. 또 30일 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학습도 실시한다. (042)488-0732

알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일 종로구 경운동 경운빌딩(운현궁 건너편)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4-0612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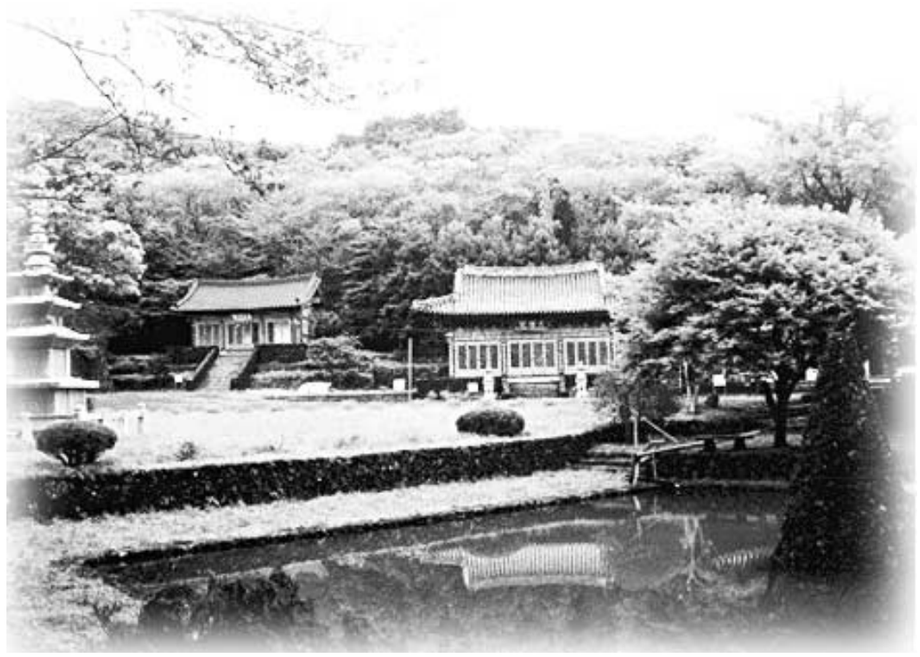
▲동국대 서울캠퍼스 △기획인사처장 이영환 △대외협력처장 유덕기 △교무처장 김무봉 △연구처장 여인형 △학생처장 이관제 △총무처장 권용범 △비서실장 선상규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 류풍운 △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 최창선 △중앙도서관장 최인숙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획처장 배의용 △교무처장 김영동 △학생처장 진대호 △총무처장 신일식 △도서관장 윤석성

▲동국대 의료원 △경주병원장 이영현 △포항병원장 이창우 △경주한방병원장 윤종화 △분당한방병원장 강윤호 △강남한방병원장 정지천 △기획관리실장 양창헌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23교구 본사

觀 音 寺

조 실 석주
회 주 중원
주 지 용주
부주지 광조 총 무 세정
기 획 사명 교 무 유정
사 회 승언 호 법 유방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번지 / 포교당 보현사 :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064)722-2829~30 / Fax (064)758-3367

기우뚱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보물 7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 앞쪽(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확연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보물 7호인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이 앞쪽(남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커녕 정기적인 안전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6일 본지 취재진의 현지 취재 결과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울기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봤을 때(왼쪽 사진)보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 보다 확연해, 전문적 감식안이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탑의 기단부와 몸돌 사이가 들뜨거나 벌어진 부분이 없고 해체 보수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조적 문제보다는 지반침하에 의한 기울기 현상으로 보인다.

육안으로도 앞쪽으로 기운 상태 확연

"지반침하 가능성 … 지속적 점검 필요"



◇북동쪽 지대석은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어른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흙이 패어 있다.

4장의 사각형 돌로 이뤄진 탑의 지대석 역시 벌어진 틈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심한 북동쪽 지대석과 남동쪽 지대석의 경우 틈이 6.5~8cm 정도 벌어져 있고, 북동쪽 지대석이 남동쪽 지대석보다 밖으로 6cm 정도 뛰어나와 있었다. 앞쪽(남쪽)에서 탑을 보면 남동쪽 지대석이 밖으로 빠져나온 듯한 상태다. 때문에 지반침하라면 남동쪽 지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북동쪽 지대석은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바닥의 흙이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로 패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오른쪽 사진).

이에 대해 석탑 등 건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인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반이 조금씩 내려앉아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부터 그 상태였던 것으로 봐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현재도 내려앉고 있는지, 침하가 멈춘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안전 점검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건조물의 안전 진단을 맡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도 "원종대사 혜진탑의 경우 연 1~2회 안전 점검을 하는 정기 점검 대상(2003년 19건)에 들어 있지 않다"며 "해당 시·도나 문화재청에서 안전 점검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413번지 고달사지(사적 382호) 내에 있는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은 나말여초의 고승인 원종대사(869~958)의 부도로, 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977년(고려 경종 2)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장의 돌로 이루어진 사각형 지대석 위에 3단의 기단과 팔각 몸돌을 올려놓았으며 조각 수법이 매우 섬세하고 우아해 고려 초기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주=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소장처 불명 사리장엄구 58건

황평우 소장, '불사리장엄 도록' 등 조사

최근 38년 만에 보관 장소를 확인한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사리장엄구(본지 410호 10면 참조) 외에도, 발견된 기록은 있으나 소장처를 알 수 없는 사리장엄구가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www.chpri.org)를 통해 밝혔다.

황 소장은 1991년 중앙박물관이 펴낸 <불사리장엄> 전시회 도록과 2000년 문화재연구소가 <감은사지 동3층석탑 사리장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부록으로 실은 '한국 불사리장엄구 유물목록'에서 소장처가 나와 있지 않은 유물을 정리한 결과 모두 60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과 영양 삼지동모전석탑(문화재자료 83호)은 최근 소장처가 확인됐다. <삼국유사> 등 고문헌의 기록에만 나와 있는 3건을 제외해도 55건에 이른다.

◆소장처가 불분명한 사리장엄구

본래 있던 곳	시 대
감은사지 동3층석탑	682년
창림사지 석탑	855년
동화사 금당암 동탑	875년
성주사지 5층석탑	통일신라
성주사지 동·서 3층석탑	통일신라
부석사 3층석탑	통일신라
대둔사 북미륵암 3층석탑	고려전기
삼천사 대지국사탑	14세기
연곡사 3층석탑	고려
칠장사 부도	고려
(외 48건)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처가 확인 안 된 사리장엄구 중에는 △감은사지 동3층석탑(국보 112호, 쌍탑) △부석사 삼층석탑(보물 239호) △성주사지 서3층석탑(보물 47호) △연곡사 삼층석탑(보물 151호) 등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탑에서 발견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권형진 기자

古書 등 지류문화재 중성한지에 싸 보관

중앙박물관 관리법 소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은 최근 발간한 보존과학 연구보고서 <박물관 보존과학> 3집(연간)에서 지류(紙類)문화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상 상태와 간단한 응급처리 내용을 소개했다. 한지로 된 지류문화재는 공기 중의 습기나 표면의 이물질, 곤충에 의한 손상이 가장 많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김성희 씨는 "한지로 된 지류문화재의 경우 중성 한지에 싸서 습기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하며 부드러운 평붓으로 표면의 먼지를 자주 털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물 먹는 하마' 같은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 두는 것도 한 방법.

날장으로 된 문서류나 고지도 등은 가능하면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004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3~4월 발표논문 신청 접수

외국어 분과 신설 마지막날 종합토론

2004년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 스님)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결집대회 조직위원회는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4년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리는 제2회 결집대회 논문발표 신청 접수(skb.or.kr)를 3~4월 두 달간 받는다"며 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2차 대회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발표·토론할 수 있는 분과를 신설해 외국학자들의 참여를 대폭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지막 날 종합토론을 통해 각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종범 스님은 "발표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서둘렀다"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대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2260-3128



불교공예 (10)

음악이 흐르는 종

통일신라시대는 정치적으로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었다. 불교미술의 핵심인 탑, 불상으로부터 의식구인 범종에 이르기까지 조형적으로 가장 고전(古典)적인 형식이 완성되는 때가 이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미술은 비례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형태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이상적인 형식은 고려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종의 경우 771년(혜공왕 7)에 주조된 성덕대왕신종이 통일신라시대 종의 완벽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이 종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고려 초기를 보면 성덕대왕 신종에서 약간의 변모를 보이지만 통일신라시대 종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시대에는 용이 천판(天板)이라고 불리는 종의 윗면을 핥듯이 입술을 대고 있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서서는 얼굴을 바짝 들고, 아래 도상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로부터 살펴보면, 유곽 사이에 용처럼 S자형으로 머리를 든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 아래에는 네 분의 불상이 연꽃대좌 위에 앉아 천의를 휘날리며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 밑에는 활과 창을 든 신장이 2인을 한 조로 부처님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불상 사이에는 긴 천 자락이 길게 매달린 비파도 용과 함께 들려 있다. 용의 몸은 S자형으로 과장되어 있고 갈기는 음통 뒤로 휘날리고 있다. 종의 윗면에는 오각형의 꽃 장식을 세우고 꼭대기에는 조그만 구슬장식까지 올려놓았다. 여기서 시선을 약간 올리면 구슬장식이 음통 위에도 큼직하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밑과 종 몸체의 아래에 꽃 넝쿨이 띠를 이루고 있고, 유곽이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넝쿨 띠에 9개의 유두가 있는 것은 통일신라 종의 전통 그대로이다. 하지만 그 사이 공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여



◇동종(일본 중요문화재, 13세기, 높이 52.8㎝, 후꾸오까 시가우미 신사 소장).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종으로, 종 몸체에 새겨진 부조의 구성이 아름답다.

일본 신사 소장 동종 고려후기 대표적 작품

불상 등 장식·큰 음통 … 장엄한 울림 연상케

무런 장식이 없었던 윗면에 연꽃무늬를 새겨넣은 정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후기인 13세기에는 좀더 강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종 몸체의 여백에 비천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때부터는 비천에 불상, 보살상, 신장 등 도상들이 늘어난다. 아울러 이전보다 장식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일본 후쿠오카 시가우미진자(志賀海神社)에 소장된 동종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종이다. 첫눈에 종에 비해 용과 음통이 눈에 띄게 커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종에서는 용이 천판에서 얼굴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구름과 박판(拍板) 같은 악기가 음률을 그리며 떠다니고 있다. 통일신라 종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적인 요소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화려한 장식과 경쾌한 동감은 종을 치지 않더라도 이미 시각적으로 거룩하고 장엄한 울림을 표현해 내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에서는 신비한 장중함이 떠오른다면, 이 종에서는 화려한 음악이 연상된다. 통일신라에 완성된 종의 이상적인 형식은 고려 후기에 와서 음률로 장식된 불꽃을 한껏 피운 것이다. 마치 촛불이 꺼질 때 마지막 불꽃을 강하게 발산하듯이….

경주대 문화재학부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법장스님의 종단운영 4대 기조

"수행과 전법중심의 종단,
전 종도가 참여하는 원융살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불교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조 실 석주
주 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870)
종무소 02)511-6070~4 / 포교실 02)516-5652 Fax : 02)544-2141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법회안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불심이 돈독하여 서로를 살려내는 인생철학을 가진 행자(女)를 구합니다.
인생상담 : 조금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보 현 정 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구인 구직

(女) 종무원 모십니다
● PC 사용 가능
● 20대 ~40대
▷ 구파발
02)381-7970
011)9575-7308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011)9638-8229

(女) 사무원 구함
● 일반 종무직 1명
● 영어, 컴퓨터 전공자 1명
▷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포교에 원력크신 인연있는 스님 모십니다
(불사 관계로 양도)
011-9687-9762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산골짜기 물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굴을 찾습니다
임대나 파실 분 연락주십시오
055)342-0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50세 이상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화 암 사
043)851-6013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5108
011-390-0108

산사나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61)772-4109.5401
011-9302-1618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016)811-6787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오후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조용한 암자 토굴에서 기도 공부하며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구함
017-409-9599

산속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
011-9825-0108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 울산광역시
011-860-8793

이전 강좌 / 알림 정보

광 명(光明) 월 간 지
(행복 · 건강 · 번영 · 진리의 월간지)
3개월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31)297-1994
016)383-1990
좋은 운명의 근원은 덕(德)
- 본문중에서 -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 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주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기타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개 강 3월 11일부터 수료후 자신있게 감명할 수있는 충분한 자료 제공
수강료 수강료 월 15만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군 포교 불사 후원
호국 법해사
지도법사 송정스님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10-33
031)445-0573
011-748-6452

탈 종 공 고
· 사찰주소 : 경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 901
· 사찰명 : 도 암 사 · 법 명 : 승 암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3월 5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Hanmaum
압구정동 한마음공인중개사
대 표 나 정 수
한성대 부동산학 석사
문의 (02)542-0660
(016)791-6506
e-mail : na7576@hanmail.net

30초이내 운세를 맞추면 입 금하세요
02-826-5067
● 서울은행 24304-3396114 예금주 : 김진동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티해보세요.
● http://www.speeddunse.com에서 무통장 입금외에도 핸드폰/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산소법당에서 기도하세요!
도심법당 산소피아가 山寺의 법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JM GLOBAL 홍보이사 김광현
02-771-1095
011-704-5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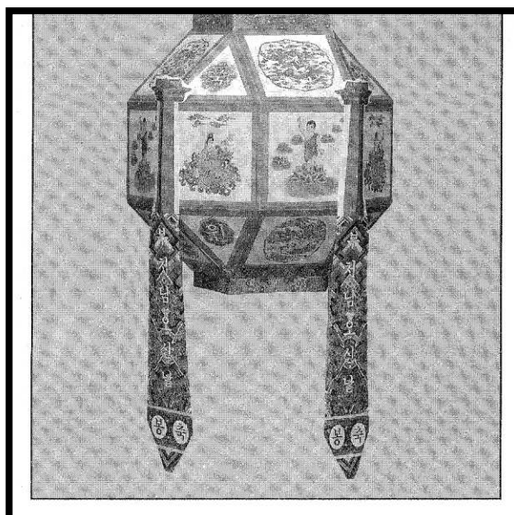
새해맞이 100% 영가천도
반드시 영가천도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분께 이제 100% 영가천도를 약속드립니다.
천도재 봉행 후 막연한 생각으로 천도가 잘되었겠지가 아닙니다.
누구네 천도재는 잘되었고 누구네 천도재는 잘 안되었고가 없습니다.
영가문제가 해결되면 고통을 주는 영가에 연결되었던 모든 분들이 다 장애를 벗어납니다. 탁한 눈빛이 밝아지고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고
영가장애로 인한 병과 고통 그리고 집안의 우환 사업의 장애등이 해결됩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고 침착해서 생활에 안정을 찾습니다.
술과 색을 밝히던것을 멀리 합니다.
본인이 확실히 느끼고 알도록 불공해 드립니다.
※ 정토사의 백병산 기도처로서의 기운이 대단합니다 철야 3000배나 좌선하실 신행단체에게 법당을 무료로 개방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031-771-0227

일심사 甲寅山神大祭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납이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서른세분 산신님을 봉안하고 癸未年 正月十日甲寅月甲寅日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오니 산신님과 인연불자는 일심사 甲寅산신제에 동참하시어 새해에는 국운발전, 업장소멸,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2월 10일 (음 正月十日) 오전 10시
● 장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1구 일심사 산신각
● 동참금 10만원을 입금하시고 016)289-1187로 연락주시면 기도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466802-04-007694 / 예금주 : 정문식)
일 심 사 주지 설호 합장 Tel. 041)356-1187

易學 비법전수
천문, 지리, 인사에 능통하게 되어 묻는 즉시 무엇이든 답할 수 있어 도력 향상은 물론 성업이 가능한 시간도법을 속성 전수합니다
(질병 치유법 및 개운법 별도 전수함)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
宗聖 易學院 02)3446-4118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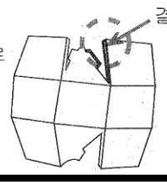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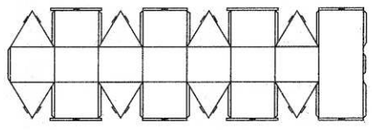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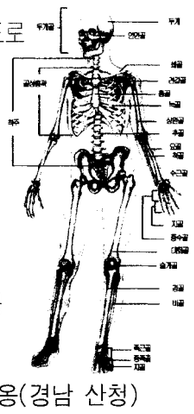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경북
- 법당:31평
- 요사:90평
- 부지:1000평
- 가액:5억

- 위치:전남
- 법 당:30평
- 요 사:50평
- 부지:3000평
- 가액:3억5천

- 납골당 사업안내 -

서울근교사찰부지(3,500평)에 납골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대리상담 거절)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爻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자연철학 회원 모집

♣ 운명감정 비법공개
♣ 창업 및 취업보장
♣ 자격증, 회원증 발급
♣ ARS전화상담가능

무료공개특강 2월20일 목요일

※수강 :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강사 : 학회장 직강 / 공 자운교수(서울大 졸)
★수시접수★

사단법인 한국자연철학연구학회 ☎(02)2272-5131 (종로 5가 한흥증권빌딩)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인천 시내 최고요지
- 법당 : 5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위치 : 안양시내
- 대지 : 26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40평
- 양도가 : 7억 7천
- 뒤는 산세 좋으며 안양시내를 관망할 수 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27평
- ※계곡끝에 야산과 붙어 있슴 도로, 전기 부지앞까지 들어옴
- 가액 : 인연되신분(절충가능)

011)9945-906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시내 중심 기차역, 버스터미널 걸어서 5분
- 평수 : 60평 (불사관계로 양도) 현재 일요법회중인 유일 포교당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월세 입주시부터 1년간 면제) 시설 최상급 2천만원 (주차장 완비)

054)973-4118

사찰(급)안내

- 위치 : 상계4동 산 152-24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주지실 및 종무실 휴게실 방5개 공양실 방2개거실 20평
- 가액 : 5억 2천만원

02)939-0221
011)9124-848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 480-4848, 031) 417-4848
팩 스 : 031) 480-8549

사찰 안내

- 위치 : 가평
- 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 8천

- 위치 : 서울
- 부 지 : 10,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대로변 옆 주차장 완비, 4층 건물중 2층
- 평수 : 50평(실평수 47평)
- 보증금 : 2천만원(절충가능), 월 50만원
- 방3개, 주방, 세면장, 거실 큼
- 시설비 : 1천 5백만원

043)272-0147

사찰 안내

- 위치 :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차선도로옆, 차령산맥줄기
- 평수 : 대지 150평, 건평 80평
- 특징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지장불 많이 모셔져 있슴 법당, 요사채, 용궁 있슴
- 가액 : 2억원

011)9910-1268
032)882-12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최고요지 방이동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5만원
- 시설비 : 7,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262-7011
02)420-47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통영간 중간지점
- 부지 : 500평, 법당 : 20평
- 시설 : 삼포목재 단청된 30년 역사의 전통사찰양식으로 산신, 용왕각이 모셔져 있음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가 인접하며, 절뒤에서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임.(넓은 주차 시설)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능)

011)9209-789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시 5층 건물 중 3층
- 법당, 응접실, 방, 부엌, 화장실,샤워장, 삼존불, 탱화, 냉장고 등 집기일체
-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600만원(실제 시설비 절반가격임)
- 계약금 있는 분만 연락
- 급한 사정임. 전 · 월세 조정 가능

011)9973-4248 / 011)578-0603

사찰 안내

- 위치 : 통도사 IC 근처 현대식 건물
- 법당 15평, 요사 25평, 대지 95평
- 가액 : 9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6)9891-7755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현동 태백산자락
- 평수 : 대지 밭 임야 합 3600평
- 시설 : 방 2개, 부엌, 전기 유, 핸드폰가능, 자동차 진입
- 가액 : 5천만원

011)721-5046

암자토굴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 조적1,2층 (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8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법륜사 큰도로에서 150m
- 평수 : 대지 48평, 실평수 80평 방 : 큰방 2개(보일러)
- 화장실(실내외 각각 1개)
- 가액 : 2200만원

041)841-1257
011)9823-484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현대전자에서 10분거리
- 부지 822평, 법당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7평, 창고 10평
- 오래된 고찰입니다
- 1000년 이상된 미륵부처님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31)632-1775
017)236-1775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1억은 1년뒤에 지급해도됨)
-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약 16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버스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내외
- 특징 : 마을뒤에 위치하고 가정집이나 뒤에 소나무숲. 옆으로 감밭. 교통,주차 편리. 기도처 적당
- 대지 172평, 건평 30평
- 가액 : 1억 4천만원

016)833-2331
055)345-1441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 부지 : 전체 210평
- 건물 : 조립식 건물 37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1억 2천만원
- ※ 개발지역내 위치

011)487-265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종점
- 대지 : 370평 (목조 인법당)
- 건물 : 2동
- 가액 : 9천만원 가격절충

054)437-1857

사찰안내

- 풍수지리상 최상급
- 위치 : 행정수도 예정지 주변 (충청권) 고속도로 IC 인접(5분거리) 교통원활
- 가액 : 9억원

019)519-3385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리
- 대지 70평, 건평(지하 33평, 1층 요사채 방 3개) 주차장 완비
- 2층 33평 법당, 3층 21평 법당
- ※ 특징 : 용도변경 가능. 신축건물
- 가액 : 전세 5억(양도는 문의후 별도 상담)

02)903-4210
02)999-8390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남 대치동 롯데백화점 뒤
- 평수 : 50평 반은 아파트식으로 살림가능 반은 법당
- 권리금 : 2천 1백만원 보증금 2천3백만원, 월 40만원
- 공부하실 스님 연락바람

02)3453-8606
017)343-86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효계동
- 법당 : 약 20평
- 시설 : 삼존불, 요사채(2층)
- 특징 : 포교당으로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800만원(매매)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1)577-578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왜관 구미사이
- 부지 : 3000평 (법당 25평, 요사 32평,주차장 1000평) 전망 및 산세 최고
- ※ 갑자기 외국 외유로 인해 (급)안내해 드립니다

011)577-8415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4거리 큰 대로변 3층건물 3층 5호선 목동역 5분거리
- 평수 : 30평
- 아미타불 모셔져 있고, 종무실1, 법당1, 사무실1, 거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7-009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동대신동 버스정류장 50M 나무 울창한 곳
- 신축대지 200평, 건평 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6억 5천만원(주인직접)

016)651-1800
011)870-14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개금불상,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슴 현재 법회중(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시설비 : 절반으로 답사후 결정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011)9343-0780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윈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목어

귀차니스트



임연태
본지 편집부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선사(禪師)들의 살림살이는 극도의 간결함을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반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자리, 그 근원을 추구하는 선의 궁극에 도달할 수 없다. 때문에 선사들은 격외의 언어와 행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참 모습, 나아가 우주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에 목숨까지 거는 것이다.

그런 수행의 단면들이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차 마시는 '한가로움'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들의 정신마저 한가로운 것은 아니다.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공간에는 새로운 종족들이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귀차니스트. '귀찮다+ist'의 합성 신조어를 간판으로 내 건 귀차니스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숱하게 생겨나는 '족류(族類)'의 한 갈래다. 그들은 놀고먹는 '백수'와는 전혀 다름을 표방한다. 일상에서의 행동반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을 행동수칙으로 삼는다.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서 천장에 달린 전등을 끌 수는 없나?"를 화두로 챙긴다는 귀차니스트들이지만 만사를 방기(放棄)하자는 건 아님을 주장한다. 생각의 쉼과 움직임의 효율성이 삶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 주느냐에 따라 진정한 귀차니스트와 가짜 귀차니스트가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그렇듯이.

귀차니스트와 그의 아류인 괜차니스트 족들의 등장. 사회의 다양화와 다변화 속에서 우리들 의식과 행동의 바른 지향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스님 산불 진화대' 발족

단양 구인사 스님 21명이 2월 28일 산불진화대를 구성했다. 이들 스님들은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초동진화 및 뒷불 정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불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40점을 지급받았다 한다. 3월에는 제천 정방사 신도들도 산불진화대를 조직할 계획이다. 불자들의 산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올 봄에는 산불로 죽어가는 나무가 없기를 빈다.

장군죽비

"국보를 지킨 대접 이래서야…"

지난 달 국보로 승격 지정된 <삼국유사 권3~5>의 소장자인 도혜 스님은 요새 기쁘기는커녕 속이 끓는다고 한다. 지정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 지정서는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국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해 왔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소중한 유산을 지켜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주 전 세계적으로 무려 천만 명이 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 압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곳 한국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더불어 반전을 촉구했다. 또한 만델라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인간방패로라도 전쟁을 막겠다면서 많은 사람이 현지로 모이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온 세계로부터 전쟁만은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왜 전쟁을 강행하려할까? 물론 그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국의 이익 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무조건적 관철은 파시즘적 발상이다. 남이나 남의 나라 또는 지구촌 전체의 이익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야만이다.

이라크와 관련된 미국의 국익은 안정적 석유확보, 군사력에 의한 세계지배, 적을 설정함으로써 세계경찰 자임,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등이다.

이라크 석유매장량은 2억 2000만 배럴로 미국의 수입량의 98년 치에 해당된다. 이를 미국이 온통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비는 클린턴의 2800억에서 2003년 3,790억으로 일년 사이에 거의 1천억을 올렸다. 2004년은 약 4천억으로 세계2위의 군사비 500억보다 8배 가까이 많다. 이러고도 미국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또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기에 미국의 적이라는 북한 및 이라크와 미국 중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을 뽑는 CNN투표에서 미국은 세 배, 네 배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진짜 악의 축과 '무법자'는 북한과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이다. 전쟁이라는 집단 대량살인을 통해, 그것도 핵무기까지 사용해 돈을 벌려는 부시정부 고위층은 보통 살인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셈이다.

이 야만의 전쟁은 한반도 전쟁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라크처럼 한반도 전쟁위기 역시 부시정권 등장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금의 북핵 파동은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미국이 북한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불가침조약만 체결하면 단숨에 해결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북한의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야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세계의 반전여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야만의 제국에 대한 세계인의 승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승리가 한반도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대량살상무기전쟁을 공언해온 부시가 막상 이라크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부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승자박 된 부시는 화살의 방향을 북한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무력사용 절대불가를 다시 천명하고, 군부를 포함한 각 사회단체가 이를 재선언하면서 민중의 전쟁통제력을 높여 남북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반전 여론층과 연대를 통해 제2의 전쟁 막기로 매진해야 한다. 지금은 평화의 횃불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야 할 때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강정구 교수
동국대 사회학과

지금은 평화의 횃불 밝힐 때

열린마당 불교포럼 '중도사상과 참여민주주의' 토론회

자타불이·자비정신으로 참여민주주의 정착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김연규)은 2월 26일 제24차 열린토론마당 '중도사상과 참여민주주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혁재 교수(성공회대 정치학)는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전제로 한 자비정신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종욱 박사(동국대 강사, 불교철학)는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 등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개혁불사 통해 변화·요구 적극 수용

민주주의가 더디게 정착되는 것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와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에도 기인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기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自他不二) 점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 포괄적인 사랑인 자비정신의 확산은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나 혼자만 깨달음과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것을 염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구제를 추구하는 대승정신 또한 민주주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

현대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상실의 시대라는 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간 상실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종교인 불교는 인간을 인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 줄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지역·계층·성별·세대·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은 불교의 원융회통의 정신과 방편의 묘를 살리면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

불교가 계속 산중에만 머무르면서 사회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고통 속의 중생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개혁불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중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생 구원을 위한 민주 정치를 이 땅에 꽃피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불교계가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욱
동국대 강사

불교민주당·사회당 결성 고려해야

현대 민주 국가에서 불교는 종래의 세속화가 아닌 새로운 사회화를 모색해야 하고, 그것은 사회의 구조 등을 깨달음의 성취에 합당한 배경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구조 등을 불교적 이상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의 결성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무엇일까? 시민 사회가 해방 지향의 자율 장치라면 국가는 간섭 지향의 통제 기관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시민사회 활동을 경력삼아 국가의 공직에 나가는 것은 자기 정당성의 부인이 아닐까?

시민의 정치 참여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중도(中道)다. 왜냐하면 어느 일방에 서 있는 자기 이익의 희생 없이 진정한 소통을 불가능하며,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 관행의 합리화가 중요한 바, 이 때의 이성은 계산적 이성보다는 중도적 이성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에서 그 반야의 지혜가 곧 중도의 지혜이며, 원융회통사상도 중도사상 이외의 것이 아니다.



홍성범
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정치참여 시대 흐름, 성직자 참여는 신중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는 시대의 흐름과 일치한다. 현재 정치판에서 정당 개혁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개혁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또 합리적 개혁세력이 부족해 개혁과 청산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불교가 사회나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개혁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불교민주당이나 불교사회당처럼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성직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종교의 정치 참여는 종교계 내부에서 진지한 토론과 고민 후 결정됐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결정에 좌우됐던 것이 현실이다.

성직자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향점으로 삼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은 내부의 오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 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 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교종본찰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두산 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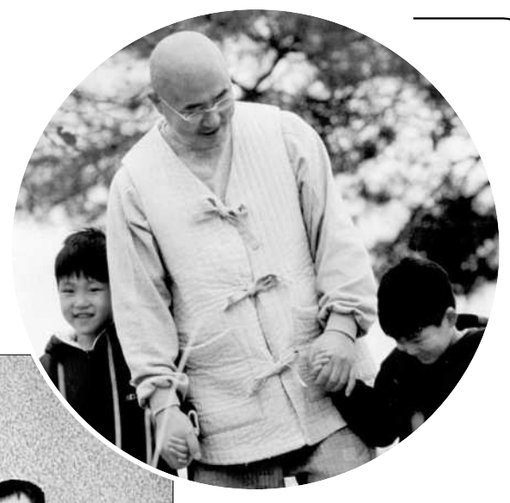
총무국장 : 여산 기획국장 : 보인
교무국장 : 환풍 재무국장 : 석봉
사회국장 : 성일 호법국장 : 자현
연수원장 : 무착
교구신도회장 : 이상현 신도회 총회장 : 김순경
신도회 회장 : 조관음행 거사림회 회장 : 조명동
어머니합창단 단장 : 팽성불수 산악회 회장 : 이감로화

봉선사 산하기관
연꽃유치원, 딸기원어린이집, 인창경로식당
학교법인 광동학원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광동여자고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031) 527-5974 팩스 031)527-1958

호암사 가족 22명 특별한 봄맞이

유치원·중학교 입학… 신학기 준비로 '술렁'



◇아버지 현종스님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성조와 제빈이.



◇따뜻한 봄햇살이 쏟아지는 처마밑에 호암사 주지 현종스님을 비롯 가족 22명이 모였다.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의 3월은 특별하다. 6살 난 영국이와 7살 제빈이, 성조가 이안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데다, 문수는 함창중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이다.

호암사에는 초등학생 7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 등 유치원생까지 합쳐 학교에 다니는 인원이 16명에 이른다. 대가족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현종스님과 공양주 보살, 정신지체로 보호가 필요한 언니 오빠까지 호암사의 가족은 모두 22명.

호암사를 들어서자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유치원 입학을 앞둔 제빈이와 성조는 좁은 마당에서 축구에 한창이다. 11년 전, 토굴터를 찾아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현종스님은 초라한 토굴 앞에 버려진 아이를 맡아 기른 것이 인연이 되어 대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노릇을 시작했고 조용한 참선 정진의 꿈은 저만치 날아갔다. 영국이, 제빈이, 성조도 첫 돌이 막 지났을 때부터 키워 어느새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아버지 현종스님 "유치원 입학 두 녀석 몸 약한데…"

7일로 다가온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스님은 생각이 많다. 유독 병치레가 잦았던 성조와 워낙 굶주린 상태로 맡겨져 하체가 약한 영국이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평범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얼마 전 있었던 문수 졸업식은 물론, 아이들의 입학과 졸업에는 빠지지 않는 스님이지만 승복을 입고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벌써 유치원에 간다고 하니, 한밤에 병원 응급실에 오가며 속태웠던 생각이 나네요. 반듯하게 자라서 세상의 큰 일꾼이 되어 부처님과 후원자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향한 현종스님의 바람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다. 스님은 "장가 보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보아야 부모노릇 끝나는 것 아니냐"며 "족히 20년은 아이들과 부대끼는 것으로 수행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 생일 등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번에 김밥 100개를 말아야 하는 큰살림을 맡고 있는 공양주 이옥연(56) 보살은 "유치원 갈 때 새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이래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보살은 남들처럼 호화롭게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구김살 없이 키우고 싶은 욕심은 굴뚝같은데 19명의 아이들 뒷바라지가 수월치 않다고 털어놨다. (054) 541-7863.

천미희 기자

영남불교대 뉴욕에 분원 설립

우학스님 건물 물색중… 올 하반기 개원 목표

영남불교대학이 미국 뉴욕에 현지분원을 설립한다.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뉴욕에 영남불교대학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학 스님은 "미국에 새로 시설을 건립해 종교시설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 현지 사정을 감안, 교회를 인수해 사찰로 개조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마땅한 건물을 물색 중"이라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200여평의 건물을 마련, 정식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원하게 될 뉴욕분원의 운영은 영남불교대학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 정서에 맞게 다듬어 현지인 포교에 주력하게 되며,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의 학인 스님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한인 2세에 대한 한글교육, 다도강좌, 사찰음식 강좌, 참선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를 마련해 우리문화 보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지·수·화·풍의 고마움 되새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감사재 봉행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월21일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재를 열고 고마움을 되새겼다.

흙, 물, 불, 바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수화풍 감사재가 열려 화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2월21일 법당에서 신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행사를 가졌다.

혜도스님은 감사재에 앞서 "지수화풍의 소중함을 잊지 살고 있지만 지수화풍이 없이는 인간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내 생명의 근본이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탁에 맞춰 "나무 석가모니불" 정근과 "나무 자성본래불" 정근을 이어가며 동참한 신도들은 지수화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삼배를 올렸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3일 지구무사고 발원재를 열어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천미희 기자

법계장학회 설립… 첫 장학금

명성스님, 동국대 졸업 학승 등 5명에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이 불교학 발전을 위한 법계장학회를 설립했다.

명성스님이 설립한 법계장학회는 2일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동국대 서울과 경주캠퍼스 불교대학, 중앙승가대 수석졸업자와 대학원생, 유학생등 학승 5명에게 전달한다.

법계장학회 사무장 석운스님(운문사 교무)은 "학장스님께서 장학회 설립에 원을 세우고 오랜 동안 모은 사재를 털어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시민선방 원각선원 열어

성각스님, 27일 봉불 점안

대구광역시 불교신행단체연합회(회장 박운식)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선서화를 통한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실천해온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이 2월27일 부산 대연2동(지하철 못골역)에 도심포교당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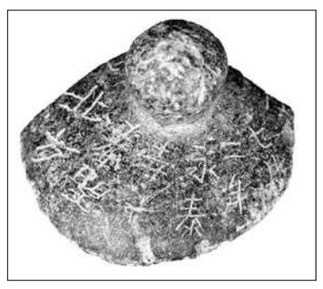
도심 포교당과 시민선방을 역할을 겸하게 되는 원각선원은 이날 봉불 점안 및 고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원각선원은 일반불자들을 위한 원각불교교양대학 개설과 참선 지도 등을 통해 불법 포교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051)638-011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주교육청 앞 원화로 일대 성전사원 봉성사터로 밝혀져

위덕대박물관 '봉성' 명문 납석제 뚜껑 발견



통일신라시대 국가와 불교계를 연계하는 관청의 사찰로 알려진 성전사원 봉성사의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각종립 위덕대 박물관(관장 김무생)은 지난해 경주시 인왕동 구 경주교육청 앞 원화로의 가로수 교체 작업 현장에서 발견된 지름 7.9㎝에 두께 2.1㎝의 납석제 뚜껑(사진)을 조사한 결과 신라 혜공왕 2년인 766년을 가리키는 '영태, 2년, 7월, 봉성, 사야'라는 명문이 발견돼 이 일대가 1,300여년 전 창건된 봉성사 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봉성사는 통일신라시대 8대 성전사원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에 창건돼 당시 관청으로 사용됐던 중요한 사찰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현재까지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고증된 것이다.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명문의 발견으로 8세기 때의 금석문 연구와 신라왕경 관련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삼광사 서포터즈' 미얀마 방문

"올림픽 부산유치 협조" 호의적 답변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미얀마 서포터즈로 활약했던 삼광사(주지 도원)가 2월 11일부터 6일 동안 미얀마를 방문했다.

미얀마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도원스님을 비롯한 삼광사 신도 18명, 부산불교신도회 회원 3명 등 총 28명은 2월 12일 뚜라 에이 민트 미얀마 체육부 장관 주최로 열린 부산시민서포터즈 친선방문단 공식환영행사에 참가,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자리에서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뚜라 에이 민트 장관에게 불교교류 확대와 오는 2016년 부산의 하계올림픽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호의적인 답변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원로대덕스님과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께 삼가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중진스님과 교구 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과 총무원장 선거인단 스님 그리고 제방의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납의 부덕함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납은 금번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고자 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오랜 고민속에 나온 지식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사회를 계도하고 수행가풍이 살아 숨쉬는 종단으로 우뚝 세우는데 일조를 해 산문(山門)에 들어선 뒤 받은 불은(佛恩)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했지만 저의 부덕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법장스님께서는 종단 안팎으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으로 종단의 제반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신임 원장스님을 도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납 역시 겸허하게 종도들의 뜻을 받들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7년 2월 25일

제31대 총무원장 후보 종하 합장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님의 침묵’, ‘공약 삼장’ 산실 방치

구청, ‘보존대책 마련해달라’ 시에 요청
지자체, 당국 예산문제 등 궁색한 변명
불교계, 매입 기념관 건립 서둘러야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9년 3·1만세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 공약삼장을 작성한 현장이며,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의 지를 담은 시 ‘님의 침묵’을 탈고했던 계동 한옥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북촌한옥보존마을에 있는 35평 남짓한 ‘ㄷ’자형 한옥은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시인으로 근대사에 큰 자취를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5년 동안 기거했던 고택이다. 소설가 오인문(종로구 홍지동)씨가 1월 초 처음 발굴한 만해 스님의 옛집은 현재 집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물론 서까래가 썩어 들어가고, 지붕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다.

종로구청 문화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에서 문화재 가치판단을 조사해 2월초 ‘한용운 생가를 매입하여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의 보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며 “아직까지 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건물의 변형이 심해 문화재 지정이 힘들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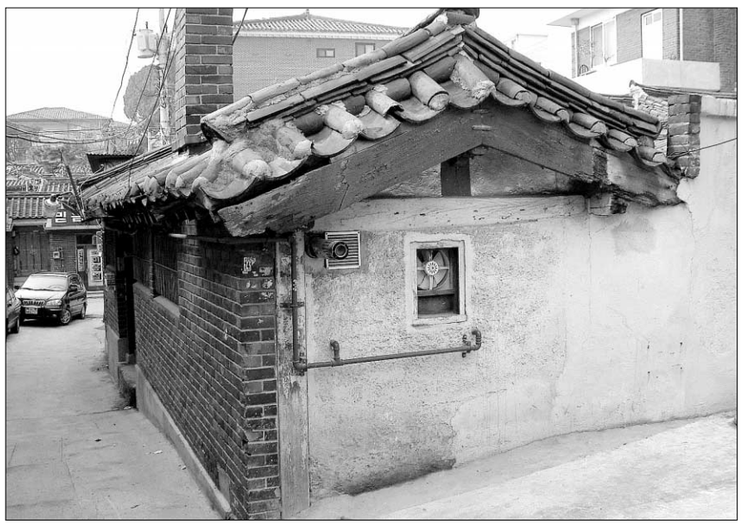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해 스님의 옛집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3·1절만 되면 만해 스님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교계가 나서 옛집을 매입하여, 기념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1988년 이사 온 건물주 여규평씨는 “몇 차례 집을 보수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원형보존이 쉽지 않다”며 “시나 구가 좋은 뜻으로 매입하여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근·현대 건축물의 경우 뚜렷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세대 연신원 건물과 육당 최남선 고택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기습 철거되고 있다. 그나마 만해스님 옛집은 현소유주의 뜻이 좋아 당장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가옥 소유주들이 문화재 지정을 우려해 먼저 가옥을 철거해버리는 추세에 우리 역사 문화 공간의 멸실이 우려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만해 한용운 스님이 3·1 독립선언문 공약삼장을 집필한 현장인 서울시 종로구 계동 옛집이 방치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869건 확정

불교 관련 217건, 553억 4800만원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 28억 책정

문화재청은 최근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869건을 확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포함 2천798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960건 2천403억2천만 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16.4% 증액된 규모로 사업 당 평균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를 받아 보수·정비하는 불교 관련 문화재는 모두 217건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53억4800만 원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54건 133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44건 85억1300만 원, 경상남도 31건 80억 원, 충청남도 16건 54억5400만 원 순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가사적인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128호) 일대 토지매입으로 28억5700만원이 투입되며, 조계사 대웅전 보수에도 28억이 책정됐다.

사찰소장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구인사, 무위사, 불갑사, 보림사, 불국사, 기림사, 은해사, 청곡사 등 8개 사찰에 모두 78억 원이 지원된다. 산청 율곡사 괘불(보물 1316호), 구례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보물 924호) 등 8건은 9억5천만 원을 들여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불교관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단위:천원)

시·도	건수	예산
서울	1건	2,800,000
부산	1건	142,857
대구	3건	414,285
인천	4건	768,571
광주	2건	250,000
대전	없음	없음
울산	1건	200,000
경기	9건	4,833,999
강원	13건	3,401,142
충북	10건	2,965,714
충남	16건	5,454,284
전북	26건	3,970,570
전남	54건	13,331,712
경북	44건	8,513,422
경남	31건	8,001,425
제주	2건	300,000
계	217건	55,347,981

자용스님 방송프로듀서상 수상

재치있는 진행, 강원 어린이 교육 공로



불교방송의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인 ‘룸비니동산(월~토 오후 4시45~5시)’을 진행하는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사진)이 제15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부문을 수상했다.

10년 동안 ‘룸비니동산’을 진행해 온 스님은 사찰 주지로,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린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2월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방송프로듀서협의회는 “재치있고 유머 넘치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으며 어린이 교육이 미미하던 강원지역의 어린이 교육에 앞장서온 공로가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에 힘입어 어린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기자

충북 ‘도정발전기원법회’ 봉행



한해 지방행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와 지역 불교계가 함께하는 도정발전기원법회(사진)가 지난 2월 2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충청북도 도.불협의회 회장 지명 스님(법주사 주지)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행단체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우 충북지사장

봉은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봉은사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올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봉은사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난립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원우기자

고창 선운사 강원, 학인모집

고창 선운사(주지 법현)가 불교강원을 개설하고, 5일부터 4월 2일까지 학인을 모집한다. 선운사는 초대 강주 법장스님은 “선운사 강원은 한문 독해 능력 습득을 통한 불경 원전 교육과 현대적 감각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063) 561-1422.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흥국사의 ‘살아있는 역사책’

고양 흥국사 최정애 신도회장

상대방 존중, 모든 일 매끄럽게 진행
70고령에 삼천배 정진, 불자들의 모범

“예전에 여기쯤 중문이 서 있었고 바로 옆으로 붙어서 쪼그만 방이 있었죠. 거기서 또래 보살들하고 시집살이 이야기며 부처님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경기도 고양시의 가장 유서 깊은 사찰인 흥국사. 조선 왕조의 원찰인 흥국사에는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통하는 보살이 있다.

최정애 보살(70세, 법명 백광화). 6년 째 흥국사 신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보살은 첫아들을 낳던 삼십년 전부터 올해까지 40년 동안 흥국사 약사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공양간 자리에 산신각이 세워졌다가 중창된 것이며 공양간, 종무소, 명부전이 차례차례 들어서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그 사이에 흥국사는 주지 스님만 아홉 명이 바뀌었다.

40년이면 강산도 네 번 변했을 세월이지만, 최 보살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 ‘인욕보살’이라는 최 보살의 별명이 바로 그것이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얼굴 한 번 찡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최 보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네 맞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말이 맞는 것 같군요”라며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준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웃으며 말을 하기 때문에, 혹 언성을 높이는 일이 생겨도 화를 낸 사람이 오히려 무안해져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도회 주축으로 진행되는 초파일 행사는 물론 각종 재일 불공이며 기도회도 최 보살의 소리 없는 노력에 의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된다.



◇최정애 회장(왼쪽)과 도반인 채영란 보살이 부처님 오신날에 사용할 연등을 만드는 모습.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는 최 보살의 숨은 노력은 흥국사 신도들의 신행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 보살은 최근 창립된 고양 천수천안자원봉사단에 흥국사 신도들이 주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았다. 신도들의 신행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최 보살의 꾸준한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 보살은 매일 아침 새벽 금강경과 천수경을 독경하는 것을 일과로 삼아 마음 공부를 하는 한편, 매달 열리는 철야 법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70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사재일에 열리는 삼천배 정진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최 보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젊은 불자들의 신행을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강유신기자



추천의 말

대오스님 흥국사 주지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

최정애 보살은 신도들 사이에서 말뚝 신심으로 정평이 난 불자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삼천배를 너끈히 해 내는 모습이나, 불교교양대학을 한번도 빠지지 않는 열정 때문에 최 보살은 흥국사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국사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최 보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보살 같은 불자들이 있기에 흥국사 신도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법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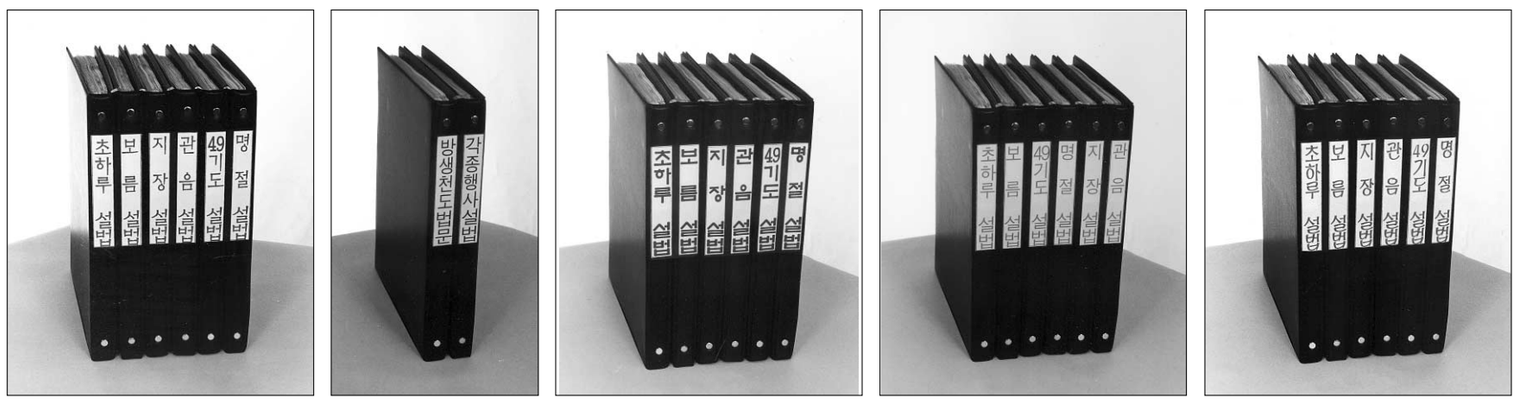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특징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기도, 명절, 방생, 영가천도,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각종 법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대표 전화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달빛 401

개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원

◈ 유리스에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홍대전철역 인근에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3년 2월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대표 이 효 실



불사 법당조성 탱화 유기 서적 테이프 조상옷 무용도구

찾아오시는 길
서교 HOTEL 제일 HOTEL 영희대교 청기와주유소 제일은행 합정보도 우리은행 50m 강남레이저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1층) 서울은행 합정역 예식장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전화 : 02-336-2165 팩스 : 02-336-216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1층

동의보감 중약대사전 본초강목등에서 간해독에 영약으로 알려진

헛개나무묘목분양 · 헛개나무열매추출액

사찰(암자) 빈밭에 헛개나무 묘목을 심어서 재배 가능.
실천불교, 생산불교! 자립자족하여 건전한 불교 중흥, 복지 사회 구현합시다.

◈ 국내언론에서 바라본 효능

간암, 지방간, 간경화, 간암등 탁월한 효과 입증
2001.1.30일 MBC 9시뉴스 보도, 2001.1.30일 SBS 8시뉴스 보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등

◈ 문헌에 본 효능 근거

- 본초강목 : 헛개나무로 집을 수리하다가 실수로 나무토막을 술독에 빠트린 다음날 술이 물맛으로 변했다.
- 중약대사전 : 반신불수, 풍습으로 인한 안면마비를 치료.

30여년간 산사에서 은둔하며 **한마음 선단식수련원**에서 수많은 수련생을 배출하던중 간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헛개나무 추출액을 물에 타 마시게 한 후 탁월한 효과를 얻어 헛개나무 묘목을 생산한지가 6년에 이르러 묘목 계약재배 하실분과 **추출액**을 원하시는 분께 **선착순 77명**에 한해 공급합니다 -원 기-

지금 전화 주세요.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55) 587-8762 원기농원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1225번지 성관음사 원기스님 합장

광명실상 성취기도법 을 알리며 · · ·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체(마음)을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佛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업, 병, 악, 고통, 재난, 불행, 죽음도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운명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운명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뜻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실상 완전원만'하므로 이것의 향상됨이 없이 생멸(生滅)하는 육체로서 대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멸(生滅)하여 항상 됨이 없는(無常) 온갖 것은 실체가 아니며 한낱 신념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불자님은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얻어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숙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역경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서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행복·희망·번영·건강·성공의 근원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도 없고, 능력, 인맥, 학력, 가문, 문벌도 없으며 더욱 생명까지도 없었던 불자님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도 모두가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지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부처님 은혜의 일념뿐입니다.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꿉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실상 성취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청정법신 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병과 재난과 불행은 악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광명실상성취기도"**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이 항상 충만하게 나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 명 실 상 회

광 명 실 상 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 장 진 관 법사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 장 각 광 합장

※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거나, 위 사진을 오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보내 주시면 책을 무료로 법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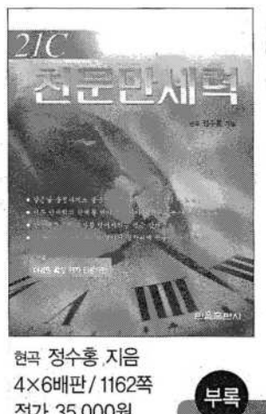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현곡 정수홍 지음
4×6배판 / 1162쪽
정가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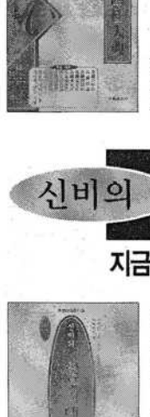
현세의 신간
-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는!
-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버리는 행운 만세력!
-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월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부록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적중율이 높은 사주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 唐四柱大典

이선암/전호일 공저 · B5 · 296쪽 · 값 18,000원



- 적성에 맞는 직업
- 잉태한 달로 남녀 구별하는 법
- 길흉부적법
- 기초역리학
- 남녀궁합론
- 각종택일법
- 기초육갑법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중·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柱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9114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구수성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제16기 신입생모집
입학일시 : 2003. 3. 14(금) 오전 10시
전화 053)784-8620

옛장인들 숨결 잇는 일 한순간도 방심 못해요

훼손 문화재에 새생명 주는 김사덕 씨

경천사10층석탑 8년째 보수
해인사 길상탑 등 다수 복원
문화재 주변 정리 서둘러야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몇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탑과 부도, 마애불….

제아무리 돌이 튼튼하다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석조문화재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석조문화재보존팀장인 김사덕(44) 씨는 전국 1200여 점의 석조문화재를 보살피고 있는 '119 구조대'인 셈이다. 그는 1992년 문화재연구소에 입사한 후 10년째 현장을 누비며 문화재 수리와 보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군 고달사터 부도(국보 4호)가 도굴꾼들에 의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들은 '119 구조대'는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고달사터 부도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부도 상륜부의 보주(구슬장식)와 보개(덮개 장식)는 조각났고 옥개석 귀퉁이를 장식하는 귀꽃장식 한 개도 부러진 상태였다. 상륜부를 보수하고 귀꽃장식을 제 위치에 붙이는 작업은 며칠동안 계속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수작업 대부분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탓에 지난 한 해 김 씨의 출장일수는 150여 일에 달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문화재들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 몸 하나 불편한 것은 기꺼이 감내해야죠."

김 씨가 하는 일은 크게 정기적인 현장 답사로 문화재 훼손 요인을 제거하는 예방작업과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화재의 보존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8년째 진행하고 있는 경천사 10층탑(국보 86호) 보존처리작업은 후자에 속하는 것.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복원작업은 높이 13.5m에 무게만도 100여 톤에 달하는 탑의 정밀실측 작업과 해체작업을 거쳐 오염물 제거와 균열 및 파손부위를 메우는 보존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 원래 부재의 30%를 잃은 채 되돌아온 경천사탑. 1960년에 와서야 시멘트로 보강해 가까스로 복원했으나 95년 다시 해체됐다. 워낙 탑의 손상이 심한 데다 산성비와 대기오염의 피해가 커 석탑 이곳저곳에서 균열과 부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탑신에는 부처와 보살, 용, 연꽃 등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이 수 놓여 있지만 재질이 약한 대리석이기 때문에 복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탑 복원의 관건은 옛 부재를 최대한 사용하면서도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균열이나 부식 부위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보완하고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곳은 탑과 같은 재질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접합한다. 현재까지 75%가 마무리됐고 복원이 완료되면 새로 지어질 용산 국립박물관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유달리 수난을 많이 겪은 경천사 탑이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곳에 세워지게 돼 다행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재미있고 보람있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김 씨. 그동안 해인사 길상탑, 연곡사 부도, 감은사탑, 원각사지10층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조문화재들이 그의 손을 거쳐 새생명을 얻었다.

문화재 복원 작업을 할 때면 각 부재마다 장인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오늘날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스럽기만 하다. 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하면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그와 함께 경천사탑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완(35), 김진형(30), 신은정(30) 씨도 비정규직 직원으로 보장되지 않는 신분,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사명감' 하나로 이겨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를 허탈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현장에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이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서 부서진 문화재의 파편을 깨끗이 쓸어버리거나 기념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느 절에서는 연등이 달린 줄을 묶어 탑의 부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탑은 국가재산이나 문화재이기에 앞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사찰에서 함부로 다룬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부재를 잘 수습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신고는 필수겠죠?"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책이듯, 문화재 주변에 갑갑하게 놓여 있는 시설물들을 말끔히 치워 훼손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또 다른 문화재 보존법이라고 그는 말한다.

"경천사탑의 복원작업이 끝나는 내년쯤이면 불국사 다보탑(국보20호)과 석가탑(국보21호), 그리고 감은사지 서탑(국보112호)의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김 씨의 모습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보답이나 공이 돌아오지 않아도 묵묵히 문화재를 보살피는 또 다른 '장인'의 모습을 읽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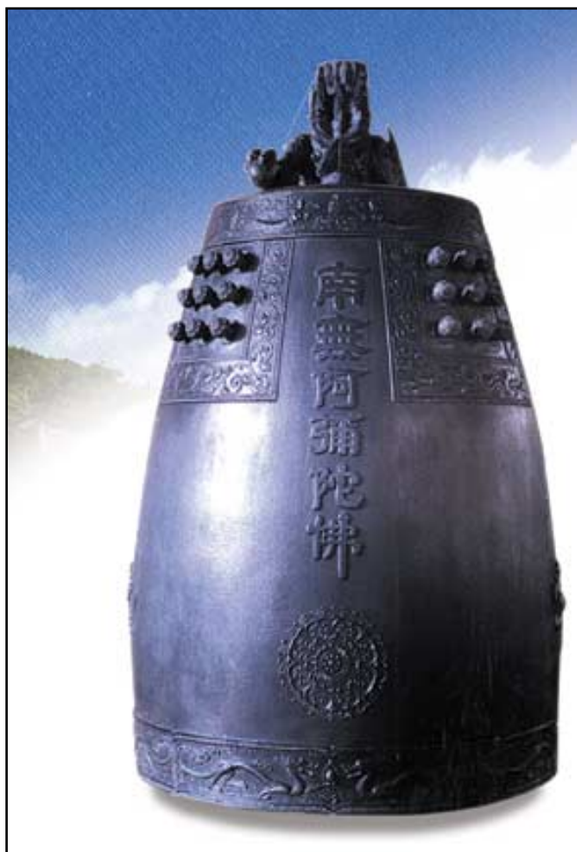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문화재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현장을 찾아 '새생명'을 불어 넣는 김사덕 씨. 왼쪽은 현재 보존처리작업 중인 경천사10층석탑(국보 86호).



◇김사덕 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주완, 신은정, 김진형(왼쪽부터) 학예연구사와 함께 경천사10층탑의 부재(상대중석)의 처리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량 : 일만삼천관

세계최대의 종 13,000관 (48.7톤)
고은산 봉선사 대범종

시주공덕 소원 성취 발원 천일 기도 입제
2003년 4월 5일 주지 석천 합장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법음」
장인정신
鐘宗社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연구소 :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465

대표 : 법향 전병식
공장 : 043)212-0903
서울 : 02)725-0878
H P : 011)266-8639

간화선-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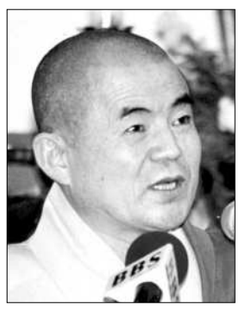
◇제7회 선우논강에서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데 동감하면서도 간화선 교육체계와 발심 부재의 수행풍토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선우논강 지상중계

최근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방불교의 위빠사나와 북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과의 비교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래의 위빠사나 수행 붐과 간화선 위기론이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25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대표 철오) 주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주제의 논강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편집자 주)

"같다·다르다"망상…발심이 문제

기조강연 혜국스님(전국선원장회의 회장)



오늘의 논강 주제는 '간화선-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이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는 같다-다르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 간화선에서는 같다-다르다는 분별을 망상으로 볼 뿐 정견으로 보지 않는다. 같다-다르다는 것은 양변(兩邊)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中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행과정에 있어 오직 발심(發心)을 문제삼을 뿐, 옳다-그르다 하는 흑백논리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는다.

간화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간화선을 받아들이는 현실과 수행풍토가 문제일 뿐이다. 간화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수좌들과 학자들의 수용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간화선 수행현실에 대해 경책하고 탁마하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 수행풍토가 바르게 자리잡히길 기대한다.

간화선은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상(相)으로 본다.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18계 전체를 '상'이나 환영으로 보는 것이다.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이 화두다. 아예 꽉 막혀 모를 뿐이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어렵다. 그래서 간화선에 애정을 가진 스승들은 노파심으로 제자들의 지도했다.

불성, 진여, 여래장, 본래면목이니 뭐라 해도 그것은 존재의 개념이 아니다. 무아, 진여, 불성은 언어와 개념 이전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말을 빌렸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나와 대상이 함께 없어지는데 그 무엇이 붙을 자리가 없다. 간화선의 견성은 일체의 대상을 떠난 철저한 자기 체험이다. 깨달음은 이해 보다는 체험, 즉 자기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수행풍토는 이해가 우선시 된다. 먼저 믿음이 서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간화선이다. 우리 불교의 저력인 간화선마저 부정한다면 한국불교는 아무 것도 남는게 없다. 좀더 검증과 토론을 거친 후 안으로 성숙되어가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의 화두 참선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인이 나왔다. 세계에 내놓을만한 수승한 참선법은 간화선이다.

발심(發心)이란 것은 '내가' 문제다. 나는 괜찮은데, 남이 문제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어록이나 경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노릇 잘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간화선에 대한 비판도 그것이 얼마나 애종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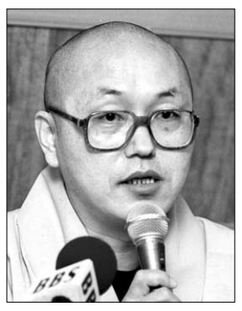
진리는 새로 이뤄가는게 아니다. 허공이 완전무결한 것처럼 진리도 완전하다. 허공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눈뜨면 진리도 바로 내 것이다. 진리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최상승선은 말이 끊어진 자리다.

한 생각 일어나는 즉시 대상이 망념임을 알아차려 본래 공임을 보며, 나아가 보는 놈까지 바로 없어지는 단계가 견성(見性)이다. 이는 봄이 없이 보는 것이며 무아를 꿰뚫어 봄과 다름 없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말길이 끊어진 화두의 세계를 사량분별의 세계로 끌어내린 게 문제이다. 간화선 자체보다는 발심을 문제 삼아야 한다.

간화선 부정하면 한국불교 정체성 붕괴
깨달음은 이해보다 체험으로 얻는것

'견성·해탈' 일치…대상은 달라

발제요약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다섯가지의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절문(徑截門: 가장 빠르고 간명하고 적절한 방법)'이란데 공통점이 있다. 두 수행법은 모두 '챙김'(마음챙김)을 중시한다. 간화선의 핵심은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 의정을 일으킬 것을 강조한다. 위빠사나 역시 몸, 느낌, 마음, 법 등의 명상주제를 끊임없이 챙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챙김에 바탕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견성(見性)과 해탈(解脫)로 승화되어 귀결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오랜 수행기간이 필요하지만 깨닫는 순간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돈오'라는 입장도 공유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의 필수요소인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憤心) 대의정(大疑情)과 위빠사나의 오근/오력(信, 精進, 念, 定, 慧)은 동일하다. 대신심, 대분심, 대위정은 자성청정심과 선지식을 신뢰하는 심리현상(信), 분발하는 심리현상(精進), 화두를 챙기는 심리현상(念), 고요함(定), 분별경계를 뛰어넘는 심리현상(慧) 등에 해당한다. 또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선정보다 지혜를 중시한다.

간화선에서는 견성의 도구로 화두참구를 들고 있고, 위빠사나에서는 해탈의 방법으로 법(法)을 통찰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화두는 고정된 대상이고, 법은 변화하는 대상이란 것도 차이점이다. 화두참구는 직관에 근거하고 위빠사나는 분석에 바탕한다. 견성을 주창하는 간화선은 교학을 무시하고, 대신에 선지식의 인가를 중시한다. 한편 해탈을 중시하는 위빠사나는 아비담마(논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지를 중시하며, 인가 대신에 법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한다.

간화선=법무아, 위빠사나=인무아

논평 인경스님(선상담연구원장)



철학적인 입장에서 위빠사나가 초기불교의 법(法) 중심이라면, 간화선은 대승불교의 성품(性品), 불성(佛性)사상에 기초한다. 양자 모두 무아설(無我說)에 기초하는 것은 같지만 위빠사나가 인무아(人無我)의 입장에 놓여있다면, 간화선은 법무아(法無我)적인 입장을 고수한 점에서 다르다.

무상, 고, 무아라는 위빠사나의 중심된 아비담마의 개념을 대승에서는 방편 가운데 하나로 보지, 그것을 결코 궁극적인 실재라고 보지 않는다. 즉 초기불교의 무상, 고, 무아는 또 다른 집착이고 관념이며 희론일 뿐이다. 그것들은 연기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서 법무아에 대한 통찰이 없는 소승의 반야이다.

위빠사나와 간화선에서 반야(般若)라는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아비담마에서 반야는 사물의 본성으로서 법을 통찰하는 것이라면, 간화선의 반야는 일체의 분별을 초탈한 연기공의 이법을 체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화선은 개별적인 법에 대한 분석이나, 법체계에 대한 순차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은 개별적인 '자기의 성품(自性)'이 결여된 연기일 뿐이다. 이 연기법은 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시거나 나오지 않거나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법계이다. 모든 법은 하나로 귀결되며, 각각의 법은 모두 '한 맛(一味相)'으로서, 그 자체로 공성(空性)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위빠사나가 대상을 인정하고 그것과 하나됨을 추구함으로써 번뇌를 극복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간화선은 대상관계를 배제하고 견성을 강조한 점, 번뇌 자체를 부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강의 쟁점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선지식 부재와 인가 문제. 각묵 스님은 "간화선의 권위의 원천인 '인가'(점검)해줄 스승이 없는 점이 한국 간화선의 슬픈 현실"이라며 "이는 인가의 법맥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으로 이제 간화선의 권위를 인가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 수좌들은 "한국 불교사에 존재했던 큰스님들의 깨침을 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금강경 결제에 이어 각묵 스님이 제기한 간화선의 힌두화 문제도 논쟁을 야기했다. 각묵 스님은 "한국 간화선은 불성, 여래장, 참나 등 힌두이즘적 개념인 아트만(자아)이라는 대상을 세우고 그것과 하나되는 수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소수 수좌들의 잘못된 간화선 참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간화선이 힌두이즘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간화선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행정도를 세세하게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논강의 사회자인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은 "매회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정진하는 구도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결된 수행력을 보여준다"며 "교육체계 확립 등 방향성만 잡아주면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논강의 막바지는 간화선의 사회적 회향으로 귀결됐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비폭력 평화운동의 종가인 불교가 세계적인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현실을 꼬집고, "구도심과 보현행은 일치돼야 한다며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산 스님은 한국불교도 서양의 불교처럼 수행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화선 최상승수행법" 공감하나 교육체계·수행풍토에 개선여지
"간화선은 힌두이즘적" 받아들일수 없어

실상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 14기 수강생 모집 안내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빳싸나(참선)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 닦는 수행입니다. 불교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근본 불교학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한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행복은 사과처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과 마음 상태가 결정합니다.

21세기는 마음이 화두입니다.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상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 전부를 관리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정보도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마음을 평화롭고 청정하게 가꾸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자유가 행복입니다.

인식 대상에 집착하고 구속되는 것만큼 불만족은 증가하고 고통은 커집니다.그러나 인식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행복 또한 커집니다.

선 수행 후 교학 및 실천

먼저 수행한 (위빳싸나 · 참선) 뒤에 교학을 익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이래 대승불교에까지 계승된 불교 교육 철학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오히려 선 교학 후 수행이라는 부파 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깨침의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이 순서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밭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도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이를 구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양성으로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승 · 소승 · 밀교 등에 대해서 말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승 · 소승 · 밀교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정통 수행법에 기초해 실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장 소	요일 및 시간
서울 지혜선원 (보라매공원)	화요일(오후반) 2시 ~ 4시 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전 지혜선원 (목원동)	수요일(오후반) 2시 ~ 4시 수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구 지혜선원 (명덕 로타리)	목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목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부산 다보선원 (근본도량)	금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금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토요일(오후반) 4시 ~ 6시

2003년 3월 16일부터 ~ 6월 22일까지. 주1회 강의 및 수행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참선)를 배우고 싶은 사람, 불교를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참선)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구조 · 사유체계 · 철학적 관점

빅쿠 붇다빠라
다보선원과 근본불교학교에서 위빳싸나(참선)을 지도함

학교본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055)331-9118~9 / 011)9557-8730
www.bodh.net
E-mail : Buddhagaya@hotmail.com
대 구 053)255-0442

※서울 · 대전 · 부산은 학교본부로 직접 하세요.

근 본 불 교 학 교

사랑의 손짓으로 법향 전해요

바라밀현장

동국대 손짓사랑회의
'청각장애인 자활돕기'

"꽃 사세요, 꽃 사세요."

2월 21일 오전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이날 학교앞에는 '목소리가 아닌 손짓으로' 조용하게 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꽃장사들은 광림사 연희복지원 청각장애인 불자들과 동국대 손짓사랑회(회장 안문남) 회원들. 다같은 꽃이지만 이들이 파는 꽃에는 남모를 뜻이 담겨있었다. 광림사 50여 청각장애인 불자들이 직접 만든 이 꽃은 그들의 자활을 돕기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광림사에서 장애인에게 꽃꽂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보영(48) 보살과 함께 다리가 불편함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안영혜(52) 보살, 청각장애인 불자인 허동섭(40)-정인순(39) 부부와 자녀 등 광림사 식구들은 연신 수화로 꽃을 사달라고 외친다. 안문남(22, 컴퓨터공학과) 회장을 비롯해 최형채(21, 경영학과), 이석찬(22, 컴퓨터공학과) 군 등 동국대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바람잡이 역할과 짐꾼 노릇을 하러 나왔다. 이날 자활기금 마련 꽃팔기 행사는 숭실대에서도 동시에 펼쳐졌으며, 손짓사랑회 회원들이 두 곳에 나눠서 지원활동을 벌였다.

90년 동국대 유일의 장애인 봉사 동아리로 결성된 손짓사랑회는 5년뒤, 손짓사랑회 지도법사인 해성 스님(광림사 주지)이 95년 발간한 <불교 용어 수화집>으로 수화법회를 열면서 불교 신행단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금도 매년 100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들어오지만, 이중 40% 정도는 이웃 종교인이나 무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짓사랑회가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신행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불교 수화를 배우면서 부터다.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자체 교육 과정을 통해 불교 수화로 반야심경, 삼귀의, 사홍서원, 찬불가 등과 같이 법회 진행에 필요한 불교 수화를 익히는 것은 물론 <부처님 전생담>, <금강경>, <화엄경> 등을 수화로 옮기는 연습도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하심을 배우고 분별심도 떨쳐내며 신심을 기르고 있다.

또 1~2년간의 불교수화 교육을 진행하며 매주 광림사 연화복지원을 방문, 수화 봉사로 청각장애인의 법회 진행을 돕다보면 회원 대부분이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

'손짓사랑'이라는 말만큼이나 아름다운 청년 동아리 손짓사랑회의 활동은 광림사의 청각장애인 돕기에 그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초중고 종합학교인 서울 농학교를 비롯해 일반학교 수화특활 강사로도 활동하고, 청각장애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동참하며 신행현장을 넓히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제13회(2001년) 아산사회복지대상에서 청년봉사상을 받기도 한 손짓사랑회는 청각장애인 불자들의 연등축제와 수화연극, 하루찻집 등 행사지원과 무료과외공부, 컴퓨터 교육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13년 전통의 손짓사랑회의 최대 사업은 수화기초반을 여는 것. 3개월 과정의 기초반을 마치면 수료증이 주어지고, 수료식 때 수화공연을 한다. 자체적인 수화교육을 통해 불교수화 보급에 앞장서면서 불자 수화통역사 등의 배출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손짓사랑회는 매년 수화페스티발을 개최해 일반인들의 수화사랑을 유도한다. 기초수화강좌는 소정의 교재비를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림사=(02)2202-58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



◇손짓사랑회 회원들과 광림사 청각장애인들이 2월21일 중앙대 졸업식에서 '자활기금마련 꽃팔기'에 나섰다.

화엄경 등 수화로 옮겨 전법

매주 광림사 법회 진행도 도와



손짓사랑회 안문남 회장

"편견없이 함께 나누는 삶"

"장애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편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相)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들들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거예요."

손짓사랑회 안문남 회장은 "타 종교 단체와 비교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적다"고 말한다. 몇 개 안되는 장애인 단체에도 불구하고 관심이나 후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 특히 홍익대나 강남대 등 일반대에서 수화를 교양강좌로 개설하고 있지만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아직 관련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교양강좌로 불교 수화를 개설해 줄 것을 학교에 공식 요청해 수화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관련 자료 수집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는 안회장은 "청각장애인들과 수화로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인생관과 불교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心 마음비추기

참·거짓 분별말고 진리 얻어야

금강경 사구게와 함께 늘 잊지 않고 암송하는 선사의 게송 하나가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거봉이라 할 수 있는 경허 선사의 게송이다. 내가 많은 게송 가운데 특히 이 게송을 좋아하는 까닭은 갖가지 치레와 뒤엉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고 / 참이다 거짓이다 모두가 헛것일세 / 낙엽지고 안개 개인 맑은 가을날 / 언제나 푸르른 저 산을 보게

참됨과 거짓은 서로 모순된 가치이다. 인간은 이 두가지 틀 속에서 언제나 방황한다.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에게 있어 이는 더욱 큰 문제이다.

수행은 거짓된 중생의 세계를 버리고 참된 부처의 세계를 찾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야 할 참됨이라는 것 즉, 진리라는 것 역시도 본래부터 허망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간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었을 뿐 마음 밖에 따로이 버리고 좇아가야 할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는 아주 없는 것일까?

경허 선사는 낙엽지고 안개 개인 맑은 가을날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됨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선 진실의 세계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낙엽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온갖 관념과 가치들을 비유한 것이고 안개는 미혹함과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맑은 가을날이란 이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고 난 참마음자리를 비유한 것으로 부처의 세계란 마음을 떠난 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됨을 좇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낙엽과 안개를 없앨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푸르른 저 산을 보게" 는 참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이 세상은 그대로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이 완성된 진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낙엽진 가을 산이 어찌 항상 푸를 수 있으랴만 경허 선사는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변화하지 않는 세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금강경 속의 범소유상 / 개시허망 / 약견제상비상 / 즉견여래 라는 게송과 경허선사의 이 게송을 서로 대비해 보면 그 뜻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도 이 게송을 항상 수지하면 어떨까 싶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페마 최된(미국 샴발라센터 원장) (上)

금강승 수행 성취한 최초 미국인

미국 문화 깊숙이 스며들어 대중의 마음에 와닿는 설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샴발라센터 원장 페마 최된(Pema Chodron) 스님. 페마는 '연꽃'이라는 뜻이고, 최된은 '다르마의 햇불'이란 의미다. 따스한 성품을 지닌 스님은 횃불보다는 은은한 화롯불 같은 분위기로 서구사회에 법음을 전하고 있다.

1936년 뉴욕에서 태어나 UC 버클리를 졸업한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 몇 안되는 비구니 스님이자 금강승 수행을 성취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7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 티베트 불교를 전파한 은사 트룽파 린포체를 만났고, 1974년 37세에 칼마파 린포체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다. 3년후 칼마파 린포체는 비구니계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비구니계맥이 끊어진 까닭에 페마 스님은, 도반인 프레다 베디의 조언을 받아들여 1981년 홍콩에서 집단수계식을 통해 비구니계를 받았다.

스승인 트룽파 린포체로부터 북아메리카지역 사원 설립의 사명을 받은 페마 스님은 모금활동으로 83년 캐나다 노바 스코샤에 감포 사원을 세운 후 총무를 맡았다. 그러나 아메리카대륙 최초의 티베트 불교 사원임에도 감포 사원은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티베트 사원처럼 생기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에 필요한 것은 서구식 사원이지 티브트식 사원이 아니라고 트룽파 린포체가 처음부터 명시했기 때문이다.

28 세가 될 때까지 미국 중상류층 가정의 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다가 변호사인 남편과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었던 주부 최된. 버클리에 살면서 대학에 복학했다가 60년대 미국을 휩쓸던 히피문화에 젖어들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의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혼과 결혼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연인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출가의 결정을 가족들이 쉽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친정 부모는 황당해하며 반대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다. 히피문화가 성행하던 60년대에 10대가 된 자녀들의 눈에, 엄마의 행동은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이었다.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엄마를 페마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페마 스님은 미국 불교가 모든 전통을 다 받아들여 그 중 필요한 것을 골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전통불교의 범위를 확장해 재가자와 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삶을 단순화 시키는 승가의 전통적인 면모와 더불어, 은사 트룽파 린포체로부터 물려받은 대중을 사로잡는 설법이란 방편을 갖추고 있다.

스님의 저서로는 <도피하지 않는 지혜(Wisdom of No Escape)>,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Start Where Yoy Are)> <모든 것이 무너질 때(When Things Fall Apart)> <당신을 두렵게 하는 곳(The Places That Scare You)>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랑받은 이 저서들은 마치 선배의 자상한 목소리로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쉽게 풀어주는 듯한 신뢰감을 준다고 한다.

"짧고도 긴 인생의 여정에서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진정한 보리심과 접할 수 있었다"는 페마 스님. 스님은 인간이 겪는 무수한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직시해, 삶의 다각적인 면을 생생하고도 섬세하게 풀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속)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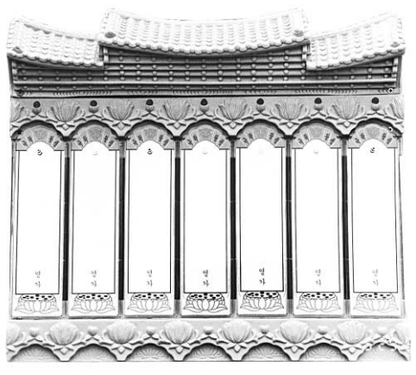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 조화 이룬 가르침" 평가

인간 변화 직시, 섬세하게 풀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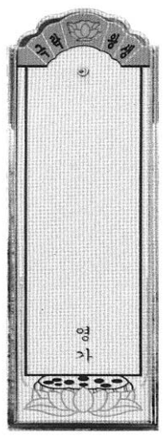
◇페마 최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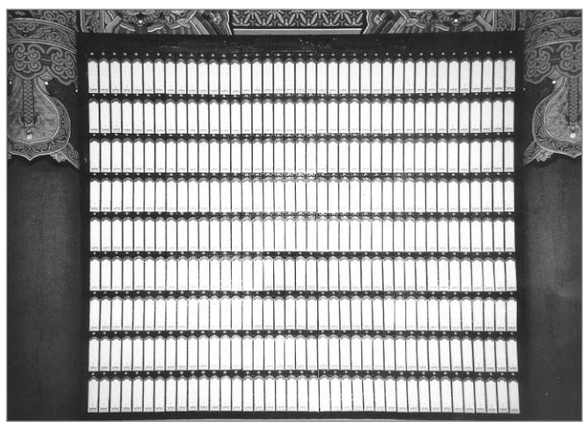
신개발 영가위패단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 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7. 영구위패 및 우란 분절 또는 각종 행사에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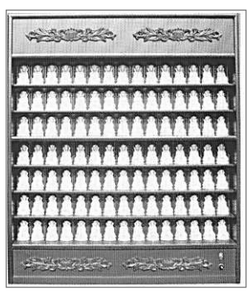




孝 · 정성 · 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옥 불



천연 옥가루를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 류 - 석가, 관세음, 지장
- 크 기 - 5인치, 7인치, 9인치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歸依三寶 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의 길을 가시는 스님과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들께, 그 동안의 수행에 祝願 올립니다.
저희 正心院에서는 거기에 보답하고자 첨단의 기술과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영가단 영가위패와 인등, 그리고 천연옥으로 만든 옥불상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수많은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기여하는 正心院. 다시 부를 수 있는 正心院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正心院 임직원 일동 합장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724-0455 핸드폰 011-724-0455



삼매와 부처님 경계에 들어옴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의 사자빈신삼매에 들게 하기 위해서 놓는 보조삼세법계문(普照三世法界門)이라고 하는 큰 광명에 의해 나타난 부처님 경계를 본 보살대중은 부처님의 깊은 삼매와 큰 신통력을 볼 수 있었다. 이 보살들도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알맞은 불법을 보이며 끊임없이 교화하였다. 그들은 과거에 부처님들이 계신 데서 선근을 심었거나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교화하여 성숙하게 한 이들이기 때문에 여래의 부사의한 깊은 삼매와 온 법계 허공계의 대 신통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입법계품에서는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신통 변화의 바다의 방편문을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내용으로 설하고 있다. ① 법신에 들어감 ② 육신에 들어감 ③ 옛적에 성취한 행에 들어감 ④ 원만한 여러 바라밀다에 들어감 ⑤ 장엄하고 청정한 행에 들어감 ⑥ 보살의 지위에 들어감 ⑦ 정각을 이루는 힘에 들어감 ⑧ 부처님이 머무는 삼매와 차별이 없는 큰 신통변화의 바다에 들어감 ⑨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혜에 들어감 ⑩ 부처님의 걸림 없는 변재(辯才) 바다에 들어감

이러한 열 가지의 부처님 신통변화의 바다의 방편문에 보살들은 갖가지의 이해 · 도(道) · 문(門) · 들어감 · 이치 · 지혜 · 방편 · 삼매 등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입법계품에서는 특히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 · 여래의 경계에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통일되는 경지

지혜에 의해 주체적으로 실증 가능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삼매 · 모든 부처님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 등 백 가지 삼매를 설하면서, "보살이 이와 같은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삼매로써 비로자나여래의 생각생각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한 삼매의 신통변화 바다에 들어간다" 설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것은 분명히 보살의 여러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까닭으로 보살이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의 경계가 지적(知的)인 분별을 초월한,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경계이므로 부처님의 교설로써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삼매로써 설하여졌다. 사자빈신삼매에 의해 드러난 부처님 세계는 만물이 무한의 상관 관계로써 끊임없이 아름다운 상생(相生)의 생명세계를 펼치는 영원의 세계였다. 일체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끊임없이 신통변화를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여 언제나 자비로운 부처님의 커다란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였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普賢)의 법계로서, 끊임없이 보현행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이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이러한 대자비의 생명활동 세계를 자기화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삼매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어떠한 객관의 세계가 일치되게 하여, 주관과 객관이 그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경계를 체득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삼매를 내세우는 것은 부처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실증되는 경계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 주체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삼매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명의 세계인 부처님 경계를 스스로 직접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내면적인 사고방식이다.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부처님 경계를 직관(直觀)하고, 자기를 잊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몰입하는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체득하여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십행품(十行品)에서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이 없는 행을 설하는 가운데, "보살은 삼매에 들어 거룩한 법에 머문다"고 하며, 여래현상품에서는 혜등보명(慧燈普明)보살이 "온 법계 안 모든 여래는 온갖 모습을 여의었으나/ 이러한 법을 알기만 하면 세상의 바른 길잡이를 보게 되리라/ 모든 보살의 삼매 중에는 지혜의 빛이 온통 밝아서/ 온갖 부처님의 자재한 근본 성품을 능히 알리라" 설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행을 꽃피워서 부처님을 나타내고, 보살의 만행(萬行)을 닦아서 법계를 장엄한다고 하는 의미다. 이것은 원래 법신인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스스로 체득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화엄삼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엄삼매는 그 세력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육바라밀과 같은 보살행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방편과 신통 변화를 펼쳐서 자유자재하게 여러 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삼매에 머무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해탈을 체현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하나의 장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⑤

'원돈 신해문'의 의미

보조지눌은 화엄의 법계연기설을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이라고 지칭한다. 원(圓)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다. 사물은 부정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양자를 모두를 배척하지 않고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기(緣起)에는 번뇌를 발생시키는 물든 연기와 성인의 단계로 나아가는 깨끗한 연기가 있다. 양자는 서로 명백하게 구별되지만, 연기 자체를 터득하게 되면, 양자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 보살의 실천이 구현된다.

돈(頓)이란 '점차가 아니라, 단박에 깨닫는다'는 의미다. 번뇌를 일으키는 물든 연기를 보면, 곧장 번뇌로부터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번뇌와 해탈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은 바로 번뇌에 의지하고, 깨끗한 연기에서도 처음 발심을 할 때가 그대로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원돈신해문이란 풀이하면, 화엄이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과 점차적 단계를 존중하면서도 즉각적인 돈오가 강조되는 성품에 대한 믿음(信)과 이해(解)를 강조한 교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엄교설에 대한 보조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돈보다 신해에 있다. 원돈(圓頓)이 심성에 관한 관점을 보여준다면, 신해(信解)는 수행에 관한 측면을 드러낸다.

듣고 이해하고 연습에 의해 체득

초기불교 이래로 일반적으로 불교수행론은 문사수(聞思修)로 알려져 있다. 문(聞)이란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일을 말한다. 중생은 무시이래 업(業)의 장애가 깊기 때문에 자꾸 경전과 성인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물든 연기가 깨끗한 연기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스스로 그 의미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의 자산이 될 수 없고, 끝내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교설을 스스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신해란 바로 교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기만 하고, 그것을 몸으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의 삶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듣고,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연습(修)에 의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조는 원돈의 가르침을 화엄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보조가 화엄의 가르침을 원돈신해문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실천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함축한 용어가 된다. 보조는 선교의 모든 가르침을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세 가지로 구별한다. 성적등지문은 지혜(惺)와 고요함(寂)이 둘이 아닌 함께 가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돈오의 가르침도 배제하지 않지만, 점차적인 차제가 강조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원돈신해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심성에 대한 이론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돈오의 가르침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믿음과 이해의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보조는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간화선에 의한 경절(徑截)의 가르침이다. 경절이란 가로 질러간다는 뜻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곧장 사물의 본질에 뛰어든다는 의미이다. 화엄에서도 돈오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흔적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잠재적이고 내면의 깊은 심층에 놓인 개념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는 역시 간화선이 요청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의 간화선에서는 화엄의 가르침,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심성에 관한 측면은 화엄의 법계연기설을 채택한다. 다만 법계연기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바로 화두선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조의 주장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조작된 생명

1996년 영국 스코틀랜드 로스린 연구소의 윌머트 박사팀이 성장한 포유동물인 6세되 양(羊)의 체세포를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제를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성장한 암컷 양의 유선(乳腺)에서 체세포를 분리하여 이를 배양액에서 세포배양을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암컷 양에서 핵(核)만을 제거시킨 난자를 배양한다. 그 다음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고 핵의 성분과 난자의 성분이 하나의 세포로 잘 융합되도록 전기자극을 가한다. 4~5일이 지나면 배자(胚子)가 형성되는데 이 배자를 다른 양의 자궁, 즉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킨다. 이렇게 하여 일정한 임신기간이 지난 후 태어난 것이 얼마전 죽은 '돌리'이다.

양 복제 성공이후 많은 종류의 포유동물의 복제가 가능했고, 드디어 2002년 12월 27일 인간의 복제가 성공했다는 외신을 접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죽은 사람도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그래서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동물복제를 포함한 인간복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입장은 무엇일까.

부처님법에 의하면 생명은 생식세포든 체세포든 관계없이 세포와 의식체의 합침이 가능하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생식세포와 의식체가 합치는 경우 육체는 양쪽 부모를 닮게 되고, 체세포와 의식체가 합치는 경우 육체는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가 가능하나 그 육체속에 깃든 의식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를 복제한 경우, 복제된 젖소는 모양은 꼭같지만 기능 면에서는 반드시 젖을 많이 생산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굳이 부처님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생명체 '생산품'으로 전락되선 안돼

자연질서 파괴등 여러 부작용 내포

첫째, 체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이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과정 등에서 잘못하여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 둘째,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성교에 의해 출산해야 하며, 또 두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질서인데 이를 파괴하는 행위다. 셋째, 복제인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따라서 상품 혹은 대용품으로 전락될 수 있다. 넷째, 인간복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모두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중에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복제인간과 같은 단위생식(單性生殖)은 부자간의 정체성과 남녀간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운명의 아킬레스건 사주팔자!
육임으로 극복하세요!!!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본 책은 토정비결처럼 쉬운 활용서 입니다. 가격:2,500,000원 부록 : 비디오 테이프

★오행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 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문 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일로 왔는지, 전화했는지
▶무슨 비밀한 사정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과거사인지, 미래에 일어 날 일인지, 언제 벌어질 일인지
▶지금 무슨 귀신에게서 해꼬지를 당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지
▶귀신의 해꼬지로 생긴 병인지, 아닌지
▶부동산이 팔릴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에나 팔릴 것인지
▶선거에 당선 될 것인지, 아닌지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이면 빌릴 수 있는지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질 것인지
▶가출한 사람이 집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언제 올 것인지
▶도둑 맞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을 것인지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 것인지, 채용하지 않는 것인 좋은지
▶현재 팔고자 하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올해는 어떤 농사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언제 비가 올 것인지, 비가 그칠 것인지
▶현재 누구의 산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이 될 것인지, 언제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사람인지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二男一女인지, 一男二女인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고칠 수 없는 병인지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지, 없을 것인지
▶각종 시험, 선거에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 것인지
▶결혼이 성사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언제쯤이면 결혼을 할 것인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은 것인지
▶취직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된다면 언제쯤이면 되는 것인지
▶각종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이 산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올해 농사는 무엇을 심는 것이 좋을 것인지

모든 인간사는 이 책만 보면 역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토정비결처럼 쉽게 보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백발백중 합니다.

본 책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이신 철학박사 고복자 효사 선생께서 쓰신 역작으로 10년이상 사주공부하신 분들보다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이 책을 옆에 놓고 토정비결처럼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운세를 보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서 쓰신 저서로서 본 책이 발간된 이후 3년에 걸쳐 그 정확도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걱정하지 마시고, 각 일(各日), 각 시간(各時間)마다 송곳처럼 꽂아놓은 내용을 나름대로 다듬어 더욱 요령있게 말씀하실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문의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

현존하는 적중율 최고수준의 역학,
육임을 아시나요?
역학공부 긴 방황의 끝! 육임이 책임짐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선생 직강!
제5기 육임강의를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개강 합니다.- 등록마감 : 2월 28일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
강북구청 옆 건물 일심빌딩 402호 육임학당 효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4층)
▶교재 : 저서『효사육임강의록』 ★ 기타 문의사항 : (02) 998-8683

효사 선생 육임『인터넷강의』시작안내
■ 인터넷강의 안내 http://www.taotemple.net
매기 12월, 3월, 6월, 9월 첫째 금요일 시작 3개월

▶강의비용 : 1,500,000원
▶교 재 : 저서『효사육임강의록』무료증정
▶수강방법 : 100 ~ 120분씩 28회 각회 5번, 6개월 수강
▶질의응답 : FAX(02-908-8683)
▶특 전 :『공익법인』학국육임학회 정회원 영입
▶강의일시 : 2003년 1월부터
▶등록방법 : 입금후 ID 교부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육임 3개월 하면 사주(四柱) 10년 보다 잘 맞춥니다.
육임은 왜 백발백중의 적중력을 갖는가?
전문가용 전화운세 상담용으로 최적 - ★백발백중★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가격:2,500,000원 부록:비디오 테입
전화벨소리만 듣고도 물지않고 종요사안에 대해서 백발백중으로 적중합니다.
육임신수비결 가격:250,000원 全753페이지
이제는 육임신수비결 1권이면 1년 신수, 평생운 모두 해결 됩니다.
육임강의록 가격:3000,000원 全1663페이지
육임강의록 1권으로 3개월만 공부하시면 사주공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가격:900,000원 全28개
「육일학당효사숙」 제1기 강의가 생생하게 살아서 담겨 있는 육임의 이정표.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CD 가격:2,000,000원 全12개
전화상담 시간, 방문상담 시간만 선택하면 순차적으로 모두 적중시킵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가격:1,500,000원 총112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신 분,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육임인터넷 강의.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9화)

"어린 수행자라도 깔보지 말라"

〈출전 : 잡아함경 제 46: 2-334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발 밑을 보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선재는 정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다. 한 발 한 발 떼고 사는 일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사고도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발 밑을 살펴보고 살아야 할 지경이다. 선재는 '조고각하'라는 말이 떠올랐다. 큰절 승방의 댓돌 위에서 우리를 다그치는 말이다. "발 밑을 보라!" 신발을 제대로 벗어놓았는지 살피라는 말은 곧 스스로를 반성하라는 경책으로 바뀌어 들린다. "정신차려라!"

선재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떠오른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건과 맞아떨어지는지. 그가 불을 지른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혼자 죽기 싫어서란다. 뇌졸증을 앓고 나서 몸이 불편해지자 온갖 미움과 원망이 바깥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픈 탓을 왜 남에게 모두 돌리는가? 자기 발 밑을 보지 않고 남의 발 밑만 쳐다보고는 울분을 쌓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한 수좌가 각명 선사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네 발 밑을 보라"고 대답했다. 바로 지금 네가 진리 자체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진리는 멀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이다. <무문관>의 이야기다. <벽암록>에서도 '발 밑에서 대광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다.

한없는 진리의 광명이 퍼져나와야 할 그 발 밑을 절통한 원한의 불길로 채워 놓았으니 그가 무척 안타깝다. 자신을 바로 알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기를 바로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성철스님의 당부가 새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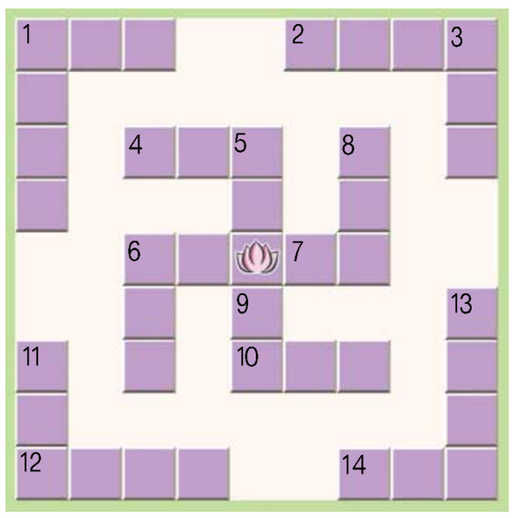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1982년 부처님오신날법어〉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불교의식 가운데 하나. 법고를 두드리며 추는 춤. 2. 불법의 수호신. 신들의 왕이기에 붙은 말. 4.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 6. 어리석고 둔함. 7.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석종을 뜻함. 10. 서방극락 안락정토와 같은말. 고통과 괴로움은 없고 오직 편안한 쾌락만이 있는 세계. 12. <승만경>의 중심인물. 인도 사위국 파사익왕의 딸. 14. 자비로운 마음과 위대한 동정심. 자비심과 유사.

〈410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지난 2월 24일 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스님. 수덕사 주지. 3. 경전의 결집이 처음 이루어진 곳(제1결집 또는 오백결집). 인도 마갈타국의 고대 수도. 5. 물질적인 재물을 타인에게 배푸는 것. 6. 세속의 여성 신도를 뜻함. 남자신도는 우바새라 함. 8. 아미타불이 내영인접(來迎引接)하는 동적(動的)인 그림. 9. 지혜의 눈.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이라는 뜻. 11. 어린이가 출가하면 흔히들 부르는 말. 13.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때를 뜻함. 대표적인 예는 부처님이 연꽃을 들자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서암스님 법어집에서

"선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자기가 배부르지, 내가 배부르게 옆에 사람이 대신해서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공부도 자기가 해서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법어집1, 38쪽)

"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터 닦을 선(禪)'자입니다. 집을 지어도 터를 먼저 닦아야지, 터를 안 닦고 집을 지으면 기울어집니다. 어디 가다가 잠시 앉으려 해도 터는 닦아야 하는 것이지요. 삐죽한 돌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 돌에 앉으면 엉덩이가 찔리고 가시에 앉으면 가시에 찔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터를 닦는 다는 그 말이 참선입니다."(법어집2, 158쪽)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잠을 깨지 않는 한, 옆에서 아무리 해도 꿈꾸는 사람의 꿈 세계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안에서 둘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똑같은 꿈이 꾸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그 사람 꿈에서도 내가 같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 절대 독단적인 세계입니다."(법어집1, 102쪽)

"깊이 들어가면 일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서 한편으로 공부하는 생각을 낸다면 벌써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본시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주인인데, '내가 일을 한다'하고 생각하면 벌써 주인에서 한 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일과 공부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반쪼가리뿐입니다. 주인 된 자세란 그 둘을 항시 하나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일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진짜 인생이 구축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법어집2, 253쪽)

"우리 같이 못난 중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쌀 가마니며 몇 달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부처님은 어찌 되어서 성불하고도 돌아다니면서 얻어 먹었는가? 부처님께서 우리보다 복력이 없거나 공양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불교의 참된 뜻이 있습니다."(법어집1, 288쪽)

온몸에 스미는 깨달음의 향기

'어디에도 걸림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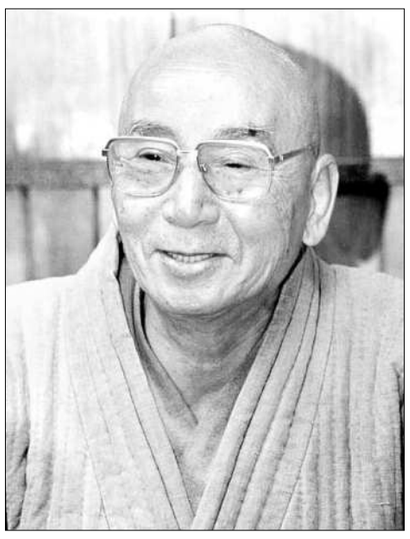
서암스님 지음

정토출판 / 2만원



서암 큰 스님 스님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서암 스님과 함께 있다보면 느끼게 되는 따뜻함과 인자함, 자비로운 그 느낌. 수년 전 서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서암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스님만의 향기 때문이다.

서암 스님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승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힌다. 1935년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신계사, 대승사, 해인사, 망월사 등에서 생식을 하며 치열하게 수행을 해 왔다. 스님은, 79년 봉암사 조실로 추대된 후 20여년간 수많은 수행납자들을 지도해 왔다. 94년 조계종 종정에 추대



되었으나, 종단사태 발생 후 종정을 그만두고 바랑하나 짊어지고 운수 행각을 떠났다. 서암 스님은 2001년 봉암사 대중들의 간청에 의해 봉암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암 스님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모자라겠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접할 수 있는 법어집 두 권이 나왔다.

'마음 다스리는 법' 등 담아
월간 '정토'에 실렸던 법어 정리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집 <어디에도 걸림 없이(법어집1)>와 대담집 <자기 부처를 찾아(법어집2)>이다.

이 책은 88년부터 15년간 월간 정토에 실렸던 서암 스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분류 정리한 것이다. 참선 입문에서부터 생활선

'자기부처를 찾아'

서암스님 지음

정토출판 / 2만원



의 세계, 선의 진수, 인간성 회귀의 선, 정토세상 만들기 등에 대한 법문과 마음 다스리는 법, 참선 수행의 길잡이, 깨달음의 세계, 세상 속에서 사는 법 등에 대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서암 스님은 이러한 언어로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진실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분이다. 서암 스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법문이기 때문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책머리에 쓴 '깨우침, 서암 큰 스님과의 인연'에 밝힌 서암 스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대로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짧은 글·그림 통한 삶의 지혜

'배고프면 밥 먹는다'

글·그림 이규경

종이 거울 / 9천원



어떤 이는 편견에
잡혀 있고
어떤 이는 망상에
잡혀 있네.
어떤 이는 칭찬에
끌려 다니고
어떤 이는 욕심에
끌려 다니네.
그러면서도
자유인이라고 말하네.
그것들에 잡혀 있으면서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뛰어다닌다고
자유인이라고 말하네.('자유인')

우리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짧은 글과 그림으로 가득한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는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라고 이야기 한다.

저자인 이규경 씨는 그림을 전공하고, 잡지사에서 일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다. 온 가족이 한번쯤 돌려봐도 좋을 만한 이 책은, 무심코 지나왔던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명상하게 한다.

시어로 맛보는 아름다운 산사

'산시 기행'

박진환 지음

조선문학사 / 9천원



산과 절이
한 이름인 것은
산이 곧 절이요
절이 곧 산이 됨이니
산은 곧 부처요
부처 또한 산이 됨이다.
('용봉사' 중에서)

<산시 기행>은 박진환 씨가 내놓은 열아홉 번째 시집.

박 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이래, <귀로> <어둠고> <돌아보고 살기>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현재 월간 <조선문학> 발행인 겸 주간이다. 이 시집은 수년전부터 북한산 도봉산을 비롯한 서울 인근의 산들을 산행하며 그때마다 만났던 고찰과 명찰, 이름없는 작은 산사에 대한 느낌들을 시로 옮긴 것이다. 박씨는 이 시집에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한편의 그림을 그리듯 사찰의 구석구석을 소묘한다.

새로나온 책

'실천보현행원'

이종린 지음

불광출판사 / 5천원



중생공양이 부처님 공양이며, 중생 공양이 어느 수행 못지않은 살아있는 현대인의 활구 참선이라는 생각아래 중생 공양의 원을 세우고 세간 속에서 수행중인 홍익소아과 원장 이종린씨가 쓴 것이다. 행원에 대한 이론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행원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이 밝혀놓은 보현행원 수행법 실천을 통해 삶의 터가 바로 수행처가 되고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

'옛날 옛날에'

이강렬 지음

예니출판사 / 1만원



<옛날 옛날에>는 70·80년대 우리나라 소극장 운동의 메카였던 극단 '창고극장'의 대표로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작을 기획 공연했던 극작가 이강렬 씨의 창작희곡집이다.

이 책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이 씨의 작품 가운데 단막극을 중심으로 '옛날 옛날에' '애기동이' '어머니와 아들' '어허둥둥 세잠판' '쉰살의 쉼표'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분단 현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을 살핀 7편의 희곡이 실려 있다. 일본어 번역판으로 일본에서 동시 출간됐다.

'정좌수도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번역

씨앗을 뿌리는 사람 / 1만4천5백원



<정좌수도강의>는 13억 중국인을 고전 앞에 무릎 꿇게 한 남회근 선생이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정좌(正坐)수련자를 직접 만나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쓴 책이다.

남회근은 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고, 20대에 불교에 귀의하여 득도했다. 사천성 아미산 대평사에서 3년간 폐관하여 두문불출한 채 수도하였고, 그 이후엔 티베트까지 가서 밀교를 깊이 연구했다. 이 책에는 그가 연구하고 수행한 유교·불교·도교의 수행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동생의 비밀상자'

이혜경 글 / 권인수 그림

가교출판 / 8천원



<동생의 비밀상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와 그 친구를 바라보는 우리 어린이들의 따뜻한 시선을 이야기로 옮긴 것이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모두 나 같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텔레비전 방송에서나 들었던 밥을 굶는 친구가 바로 내 옆의 친구이며,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바로 내 친구라는 걸 일깨워 준다. 함께 고민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작가 이혜경 씨가 글을 쓰고, 화가 권인수 씨가 그림을 그렸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2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4	지허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영사
5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6	얼굴	이지엽 외	고요아침
7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김재경	마당넓은집
9	아비담마길라잡이	대림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지구촌의 살아있는 선지식 22인을 찾아서













김재경 지음 | 신국판 | 288쪽 |

불법의 큰길을 찾고 깨달음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살아있는 남·북방 불교의 고승을 최초로 한자리에 모셨으며,
❁ 세계 4대 생불인 달라이 라마, 숭산, 틱낫한, 마하 고사난다 스님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남·북방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발전을 기대하며,

틱낫한 스님 3월에, 고사난다 스님 7월에 방한!!

마당넓은집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21-44 인의빌딩 205호 / Tel : 02-833-6903, 6922 / Fax : 02-833-6925 / E-mail : madang999@hanmail.net



‘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제학 글 / 손재식 사진

도피안사 / 1만2천원

문학으로 승화된 백두대간 종주기

국토 등줄기 어루만지며 명상·깨달음 미려한 문체·책 갈피마다 풍광 함께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도상거리 약 1,625km)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바로 백두대간이다. 크고 작은 산들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그 이상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은 사람을 기른다>는 백두대간이 우리 삶의 구체적 터전인 산과 물의 관계가 빚어낸 우리 땅의 실체에 대한 육친적 발견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 취재1부장이자 동화작가인 윤제학 씨와 사진가 손재식 씨가 1999년 5월 31일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2001년 9월 10일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지나 금강산의 남쪽 봉우리인 향로봉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여에 걸친 종주의 결과물이다. 한 번에 내달리면 한 달 남짓이면 되는데도 아주 느리게, 계절의 흐름까지 피우면서 종주를 했다. 느린 산행을 통해 산과 교감을 나누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낸다.

“하늘에 떠 있는 섬 하나. 천왕봉! 하늘을 비집고 선 것도 아니고 하늘이 그만큼 물러나 있지도 않았다. 마치 깍지 낀 손가락처럼,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본문 ‘지리산 편’에서)

그동안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정보·안내서, 체험기, 생태보고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었다. 이 책도 백두대간 종주기라는 데는 기존의 책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백두대간을 인식하고 서술하는 데는 앞선 책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의 시나리오 작가 심산은 이 책의 표지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제학의 글에서 종주산행을 위한 정보만을 찾는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그의 글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어루만지면서 시종일관 명상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손재식의 사진에서 풍광의 아름다움만을 찾는다면 이 역시 손끝만 보는 격이다. 그의 사진은 풍광의 갈피마다에 숨어있는 애틋한 존재의 노래들을 오롯이 포착해 낸다.” 이렇듯 이 책은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예술적 차원으로 백두대간에 접근하고 있다. 작은 생명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심미안이 미려한 문체로 묘사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책 vs 책

‘즐거운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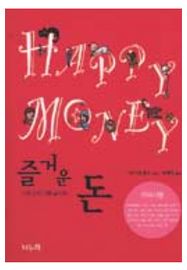
다카키 유코 지음 / 구혜영 옮김

나누리 / 8천원

‘돈과 복이 굴러드는…’

이경선 엮음 / 박미경 옮김

마당넓은집 / 8천7백원





돈에 얽힌 이야기

요즘 사람들은 항상 돈, 돈, 돈 한다.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 뿐인 듯하다. 주말이면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복권방에 줄을 서고, 카드 빚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늘어만 간다. 도대체 돈이 무엇 이길래, 이렇듯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가.

<즐거운 돈>과 <돈과 복이 굴러드는 행복한 이야기>는 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즐거운 돈>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돈의 은밀한 내면을 속속들이 파헤친 돈에 대한 일종의 명상서라 할 만하다. 사람이 얻는 돈과 나가는 돈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과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돈도 필요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말하는 저자 다카키 유코는 이 책에서 즐거운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거운 인간이 되라. 둘째, 돈에 대한 상념을 버리고, 돈을 쓸 때 갖는 자신의 상념에 주의하라. 셋째, 돈이 없더라도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베풀라. 베푸는 마음을 내면 그 에너지가 순환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돈과 복이 굴러드는 행복한 이야기>는 작가 이경선씨가 돈과 복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88편을 묶은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돈과 복이 굴러든다’ ‘사람을 움직여야 세상을 얻는다’ 등 주제별로 나눠진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무조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은자 기자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금액: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국어디나받아점안식을하고사용하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존경하는 스님께 최고의 보시는바루입니다

세계최고급 名品

흑단무늬목바루

베트남 국민영웅 공예가 NGUYEN BACH KHOI 작품



세계적名品 흑단 무늬목 바루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나무에서 氣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현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 무늬목이다. 名品만을 고집하는 금강바루사에서 베트남의 국민영웅 공예가 연위엔 박 코이(65세)작품으로 200set가 제작되어 인연과 연분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불자님을 기다린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는 나무로 부처님께서도 사용하신것으로 전래된다.
흑단 무늬목 바루는 氣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음식을 담아 놓아도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단무늬목은 일곱번을 삶아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바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삶은 다음 정조 작업을 한 후 바루에 일곱번의 옻칠을 해야 만이 흑단무늬목 바루가 탄생된다.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인연의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흑단무늬목 바루문의 (02)722-0880

※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흑단목108염주를불자님들께 보시할흑단목 108염주를 사찰에계신 스님께주문예약 받습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43-12-049474 송명화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길드



부파불교와 윤회의 주체문제(5)

아트만 없이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했었다. <잡아함경>을 증거로 인용했었다. 이것을 흐르는 냇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 개울물은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흘러 내려간다. 바라문아, 이처럼 사람의 삶도 이 산 개울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과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한편으론 윤회의 주체를 긍정하는 경전의 가르침이 남아 있다.

<아함경>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기 다른 견해들이 보이고 있다. 푸드갈라(Pudgala) 이론과 식 이론이다. 우선 푸드갈라 이론은 <잡아함경>3권의 중담경에 보이고 있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가짐과 짐을 버림과 짐꾼에 대해 말하리라…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인가? 이른 바 오온이다… 어떤 것이 짐꾼인가? 푸드갈라가 그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름을 가졌으며, 어떤 생에와 어떠한 가정에 속했으며, 어떻게 먹었으며, 어떠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는가?"라는 경문이 있다. 여기서 부처님은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오온과 구별되는 어떠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오온이 짐이라면 푸드갈라는 짐꾼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오온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원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뗑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위치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했던 푸드갈라 이론과 식 이론은 부파불교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한다. 즉 독자부와 정량부는 푸드갈라 이론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장로부계의 부파들 대부분은 식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주장한 이론을 계승한 섭일체유부나 경량부 못지않게 장시간 번창한다. 결국 부파불교시대에 들입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은 각 부파의 특색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섭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을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원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뗑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위치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섭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을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원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뗑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위치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섭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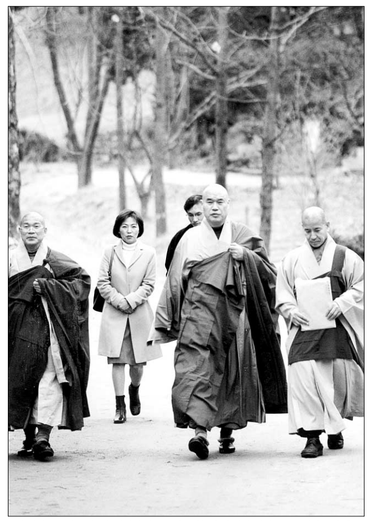
윤회 주체 부파별 다양한 이론

자아 믿음 '아뢰야식' 서 정점에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원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뗑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위치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섭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



◇청해오는 대중 법문을 마다지 않는 무비스님(봉은사 경내,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번 대구 지하철 사고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이 그리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이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 해석되고 다 이해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불교의 연기설 또는 인과의 이치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간혹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인과가 있는 것인가, 연기의 도리는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일 대 일의 원한 관계라면 또 모르거니와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인과법칙 가능한가. 이건 불교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해치는 것이 엄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수가 소수를 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수와 임원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두를 다 쳐봐야 2~3백 명밖에 안되는 그런 나라에서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이 경기장에서 그것도 붉은 악마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수백만명, 어쩌면 천만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쪽을 응원하면서 다른 쪽이 지길 바라는 것은 비불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예요. 진정한 불법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숫자 대비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수천명 수만명은 됐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을 상대로 품은 그 원한이 얼마였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의 모국이 코살라라는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군을 동원해서 나가 싸우자고 했습니까.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했느냐.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연 도리라고 생각하시고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석가족을 쳐들어가는 길목의 바싹 마른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말이예요. 그래서 유리왕은 비록 부처님의 모국을 침범하러 가는 길이지만 성자를 만난지라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인사를 하고는 물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 무성한 나무들을 두고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계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그대가 나의 모국 카필라국을 무찌르러 가는 이 마당에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내 마음은 저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리왕은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죠. 그래서 군대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갑니다. 부처님은 또 그 길목에서 지난 날 같이 똑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대답했고 유리왕은 군대를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카필라국을 삼키려는 야욕을 누를길 없어서 또 쳐들어갑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가족은 수십만명이 무참히 죽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지 않고 참음으로써 원한을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진정 불자라면 한쪽 편을 들고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게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참 불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찌 부모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심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을 막론하고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을 말한 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인간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최초로 설했다고 하는 화엄경에, "도를 이루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그야말로 부증불감입니다.

부처님께서 육년고행을 하시면서 부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본래 부처였어요. 참선해야 부처가 되고 참선 안했다고 부처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부처예요. 그렇다면 참선이나 기도, 고행은 뭐냐?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끝이에요. 육조 혜능 스님은 불교라는 글자도 모르고 있을 때 나무꾼이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임제 스님도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수승한 것은 저절로 나에게 있더라" 했어요.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삶,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목표가 알고 보니까 전부 내 자신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들을려고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한번도 자신에 대해서 관조해서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들은 수행을 했던 안했던, 고스란히 부처님의 만행만덕과 지혜를 그대로 갖춘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길 때 무슨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이해를 못하고 받들어 섬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이라도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받들어 섬긴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부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불자들이라도 서로 받들어 섬기면 세상이 다 행복해 집니다. 그 길 외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길은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이 길 말고는 어떤 방법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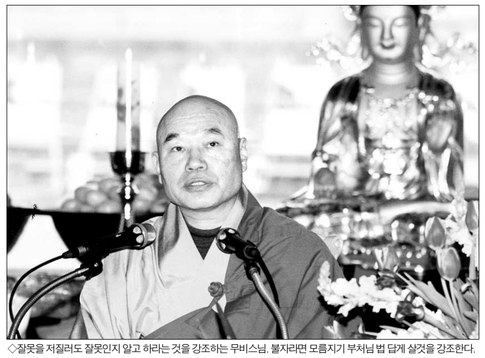
정리=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상만물을 부처님으로 섬기세요

지상 백고좌

무 비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인지 알고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무비스님.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처님 법 답게 살것을 강조한다.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삶'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알고보면 전부 자신 속에…

조계종 교육원 가족이 본 무비 스님

"한 마디로 소탈한 분이시죠. 전형적인 강사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지요. 젊은 시절부터 경학에 몰두해온 분이라 그럴 겁니다. 모시기 편한 분이예요."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정산 스님의 말이다. 굳이 다른 스님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스님의 이력들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앙종회의원도 거쳤고 교육부장 소임도 맡았지만 그것들 또한 강백으로서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스님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교육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심경은 어떨까.

64년 해인사 강원 마친 후 줄곧 강사의 길

"항상 열려있는 대 강백" "화합 솔선수범"

을 보면 그 소탈함의 정체가 단박에 드러난다.

1958년에 법어사에서 출가하여 1964년 해인사 강원을 마친 후 줄곧 강사의 길을 걸었다. 범어사 · 통도사 강주, 중앙승가대학 교수,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소임이 스님의 주요 이력 사항이다.

"순간 순간 은해사 승가대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미가 쏠쏠하거든. 하지만 이 일도 보람이 있어요. 승가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의 태도는 교육원의 재가 종무원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려 있는 분이예요. 전통 교육에 대해서는 최고의 식견을 갖추셨어요. 그러면서도 현대 교육에 대한 이해도 밝으십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 스님은 개인적으로 경전 보급운동을 꾸준히 펼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회향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님의 행정 스타일은 어떨까.

"항상 화합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모범을 보이세요.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위원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습니다."

교육원 재가 종무원의 말이다.

그래도 무비스님의 진면모는 역시 대강백이었다. 교육부장 정산 스님의 한 마디.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잖아요. 주지 소임 한번 안 맡았어요. 스님은 천상 강백이예요."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호스님



도심에서 포교한다고 떠들썩하던 시간을 정리하고 시원함과 섭섭함의 만감이 교차하던 시간에 가장 먼저 찾은 기도처가 운문사 사리암이었다. 사리암 나반존자 기도처에서 흘가 생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기도에 몰입하던 때 만난 스님이 사리암 원주 정호스님이다. 정호스님은 자연과 환경, 생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열정적인 비구니 스님이다.

내가 운문사 사리암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원주스님의 관심처럼 못 생명이 한식구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혜안할 수 없는 흐뭇함에 빠졌다. 야생 산고양이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아 애지중지 젖먹이는 모습이나, 새끼의 어설픈 날갯짓에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새의 당황하는 울부짖음에서, 이렇듯 생명 가진 것들의 자식 사랑은 지극하기만 한데, 저들과 우리가 드러난 모습이 다르다 하여 무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정호 스님이 손 위에 잣을 들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들어 잣을 물고 가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이름모를 새는 스님의 손에까지 날아와 앉아 먹이를 먹는다. 그 작은 새가 깜찍한 발톱으로 스님의 손바닥에 앉아 먹이를 먹을 때의 그 느낌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경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먹이를 줄 때는 온 산이 떠들썩하게 전체 새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친다. 그러고 보면 결코 조용하다거나 다소곳하다거나 다정다감한 것은 아닌데도 스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먹이 주는 것을 알고 새들이 눈치껏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슴이며 염소까지 찾아든다는 말에 산을 지키고 가꾸는 스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자비와 신뢰의 마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 짐승들이 사람과 말이 통해서 가까이 오겠는가! 말보다 진한 따뜻하고 악의 없는 마음이 느껴져야만 동물들은 움직인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요즘 세태에서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짐승은 그가 가진 자연의 본능으로 상대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서야만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자신의 심통은 가려놓고 먹이를 내미는 자기에게 새가 오지 않음을 원망한다. 새나 짐승들이 생각보다는 영리하다. 최소한 자신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새들의 직감이, 목적과 수단, 즉 순수와 허세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든 생명에게 악의 없는 마음을 열고 있는 스님이 바로 사리암 원주 정호스님이다.

스님은 산중에 함께 사는 생명들과 대화를 한다. 앞산에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통해 그들의 사연을 알아 듣고는 격정과 안심사이를 수없이 오고 간다. 고양이가 유난히 많아서 사연을 물었더니 쥐들이 설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면서 고양이 밥을 자식 돌보듯 정성껏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사는 고양이들의 이력을 꿰고 있다. 어느 요사이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이고 저놈은 얄밉게 많이 먹는다고 투정인 스님에게서 남다른 생명사랑을 느낄 수 있다. 호거산 산중에서 한 스님의 자비한 마음이 산 전체를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후 매달 사리암 기도를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호스님은 짐승들에게만 머냥 너그럽고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대학입



그림 · 문병성

자연환경 · 생명에 남다른 애정

"밥 먹어라" 외치자 동물들 기웃

학 수학능력고사가 치러지는 날에도 기도를 갔었는데, 정호 스님의, 수험생 부모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씀이 마치 모든 가도 불자들의 어머니 같았다. 수험생 부모가 아닌, 사리암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하라, 자리를 양보하라, 신경을 자극하지 말라는 등등 수험생부모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유난히 지극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비도 많고 뜻밖에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엿지는 않지만, 스님의 생명사랑은 생명경시가 갈수록 심해지고 인간중심의 편협함이 느껴지는 요즈음 현실에서는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마음이다.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앗아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보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정호스님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웃을 가능한 세상을 살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특히 남는다.

심산 스님은 8년 내장사에서 모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 86년 범어사에서 자운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6년 동국대 졸업하고, 88~90년 공군법사로 활동했다. 93~200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를 맡아 문화를 통한 지역포교에 앙장서 왔다. 현재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채해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퇴미승 예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조 하 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불교예술대학 학생모집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본 불교예술대학은 김해강 큰스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모든 능력을 제자 진하스님께 전수하여 그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분은 함께 동참하여 불교예술의 전수를 배우고 인간문화재의 후계자가 되시기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약간명
■ 교육기간 : 매 3개월 마다 한가지씩 수료함.
■ 수 업 료 : 월 10만원
■ 연 락 처
02)969-2410 / 02)969-4981

※ 김진하 교수님의 법무(法舞) 비디오테이프가 출반되어 있으니 구입코저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장 김 해 강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 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단원빈에 가슴이 뚫리고 단전이 열리는 선비호흡 !

호흡법 수행 이야기

잘을 얽치게 잘하는 법이 저지로 호흡에 맞춰잘하는 법에 이어 처음 공개하는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는 동작으로 배우는 자동단전호흡법 공개 수련회

◈ 참선, 염불, 독경, 위빠사나 수행시 호흡법, 자세법을 무시하는 수행자
◈ 횟병, 상기병으로 머리무겁고, 눈충혈, 천이 마르고, 혓바늘서고, 입안이 헐고 안을부르트고, 머리속 영조, 목이 아프고, 얼굴이 붉고, 열이나며, 항상피곤하여 늘잠 좋아하는 수행자
◈ 명치끝이 빠근하고 속이 답답하며 배꼽위아래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맥이 끌떡끌떡 뛰는 수행자
◈ 숨을 가쁘모 쉬어 역호흡(염불, 독경, 등산, 대화할때 들숨시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들어감)이 되어 올숨때, 놀랐을때처럼 호흡하는 습관과 두려움이 많은 수행자
◈ 배꼽위 위배가 나오고 옆구리 살이 많고 아랫배가 냉하고 손, 발, 무릎이 차가운 단전이 막힌 수행자
◈ 손가락,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이 까맣고 기미가 있고 가슴, 배, 등, 허리에 검은 반점, 여드름, 담섬이 있는 수행자
◈ 불면증(3일), 우울증(30일), 역정, 노이로제, 당뇨, 변비(5분), 비만, 소화불량(3분), 고혈압 환자가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단전호흡을 하면 좋지않고 도인법과 자동단전호흡법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적임을 체험할 수 있다.
◈ 무의식중에 들숨시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고 날숨시 간호흡이 되는 절, 염불, 독경, 자동단전호흡법이 건강법으로 확실하며 살을 빼는 다이어트로 가장 수승함을 보여드립니다.
◈ 절할때 흡호호, 호흡법은 10분이내에 누구나 100% 수승화장 두한족열이 되는 완벽함을 그동안 수련을 해온 2만여명의 불자들이 절할때 마다 체험합니다.
((숨이 차고 혈떡대고, 맥박이 빠르게 뛰며 빠른속도로 경맹스럽게 하는 절은 수행이 아닌 못된 짓입니다.))

※ 수련장소 : 청호불교 문화원 7층 대법당
(서울 강남 청담동 늘봄예식장 시네마홀스 뒤 50M)
※ 수련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 ~ 3시
※ 수련문의 :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청견스님
※ 전 화 : 031)771-7745, 011-9088-9449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마냥는 자세로 반한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것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적삼,바지]

1. 모직춘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W140,000 / 동방, 바지 : W160,000 / 두루막 : W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W130,000 / 동방, 바지 : W150,000 / 두루막 : W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W220,000 / 동방, 바지 : W240,000 / 두루막 : W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W170,000 / 동방, 바지 : W190,000 / 두루막 : W



◇광주 증심사 일대에 문화공간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구축된다. 사진은 지난해 증심사 앞 문화마당에서 열린 '풍경소리' 음악회.

생태보존+불교문화

증심사 일대 문화인프라 구축

일철스님, 각계인사와 각종프로그램 계획

풍경소리음악회 범종교적으로 진행

문화학교·무등산 불교문화답사 추진

광주 증심사 일대에 생태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문화인프라가 구축된다.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을 비롯해 임의진 목사(강진 남녘교회),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 본부장, 정원채 광주중앙여고 교장, 이계표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 김영섭 생명나눔실천회 사무국장 등 문화관계자 10여명은 지난 2월 17일 증심사 행원당에서 모임을 갖고 증심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증심사 일대의 집단 상업시설 정비와 생명나눔을 위해 매달 음력 15일에 개최해 온 풍경소리 음악회 활성화, 생태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증심사 문화학교 개설, 무등산 패키지 불교문화답사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의 초점은 풍경소리 음악회에 맞춰졌다. 지난해 7월부터 종교간의 화합과 생태보전 운동의 취지로 열리고 있는 풍경소리 음악회는 증심사가 주축이 되고 있지만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회 등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할 정도로 3개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일조하고 있다. 외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벌써 입소문을 타고 4백명 이상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달에는 20일 증심사 앞 문화광장에서 통기타 가수와 불교합창단이 출연해 공연을 연다.

매달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이는 이들을 위한 증심사 문화학교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 생태 보존, 전통문화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는 증심사 답사 프로그램도 문화학교를 통해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음악회가 열리는 무등산 문화광장에 가족단위로 꽃과 나무도 심게해 쉼터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증심사는 이번 달부터 금강문과 사천왕상 복원, 석조입상 보호각 설치, 오백전 해체수리 복원 등 대대적인 도량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철 스님은 "매달 음악회를 보기 위해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종교를 떠나 문화적 유대감과 환경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소모임 성격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주 무등산 특히 증심사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데도 이 일대 문화와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수행과 불교의 전통·현대문화가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증심사 도량을 정비해 내실입는 답사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민 무등산 땅 1평 갖기 운동과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지어 정년퇴임한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종교를 초월해 치료도 받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음악 현대인 심신치료 탁월"

보건학 박사학위 받은 불자가수 김태곤씨



"불교음악과 같이 곡선의 운율이 흐르는 음악은 현대인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명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과 치료의 대체의학으로 '음악치료(music therapy)'가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 수준이에요. 대중가수로서 현대인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어떤 음악이 좋은지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음악이 인체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20일 경북 경산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불자가수 김태곤씨(53). 불교의 맑은 정신세계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송학사'를 만들어 불렀을 정도로 김씨는 이미 수년전부터 음악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왔다.

특히 요즘 범람하는 '국적 불명'의 직선적인 리듬이 현대인들의 심신과 생체리듬을 깨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지난 1998년 곡선적 리듬에 근간을 둔 한국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의 뿌리를 연구하기 위해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과 서울봉원사 부설 범음대학에서 3년간 공부했다.

'무애가' 등 명상음악 10곡 곧 출시

이번 논문에서 김씨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감상시간 등이 사람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속도감 있는 음악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아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 민속음악과 불교음악은 세계에서 드물게 3박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2·4박자풍의 서양 리듬은 우리 민족의 몸에 밴 박자와 부조화를 일으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 백병원에서 98년부터 2년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클래스'를 열기도 했던 김씨는 나옹선사의 게송을 한호흡으로 노래한 '무애가'를 비롯해 석굴암 부처님을 그린 '해를 바라보는 남자' 등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도와주는 노래 10곡이 수록된 앨범 '가을'을 제작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불교음악과 현대적 선율과의 접점을 찾아 듣는이들이 심신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명상, 태교, 심신치료 음악 제작에 전념을 쏟을 것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대중속으로 다가가겠다는 각오속에 음악에 대한 진한 열정이 느껴진다. 김주일기자

대만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내한공연

참선·명상 통한 내공의 춤사위

현대 서구무용기법으로 표현



클라우드게이트 댄스시어터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선보일 작품 '행서'. 역동적이고 절제된 내공의 힘이 느껴진다.

검은 드레스의 소매를 흩날리며 마치 명필이 일필휘지를 써내려 가듯 추는 춤. 아시아 현대무용단으로는 드물게 세계무대에서 정상급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인 린화이민(56)이 이끄는 무용단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시어터'가 7~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73년 창단된 이 무용단이 대만은 물론 구미 관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아시아의 전래신화와 민속을 소재로 동양적 미학을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몸짓으로 표출해 내는데 있다. 특히 참선과 명상을 통해 우러나오는 내공의 춤사위를 서구식 무용기법에 결합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공연 작품은 '행초(行草)'다. 행서와 초서 등 서예 기법을 춤에 적용시켰다. 서예가들이 글씨를 쓸 때 모든 정신 에너지를 집중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한 획씩 내려 긋는 것이 춤의 원리와 상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응용했다. 글씨 획의 시적인 흐름과 강한 종결 등을 모방해 춤사위를 만들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중 전반부에서는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동작의 흐름이, 후반부에서는 공중제비, 점프 등 무예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주가 된다. 흑백의 대비를 강조해 무용수들은 마치 하얀 한지에 먹으로 글을 쓰듯 검은 의상으로 흰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이다. 무대 뒤로 서예 글씨가 펼쳐지고 유연한 무용수의 움직임, 동양의 명상 호흡법을 이용한 완급조절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02)580-1300

통일문화연대, '물꼬' 창간

북 단청지원 등 뉴스 담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4개 종교단체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일문화연대가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을 지향하는 격월간지 <물꼬> 창간호(1·2월호, 비매품)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법전 조계종 종정의 축사를 비롯해 교황바오로 2세의 2003년 평화의 날 메시지 '지상의 평화-영원한 과업'에 대한 해설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의 메시지, 불교계 북한 사찰 단청지원과 진각종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등에 대한 불교계 뉴스 등이 실려 있다.



최홍준 한국평협 사무총장은 "남북 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의 갈등들을 풀어나가는데 일조하자는 취지에서 잡지 이름을 '물꼬'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05 교리강좌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2:20 백팔가요
17:10 무명을 밝히고
23:05 불교문화산책
01:00 젊은 그대에게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6일 20:30 차문화산책
7일 09:30 구본일의 명상육아
8일 12:30 32스페셜
9일 15:10 서옹대종사 특별법문
10일 13:20 알기쉬운 기초교리강좌
11일 12:40 영상니르바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문화산책-전문가들로부터 불교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중앙대 부총장 박범훈 교수가 불교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적, 소, 팔랑지우' 등 경전에 나타난 다양한 악기에 얽힌 이야기와 불교음악의 전래와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불교텔레비전**:△차문화 산책- '현대의 찻사발' 편에서는 한국적인 토양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강한 성격을 지닌 도자기를 추구해온 도예가 신현철 씨와 소설가 정동주 씨가 차와 찻사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옛 서민들이 쓰던 막사발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신현철 씨의 다완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본다.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④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3.4cm x 24cm
⑥ 식물성 쌍대 – 지름 3.4cm x 22.5cm
⑦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⑧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① 1.8cm x 12.5cm 등초 小(1봉 20) ③ 연화 3호 ④ 바람막이 小
② 2cm x 12.5cm 등초 大(1쌍) ⑤ 바람막이 中 ⑥ 연화 2호
⑦ 컵 초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연두, 전사지-연화,반야심경,무지개)
⑦ 글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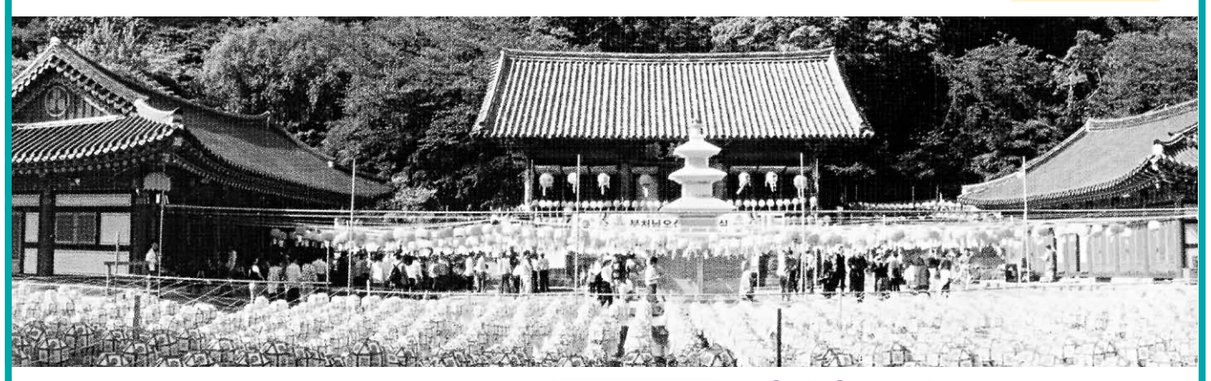
⑧ 돈타레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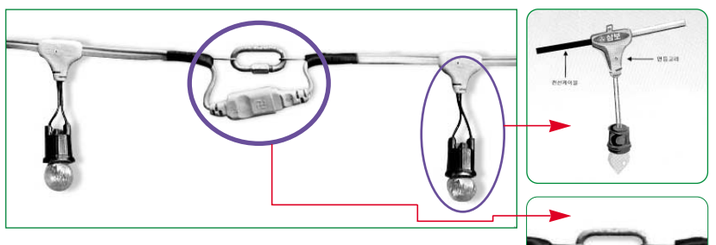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전화 : 031-766-0242 / 팩스 : 031-766-0233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볼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가 다이어트로 몸·마음 건강하게



사진제공=삼호미디어

요가 배울수 있는 곳	
단체명	연락처
한국요가협회 (www.yogalife.co.kr)	(02)3444-6618~9
대한요가학회 (www.yogayoga.co.kr)	(02)555-6474
한국요가교육학회 (www.kyea.net)	(02)718-8857
한국명상요가센터 (http://zenyoga.co.kr)	(02)522-0122
한국요가연수원 (www.yogakorea.com)	(02)888-5087
한국요가회 (www.yogaacademy.co.kr)	(02)774-6987~8
마야문화원	(02)722-1050
홍익요가연구원	(02)333-2350
명상아카데미	(02)598-7180
연화선원	(053)751-8211
광주 선덕사 요가원	(062)263-8024

TV 프로그램 방영 후 젊은층 확산

생활 속 실천 건강요법으로 인식

체중감량 위한 운동이란 생각 버려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요가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요가열풍'이 일고 있다. 지난해 수퍼모델 이소라와 탤런트 최윤영 등 연예인들이 잇달아 요가 비디오를 선보인데 이어 백화점 문화센터들도 속속 요가강좌를 개설해 요가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요가강좌의 종류도 '오행 다이어트 요가', '탄력 있는 몸매와 건강을 위한 요가', '파워 요가', '아침 건강요가', '임산부 요가교실' 등 다양하다. 또한 요가와 아로마 테라피(향기요법)를 결합한 '아로마 요가', 요가와 스트레칭이 결합한 '하타 요가' 등도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측은 "작년 말부터 요가강좌에 대한 문의와 개설 요청이 쇄도해 서울 지역 전점에서 봄학기 강좌 수를 지난 학기의 2~3배로 늘렸는데도 신청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요가협회(회장 이정훈)는 현재 한국의 요가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90% 가량은 체중감량을 염두에 둔 직장 여성. 이정훈 한국요가협회장은 요가 열풍의 원인에 대해 "과거 요가가 강조하던 명상이나 정신세계에서 탈피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요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별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이다.

요가는 신체적 훈련과 정신 수양을 통해 흐트러진 자신의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운동으로 이미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전해져 우리 문화 속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의 가부좌가 대표적인 요가 수행법 중 하나. 현대적 의미의 요가는 1970년대 한국요가협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이후 90년대 미국의 요가 열풍과 함께 국내에서도 '생활요가'라는 개념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모 TV 프로그램에서 요가로 감량에 성공했다는 원정혜(고려대 강사) 씨의 강좌가 방송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7천년의 전통을 가진 요가가 최근들어 새삼 건강증진 수단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우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명상과 복식호흡법을 함께 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체중감량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가라이프의 김한 대표는 "요가는 신체의 균형회복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가야말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요가가 체중감량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 연화선원에서 참선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자광 스님은 "요가의 목적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형성된 신체의 불균형을 본래의 상태로 돌이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며 "겉보기에는 쉽지만 혼자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약과

밀가루(박력분3컵) 참기름 2큰술, 소금 1/2작은술, 흰후춧가루, 계핏가루, 꿀 3큰술, 생강즙 1큰술, 청주 2큰술, 시럽, 식용유, 잣가루 약간

1.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졸여 시럽을 만든다.

2. 밀가루에 참기름, 소금, 흰후춧가루, 계핏가루를 넣고 고루 비빈 후 체에 내린다. 꿀, 생강즙, 청주를 넣어 가볍게 반죽한다.

3. 기름을 바른 약과판에 반죽을 눌러 박은 후 뒷면에 6군데 정도 구멍을 낸다. 100℃ 기름에 튀기기 시작해 150℃에서 건져 기름을 뺀다. 시럽에 담갔다 건져 잣가루를 뿌린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EBS '뇌과학과 만난 전통태교'

전통 태교의 현대적 가치 조명

전통태교의 과학적 가치를 알아보는 '뇌과학과 만난 전통태교'가 EBS에서 방송된다.

3월 19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김수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교수는 21세기 첨단 뇌과학에 우리의 전통 태교를 접목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총 12회에 걸쳐 방송되는 이번 강좌에서 김 교수는 태아의 뇌의 발달과 신경세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엄마의 정서에 따라 달라지는 자궁내의 환경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또 대구 효성병원에서 경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실시한 국악태교 실험결과를 모차르트 효과와 연관지어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군에 간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가족간에는 종교 같은게 좋아"

아들이 군에 입대한지가 1년이 되었다고 하는 부인이 찾아 왔습니다. 그 부인은 군에 간 아들이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모른 체 하는 게 좋은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갈등과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종교문제를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의 친정은 4남매라고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이 곧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란 4남매는 우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4남매는 명절이면 조상님한테 차례를 지내고, 부처님오신 날이나 백중 동지 같은 때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비빔밥이나 팥죽 얻어먹는 재미를 공유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매간의 종교가 달라지지 시작해 지금은 종교로 인한 갈등이 복병처럼 그들 속에 숨어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맏딸인 그 부인은 불교집안으로 시집가서 자신의 종교를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데 반해, 바로 밑의 여동생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가서 시댁의 권유에 따라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남동생은 가톨릭 신자인 올케가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성당에 나가고 있고 불교적 성향의 막내 남동생은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못 마땅히 여겨 부부로서의 결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처음엔 종교가 다른 게 무슨 대수야, 하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넘지 못할 장벽처럼 그들 4남매 앞에 가로 놓이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남매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때 한자리에 모여도 마음 속의 깊은 얘기는 서로 나누지 않고 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서먹하게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4남매가 한 뿌리에서 가지를 뻗은 나무처럼 굳게 결속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진다고 하면서 부인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돌아가야겠군요. 부인은 남매를 두었는데 맏이인 아들이 군에 입대한지가 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처음 군에 보내 놓고는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울기도 여러 번 울었는데, 막상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온 아들을 보니 너무도 늠름하고 씩씩하게 보여서 군에 보내기를 잘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가족들을 즐겁게 해 줄 이야기보따리를 미리 준비해 오는 듯 군에서 있었던 갖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가족들을 웃기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통해 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음을 안 부인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교회에 나가자고 졸라서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면 맛있는 점심도 주고 해서 일요일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에도 몇 번 가봤는데 절에 가면 법사님 얘기만 듣다가 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말에 기가 막혔지만 단순한 군생활에서 부대 밖의 음식을 먹는 재미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나 싶어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간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인데 그걸 책잡아서 야단을 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종교 사회인데 종교의 벽에 갇히게 하면 여러 면에서 옹졸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이러다가 아주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가족 간에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제가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휴가를 나오면 아드님한테 어머니가 생각하고 계신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종교의 벽에 갇히는 건 옳지 않지만 가족 간에는 최소한 종교가 같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외가의 예를 들면 아드님이 더 잘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군요."

그러면서 속으로, 일요일마다 사병들한테 맛있는 점심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군포교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상)

■不立文字 直指人心

김동난(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998년 11월 24일, 그때 난 모 대학 병원에서 종합진찰결과를 보고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벼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직후였다. 막내 여동생이 울먹이며 전화를 했다. 시골 오빠가 돌아가셨으니 청량리 남동생네 집에서 만나 동생차로 같이 가자는 것이다. 오래 못 살 것이라 예감은 했지만 오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겨우 환갑을 넘긴 나이가 아닌가. 나는 잠시 무상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시골에 계신 오빠는 199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바로 앰블런스로 서울 강남에 있는 H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입원실은 커녕 응급실에도 자리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간신히 어렵게 줄을 놓아 입원을 하게 되었다. 치료를 받아 큰 고비는 넘겼으나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올케언니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서울로 오르내리며 남편 간호를 할 수가 없어, 오빠는 병세가 웬만큼 호전된 듯 하자 바로 퇴원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그러나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오빠는 빈집만을 지키며 앞산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마당에서 노는 닭, 강아지를 벗삼아 외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쓰러져 재입원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 집을 떠나고 또 직장다니고 하는 바람에 외로운 임종을 맞고 말았다고 한다. 나의 친정어머니도 59세, 그러니까 막내가 10살 때 혈압으로 돌아가셨다. 오빠는 부농가(富農家)의 아들로 태어나 남보다 호강하며 산 셈이다. 대학졸업후 고향을 지키며 많은 지역활동을 했던 박학다식한 분이었기에 가족이나 친지들의 슬픔은 더욱 컸다.

혈육인 오빠의 죽음을 대하니 불현듯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무상(無常)의 바람앞엔 한가닥 촛불에 불과한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어디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을 고집하며 내세울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내내 하며 고향집에 다다랐다. 오랜 병수발에 지쳐있던 올케언니가 맞으며 "그러지 않아도 넷째 고모(나) 내려오면 오빠 위패를 어느 절에 모셔야 하는지 의논하려고 했는데…" 했다.

"여기서 가까운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난 올케언니를 안심시켰다.

오빠 장례날 공무원인 남편 구속돼

이틀전 경찰에서 온 전화 '사건 예고'

시골집에 내려오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늦게 귀가해 내가 적어놓고온 메모를 보고는, 다음날 출근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겠다는 전갈이었다.

이튿날엔 광명선원 주지스님을 찾아 뵙고 장례식후 오빠의 영가를 절에 모시기로 했다. 광명선원 스님들이 입관식때 오셔서 염불을 정성껏 해주셨다. 그런데 오전에 내려오겠다던 남편은 오후가 돼도 감감소식이었다. 그러다가 막내아들(당시 고2)에게서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았다. 남부경찰서 강력 2반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으니 엄마에게 연락해 빨리 들리라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앞이 노래졌다. 다른 형제들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어쩔줄을 몰랐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남편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출근하자마자 형사 3명에게 붙들려 갔다는 것이다. 죄목은 '공무원 특정범죄 뇌물수수죄'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공무원은 죄를 지어도 일반인들보다 법앞에 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어쩌나…

마침 문상왔다가 서울로 가는 차편이 있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탄 차 안에서 보는 주위는 온통 추위와 어둠과 두려움 뿐이었다.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싶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내리자마자 증발해 버리듯이.…

오빠가 돌아가시기 이틀전, 일요일 저녁, 남부경찰서 형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이름을 확인하더니 당장 서(署)로 오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서에 '김덕수' 란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안다고 했더니, 형사의 말이 지금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아무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주머니가 와서 증인을 서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하니 빨리 오라는 것이다. 김덕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도망다니던 지명수배자였다. 운전중 검문에 걸려 잡혀온 것이라 했다. 난 밤이 너무 늦었고, 몸이 불편해 다음날 가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며 잠깐이면 되니 택시를 타고 오라며 택시비까지 준다고 하며 나를 불러냈다. 그런데 그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처진다. (계속)

그림 · 김홍인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화 태자비 ②

운명의 날, 세 번째 무술 경기의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다. 그날의 경기는 말타기였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말타기만은 모두 자신들이 있었다. 모두가 귀하신 왕자들의 신분이었다. 사실 걸어다니는 것보다 말을 타는것이 훨씬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벌어지자 시험관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작은 공을 힘껏 던졌고 왕자들은 그 공을 추격하며 화살을 날려 명중시켜야 했다.

처음에는 한 두 명의 성공한 왕자들도 있었지만 경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공은 점점 더 작아졌고 던져지는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는 바람에 한 명 두 명 탈락해 갔다.

다만 싯다르타 태자 한사람만이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명중시키며 그 신출귀몰하는 묘기를 과시하였다. 구경하던 관중들 뿐 아니라 참가했던 다른 나라 왕자들도 감탄하며 깨끗이 승복하고 말았다.

마침내 대망의 우승은 싯다르타 태자의 것이 되었다. 작은 나라 카필라바스투의 싯다르타 태자가 주위 강국의 왕자들과 당당히 겨루어 크게 승리하며 그 위세를 만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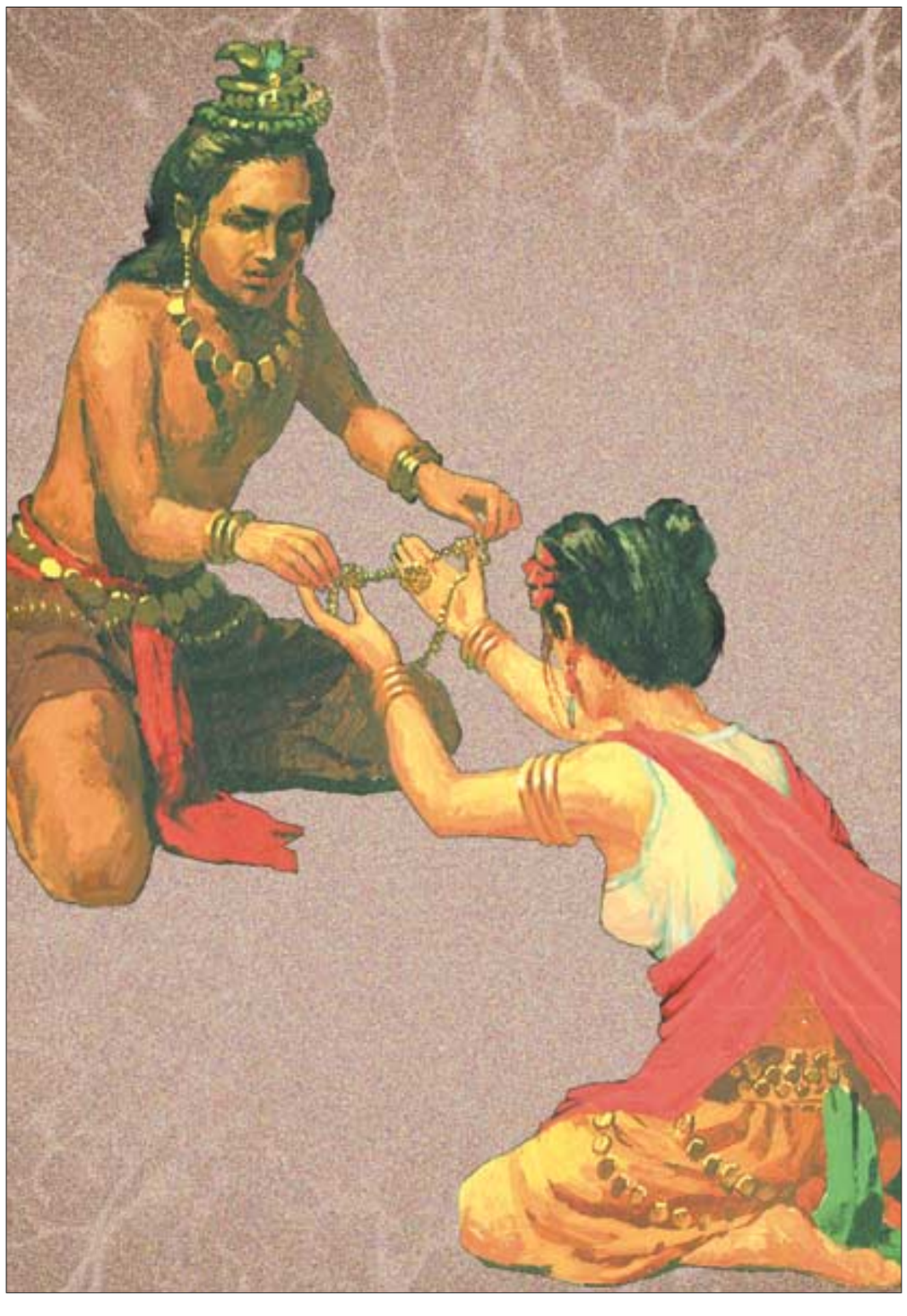
이리하여 싯다르타 태자는 숲파붓다 2세(善覺) 라자의 앞에 나아가 그 옆에 숨을 죽이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있던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를 얻게 되었다.

어차피 승리자의 전리품이 되고 말 운명의 야소다라 공주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뜻밖에도 외사촌간이라는 가까운 친척인 동족(同族) 샤카족의 태자로 결정되자 공주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하였다. 드디어 공주의 주인이 될 왕자대회의 우승자 싯다르타 태자가 의기 양양하게 공주앞에 다가왔다. 그의 준수한 모습을 훔쳐 본 공주는 얼굴에 밝은 희색이 피어 올랐다. "어쩜 이렇게 잘 생긴 왕자님이…"

공주는 거듭 오늘의 운명을 정해주신 신(神)에게 감사드렸다. 싯다르타 태자는 자신의 영락장신구(瓔珞裝身具)를 벗어 결혼예물로 공주에게 넘겨 주었고, 공주는 이를 공손히 받아들임으로써 태자의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

이리하여 야소다라(Yasodhara-耶輸陀羅)공주는 카필라바스투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dhartha-義成悉多 太子)의 정비(正妃)가 된 것이다.





야소다라를 정비로 맞은 싯다르타 태자는 부왕 숫도다나 라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생(生)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깊은 사색에 빠져든다. 이에 깜짝 놀란 부왕(父王) 숫도다나라자는 불현듯 태자가 전륜성왕(轉輪聖王-차크라 바르틴) 대신 부처님이 되려고 출가(出家)할지도 모른다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 생각나며 커다란 불안감에 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근심은 대왕의 충직스러운 대신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태자의 관심을 좀더 현세의 즐거움 쪽으로 유혹하여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젊고 혈기왕성한 태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보다 더 좋은 묘약은 없다고 판단하고 태자에게 두번째의 부인을 맺어주기로 하였다. 그 결과, 같은 샤카족의 일문(一門)으로 단다파니 라는 부호의 아름다운 딸을 태자의 두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니 그녀가 바로 고파(Gopa-喬比迦)부인이였다.

이후에도 또 한명의 태자비가 간택되어 들어오니, 역시 샤카족의 귀족 카라크셰마의 딸로서 마노다라(Manodhara-摩野夫人)였다. 이리하여 카필라바스투성안에 세 채의 궁전들이 세워졌고, 이들 세명의 태자비(太子妃)들이 각각 세 개의 궁전에 거주하게 되니 후에 흔히 불전에서 말하는 '삼시의 궁전(三時殿)'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에게 제 2, 제 3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독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일국의 태자의 신분으로 두 세 명의 부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정비 야소다라 제2비 고파 제3비 마노다라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 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현대불교 제411호
서기 2003년 3월 5일 수요일 29

우리의 생활 찰나찰나의 연속이지만 항상 여여하므로 그대로 진리의 길

우리는 분명히 너와 나가 있으면서도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듯이 오늘도 또 모두 함께 한자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 같은 길을 가는, 서로 진리의 길을 탐구하는 도반들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다 함께 한자리를 하고 있으므로 비록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저까지도, 더 나아가서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도반 아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시방찜도 종점도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고, 또 사방을 둘러보시고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으셨는지 그 뜻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길을 인도 받게 되었고, 또 마음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결코 부처님 당신만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라대천세계, 즉 우주전지와 세상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본, 마음의 성품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우주천지의 근본이었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밝아있기에 있다 없다는 말조차 붙일 수 없는, 그래서 본래부터 있어 온 마음의 근본을 깨우치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근본을 깨우친다면 일차적으로는 자기 육신 안에 악업 선업으로 뭉친 수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무공이요, 무색이므로 다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으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몸이요, 한 자리이면서도 또한 네가 있고 나가 있느니라. 우리의 생활은 바로 참나 참나의 연속이지만 항시 여여하므로, 그것이 곧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 없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 진리, 마음의 근본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지식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부처님과 선지식들께서는 말없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없는 가운데서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이 나오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근본을, 즉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본래 여여하게 겁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지를 지혜롭게 참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지수화풍 사대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도 안됩니다. 일체가 다 지수화풍을 비롯하여 생명이 생겨고, 그리고 그 생명이 진화되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다만 가합(假合)이기에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으로 생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하고 멸하는 것은 참다운 실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진실상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이든지 한낱 가상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환과 같다고도 하고, 꿈과 같다고도 하고,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환상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환상천을 뛰어넘자는 공부요,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공부요, 수행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마는 과연 환이요, 꿈이요, 가합인 이 몸을 운전하고 끌고 다니는 장본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만약 사대로 된 이 육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있어서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운행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엇이 있길래 어떨 때는 즐겁게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게도 하는 것일까요? 그 무엇이 꼭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근본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첫째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죽어야 한다고 해서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도 죽어야 한다는 말은 일체를 말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말겨 놓느냐고 묻겠지만, 우리는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듯이 바로 내가 있음으로서 일체가 있고 또 우주천지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앉고 서고 말도 하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훤저히 믿고 오로지 일체를 다 말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놓기만 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말겨 놓음으로써 더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겨 놓게 되면 마음의 코드 스위치가 올려져 자가발전소의 무공무진한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는 것이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치 못한 사람은 가정의 화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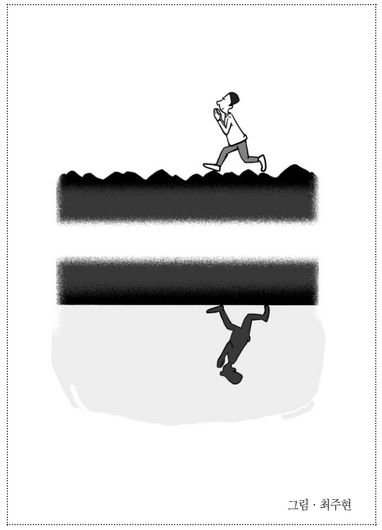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첫번째 일체를 말겨 놓아 죽어야 하고

두번째 더불어 같이 크게 죽어야 하고

세번째 더불어 나투는 법을 증득해야

이렇게 되면 이미 번뇌망상이 번뇌망상이 아니요, 경계 또한 이미 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리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답답증이 생길 때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관하게 일어나는 의심덩어리를 꿰뚫기가 힘든 것입니다. 전후 사방이 다 막혔으니 어디로 뚫고 나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구해야 할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일어나는 망상에 속아서 오히려 주위 환경을 탓하고 스승을 원망하고 어디 더 좋은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수행자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자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여 불 일이지 밖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말겨 놓으라고 하고, 현재 의식의 내가 죽어야 참나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나를 발견해 가지고도 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체적인 나가 아닌 전체적인 나를 발견하였기에, 비록 중생심으로서의 나라는 관념은 끊임없이 놓고 가다 보면, 자연히 놓고 가는 것도 없이 놓고 가고 있는 자기를 알게 됩니다. 즉, 이때는 설사 수없이 안과 밖에서 경계가 닥쳐오더라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아진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조심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편안함만을 추구한다거나 편안한 상태가 좀 되었다고 해서 마치 무심 경지에 도달한 양 안다면 이는 큰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아, 이것이 바로 무심의 도리로구나'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든다면, 이것을 바로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에 떨어짐은 수행자가 피해야 할 중대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는 것이니, 나의 문, 즉 없는 문 있는 문,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비밀 문에서 나 자신을 더욱 크게 발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오신통이라도 그것마저도 물론 놓고 가다 보면 스스로 무심한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무심하게 된다는 것은 닥쳐오는 경계를 우정 무관심할 수 있다거나 피할 수 있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가 닥쳐와도 이미 그것을 시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해도 마음은 항상 고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서 무심경지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바로 일체를 놓고 더불어 죽어 비밀을 지켜서 하여 하며, 셋째도 또한 죽어서 더불어 나투는 법을 증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는 스스로 물러가 버리지 않아서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학식으로나 지식으로 배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증득한다면 학식이나 지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수행인은 모름지기 모든 것을 다 자기로 보아야지 어떠한 거든지 들로 보아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증득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밝혀져 나오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말이나 학식, 그리고 남의 지식 남의 생각들을 자기 머리에 넣어놓고 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 대자유인으로서의 자유스런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한 남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속고 사는 인생이요, 어디에 구속된 삶일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찮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진화되어 여기 인간까지 올라왔으므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승인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자기를 떠나서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안됩니다. 대개 보면 타력으로 밖으로 찾거나 타력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 봐도 그렇고 저기를 가 봐도 모두 밖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참다운 부처님 법을 빼 놓고는 대개는 밖으로 믿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상이나 그림에 묶여 맹종하고 이름에 묶여 맹종하고 사람에 묶여 맹종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진리의 깊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발견해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 끄달리지 말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며, 우주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짊어진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말겨 놓으십시오. 누가 짊어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려놓지를 말라고 했습니까? 짊어진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니 내려놓는 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과 불행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누가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든 것도 여러분이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생각 잘 내면 극락이 열리는 것이요, 한생각 잘못 내면 지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모릅니다. 스님께서는 항시 모든 것을 다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장보살님만 찾으면 왜 그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평생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부터의 근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숱한 보살님의 이름과 일체 부처님의 이름을 다 가지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지장보살만 따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성 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약사보살도 그 무엇이든 거기에 다 들어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계합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들고나고 있으니 이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지장보살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약사보살 따로 찾고, 부처님 따로 찾으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렇게 부르고 찾을 수 없는 지금 제 칠천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교의 교조 되시는 분은 현재 좌고로 높은 구천에서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한다고 들어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님: 그 분이 지금 천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있다 하면 별써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상이 천상이 아니고 천지가 천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땅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모든 경계 닥치는 대로 맡겨놓고 억겁의 마음의 때 씻어내야

☞ 29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이 나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서부터 곤충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하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딛은 보살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차별 없이 그 여러한 문제이든 막론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응해 주시는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리를 증험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만의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를 한데 합친 다 같이 돌아가는 완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진실로 너와 내가 하나되어 세상의 모든 아픔은 내 아픔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은 바로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들 아닌 부처님의 세계가 진실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어떠한 것으로 나뿔 때 그것만을 진정한 부처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이것이 깊이며 진리이니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없는 이름이 바로 깊이며 진리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을 그 길을 믿고 따름으로써 타력신앙이 아닌 자력신앙으로써 올바르게 우리의 갈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과연 똑바로 가는 것입니까? 공한 불생불멸의 영원한 참자기를 믿고 거기에 모든 일체를 말겨 놓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선지식께서 "너희들이 땅을 파도 아니 되고 아니 파도 아니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고? 이 도리를 알아야만 농사를 잘 지어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되 한 그릇이 남을 수가 있느니라." 한 través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 선지식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꼭 말을 해야만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저기 하면 저 전구를 보시게 됩니다. 믈질로 만들어 놓은 저 전구만 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밝게 들어온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순간 전력이 오고 가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똥이만 보시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온갖 재료들을, 즉 전력이나 광력 자력 통신력 등을 충만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재료들을 갖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이려는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여도 그 한 그릇이 되남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도 놓아서 죽어야 하며, 둘째도 일체를 놓고 더불어 죽어 비밀을 지켜서 하며, 셋째도 또한 죽어서 더불어 나투는 법을 증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는 스스로 물러가 버리지 않아서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학식으로나 지식으로 배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증득한다면 학식이나 지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수행인은 모름지기 모든 것을 다 자기로 보아야지 어떠한 거든지 들로 보아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증득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밝혀져 나오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말이나 학식, 그리고 남의 지식 남의 생각들을 자기 머리에 넣어놓고 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 대자유인으로서의 자유스런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한 남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속고 사는 인생이요, 어디에 구속된 삶일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찮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진화되어 여기 인간까지 올라왔으므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승인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자기를 떠나서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안됩니다. 대개 보면 타력으로 밖으로 찾거나 타력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 봐도 그렇고 저기를 가 봐도 모두 밖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참다운 부처님 법을 빼 놓고는 대개는 밖으로 믿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상이나 그림에 묶여 맹종하고 이름에 묶여 맹종하고 사람에 묶여 맹종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진리의 깊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발견해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 끄달리지 말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며, 우주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짊어진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말겨 놓으십시오. 누가 짊어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려놓지를 말라고 했습니까? 짊어진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니 내려놓는 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과 불행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누가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든 것도 여러분이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생각 잘 내면 극락이 열리는 것이요, 한생각 잘못 내면 지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모릅니다. 스님께서는 항시 모든 것을 다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장보살님만 찾으면 왜 그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평생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부터의 근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숱한 보살님의 이름과 일체 부처님의 이름을 다 가지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지장보살만 따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성 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약사보살도 그 무엇이든 거기에 다 들어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계합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들고나고 있으니 이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지장보살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약사보살 따로 찾고, 부처님 따로 찾으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렇게 부르고 찾을 수 없는 지금 제 칠천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교의 교조 되시는 분은 현재 좌고로 높은 구천에서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한다고 들어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님: 그 분이 지금 천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있다 하면 별써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상이 천상이 아니고 천지가 천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땅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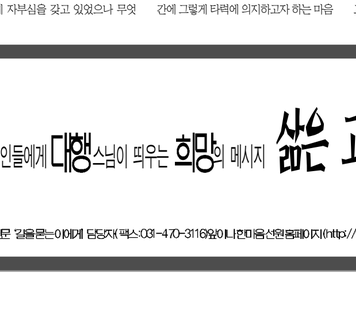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거든 둘로 보면 절대 공부할 수 없어

일체를 말겨 놓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소소영영하게 보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 빛보다 더 빠르게 우주천지 어디든지 비춰 볼 수 있는 이 신통묘용의 주인공, 이 마음이야말로 바로 여러분 모두의 참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각자 자가발전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대로 그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거와 같아서 자가발전소에서는 전력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체를 놓는다, 말겨 놓는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코드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훤저히 믿고 오로지 일체를 다 말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놓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말겨 놓고 가야 합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행도 불행도, 가난도, 병고도 다 말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었다 싶으면 그것도 감사하게 다시 놓고, 또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싶을 때에도 그것마저도 '본래 고정됨이 없으니 거기에서부터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다.' 하고 다시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길이며 억겁 전부터 짊어지고 온 선업 악업을 내려놓는 작업이며, 억겁을 지내 오면서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는 작업이며, 그리고 첫번째로 죽는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놓아 놓고 가다 보면, 자연히 놓고 가는 것도 없이 놓고 가고 있는 자기를 알게 됩니다. 즉, 이때는 설사 수없이 안과 밖에서 경계가 닥쳐오더라도 마음의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아진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조심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편안함만을 추구한다거나 편안한 상태가 좀 되었다고 해서 마치 무심 경지에 도달한 양 안다면 이는 큰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아, 이것이 바로 무심의 도리로구나'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든다면, 이것을 바로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에 떨어짐은 수행자가 피해야 할 중대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음의 편안함마저도 다시 놓고 나가다 보면 이미 안팎의 경계를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보는 자기를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자기 내면을 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참 자기를 볼 수 없기에 답답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하나 경계가 닥칠수록 오히려 자기 내면을 관하는 힘이 커지면서 의심 또한 커지므로 이를 일러 의심덩어리라, 의단(疑團)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 더불어 또 다시 크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오신통, 즉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이 되었다 해도 다시금 놓아야 합니다.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만 통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신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신통에 사로잡혀 거기에 끌려 다니는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는 물론이요, 부처님과 스승,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다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신통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체가 들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 도리를 배워 한마음으로 계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아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고, 알아도 안 사이가 없는 것이니 심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행을 해 보는 그러한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자기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가고 온 바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모든 것을 들로 보는 자기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므로 비밀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밀을 지키면서 비록 오신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그 통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통속에서마저도 벗어나야만 되겠기에 보는 것도 놓고 보이는 것도 놓고 들리더라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내 몸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다 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밀을 지키는 것이 되며, 또한 오신통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마침내 구족한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 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 문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찾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찾는다면 갈 곳은 저 밑바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는 것이니, 나의 문, 즉 없는 문 있는 문,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비밀 문에서 나 자신을 더욱 크게 발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오신통이라도 그것마저도 물론 놓고 가다 보면 스스로 무심한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무심하게 된다는 것은 닥쳐오는 경계를 우정 무관심할 수 있다거나 피할 수 있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가 닥쳐와도 이미 그것을 시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해도 마음은 항상 고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서 무심경지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바로 일체를 놓고 더불어 죽어 비밀을 지켜서 하며, 셋째도 또한 죽어서 더불어 나투는 법을 증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는 스스로 물러가 버리지 않아서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학식으로나 지식으로 배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증득한다면 학식이나 지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수행인은 모름지기 모든 것을 다 자기로 보아야지 어떠한 거든지 들로 보아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증득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밝혀져 나오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말이나 학식, 그리고 남의 지식 남의 생각들을 자기 머리에 넣어놓고 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 대자유인으로서의 자유스런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한 남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속고 사는 인생이요, 어디에 구속된 삶일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찮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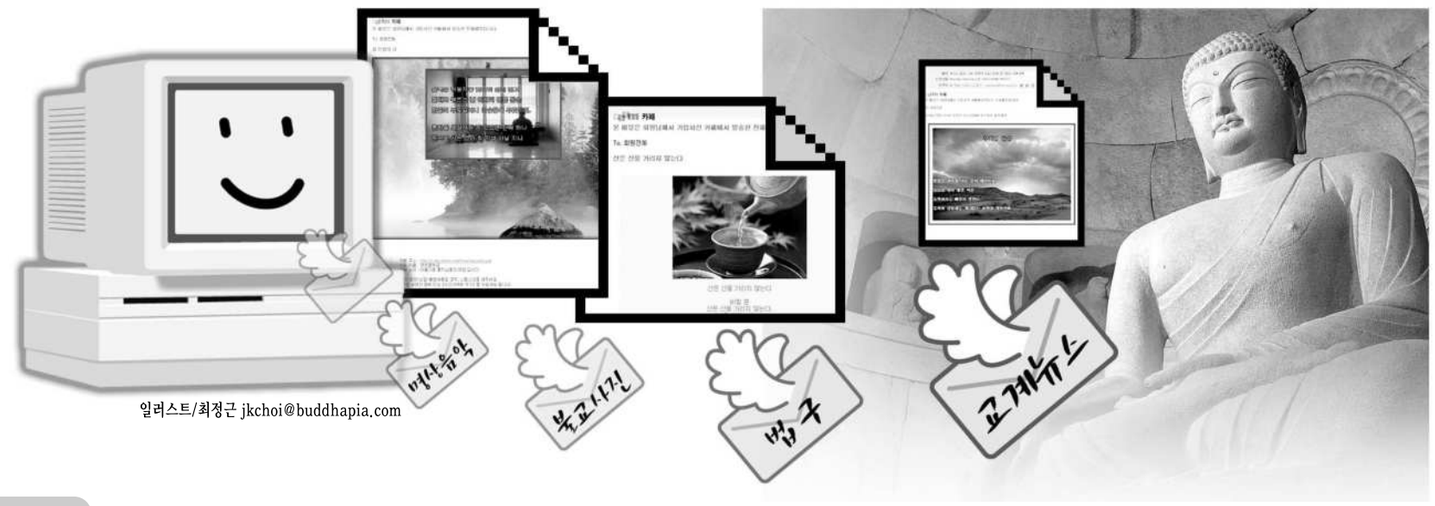
우리는 수억겁을 진화되어 여기 인간까지 올라왔으므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승인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자기를 떠나서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안됩니다. 대개 보면 타력으로 밖으로 찾거나 타력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 봐도 그렇고 저기를 가 봐도 모두 밖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참다운 부처님 법을 빼 놓고는 대개는 밖으로 믿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상이나 그림에 묶여 맹종하고 이름에 묶여 맹종하고 사람에 묶여 맹종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진리의 깊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발견해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 끄달리지 말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며, 우주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짊어진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말겨 놓으십시오. 누가 짊어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려놓지를 말라고 했습니까? 짊어진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니 내려놓는 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과 불행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누가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든 것도 여러분이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생각 잘 내면 극락이 열리는 것이요, 한생각 잘못 내면 지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직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모릅니다. 스님께서는 항시 모든 것을 다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장보살님만 찾으면 왜 그리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평생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부터의 근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숱한 보살님의 이름과 일체 부처님의 이름을 다 가지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일러스트/최정근 jkchoi@buddhapia.com

e메일, 佛法 전파의 메신저

화는 입에서 나와 몸을 망가지게 하므로
입을 조심하여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다음 관세음보살 카페(cafe.daum.net/kwanseumbosal) 운영자인 보디샷트와(본명:박미정 · 서울 구의동)님이 2월 25일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다. 보디샷트와님은 관세음보살 카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혜화님과 함께 매일 경구, 채근담 등 다양한 내용들을 회원들의 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불교계 사이버 신행단체들이 자체 회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메일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메일링 서비스란 사이버 신행단체 운영자들이 법구경, 숫타니파아타 등 경전이나 채근담, 명상시 등을 그림과 음악을 삽입해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에게만 전달해 주는 일종의 맞춤 메일 서비스다. 메일박스를 열면 하루에도 수십통의 광고, 불법음란 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속에 사이버 신행단체들이 보내는 메일링 서비스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좋은 청량제가 되고 있다. 특히 메일링 서비스는 사이버 신행단체에 처음 가입한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고 있고 기존회원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있어 서비스 신청이 날로 늘고 있다.

회원 소속감 고취, 마음 안정 심어줘
자원봉사 · 신행단체 활성화에 도움

인터넷 다음 보현행원 카페(cafe.daum.net/sabee)는 회원 동정에서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한다. 이를 위해 보현행원 카페는 운영진 가운데 메일링을 전담하는 소임자를 2명이나 두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메일링 서비스는 주위의 권유로 가입한 회원들도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행단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사이트 운영진들은 입을 모은다.

불교경전사이트인 세존(www.sejon.or.kr)도 경전 가운데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얻을수 있는 법구를 찾아 매주 한차례 회원으로 등록한 불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회원이 만여명에 육박하는 세존사이트는 메일링을 통해 전산화불사 기금을 모금, 불교경전총람CD(4장)를 제작해 올 3월 전국의 강원과 조계종 본사급 사찰 등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 다음 화엄사의 향기 카페, 아이러브스쿨의 감로수, 성철넷 등에서도 경전 등 다양한 불교자료를 토대로 인터넷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 다음 보현행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승지 창원 성불사 주지스님은 "메일링 서비스는 불자들에게 신행 길라잡이 역할 뿐만아니라 정보의 홍수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통도사
(www.tongdosa.or.kr)

수행환경 운동 등 역동적 신행공간 활용
교구본사 사격 맞는 통합 시스템 구축

통도사(주지 현문)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 접속하면 '초산유원지 위락시설 건립 반대 운동' 과 '화엄산림 법회 동영상 보기' 창이 동시에 뜬다. 통도사가 영축산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부대중의 힘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초산유원지 건립반대 운동이 온 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도사 홈페이지가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신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초부터 30일간 봉행된 화엄산림 법회가 동영상으로 제공되어 통도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과 포교국 종무원들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방장 혜남스님, 각성스님, 무비스님, 인환스님 등의 설법이 시공을 뛰어넘어 불자들의 발심과 정진을 이끌어내는 법회 현장이 되고 있다.

자장율사의 계율 정신을 계승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온 불보사찰 통도사는 시대에 걸맞은 포교와 전법을 위한 디지털 불사에도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쌍방향 의사소통' 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통도사 홈페이지는 교구본사 중 가장 발빠른 관심으로 만들어졌다. 자체 서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통도사는 종무소 국장 스님들의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을 통한 포교와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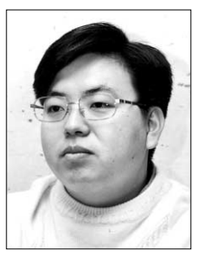
또한 2003년에는 청소년 포교에 인터넷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홈페이지를 통한 포교를 새로운 불사의 개념으로 인식해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다. 새로워진 홈페이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메일 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도사는 교구본사의 사격(寺格)에 걸맞은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 부산포교원, 통도사불교청년회, 서운암, 통도사자비원 등 암자, 말사, 포교당, 복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통합 통도사 신도회 창립과 때를 같이해 통도사 말사의 소식과 행사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통합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이다.

포교국장 오심스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에 거대한 불보종찰을 하나 더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디지털 불사에 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불연을 싹틔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교육, 열려있는 게시판 기능을 살려 누구나 참여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인터뷰 천불동 신임 회장 박수호 씨



"천불동은 회원제로 운영된 PC통신 기반의 천리안불교동호회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온 전통 깊은 사이버 신행단체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네티즌 불자들에게 천불동이 알려지지 않아 동호회라는 명칭에 익숙해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지만 사이버 신행이라는 새로운 패턴의 신행모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여 회원 대상 토론회 개최
1차 불교자료 활용 방안 모색

지난 2월 22일 천불동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선임연구원. 그는 사이버 신행의 개척자다. 93년, 96년 97년 천리안불교동호회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고려대에서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종교활동 – 천리안불교동호회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그동안 사이버 신행이라는 새로운 신행모델을 연구해왔기 때문.

정보사회에 들어 새롭게 형성된 사이버 신행이라는 새로운 패턴의 신행행태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 신임 회장은 천불동 활성화를 위해 700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온라인에서 적합한 신행모델인가' 를 주제로 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천리안의 활동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박 회장은 또 천불동이 보유하고 있는 경전 등 1차적 불교자료들을 활용,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네티즌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선과사진닷컴(www.zenandphotography.com)



선이 가진 여유 통찰력 담아

선과사진닷컴(www.zenandphotography.com)은 불교수행의 전통적인 방법인 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사진 속에 담아 선보이는 사이트이다.

리, 존, 크리스 세 사람의 작품사진을 담은 갤러리와 게스트 갤러리로 꾸며지는 선과사진닷컴은 단순하게 불상, 사찰 등 불교관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선이 가진 여유와 통찰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곳이다.

사이트에서는 "zen은 아직 더욱 깊은 더 검소한 생활 방법과 그리고 독특한 보는 방법을 제공하는 정신적인 전통"이라고 정의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대의 사물을 담은 사진을 통해 일상적인 마음다스림을 표현해낸다.

스스로 수행자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동양의 수행법에 담긴 지혜를 문자가 아닌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어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특허받은 명당육기방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氣란? 현실입니다.

<한차원 앞서가는 명당육氣방>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는 명당육氣방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으로 내려주신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氣방은 어느 곳에 두어도 天氣, 地氣, 六氣의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고 육방호법수호신장,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천하대장, 지하여장이 액운과
우환과 재앙등 악귀을 막아주고 업장을 소멸함으로 훈훈한 氣운이
감돌아 가정이 안정되는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명당육氣방에는 정성과 혼이 담긴 만사형통 12가지의
부적이 세겨져 있고 관운과 재운과 명예운를 얻고 큰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발하는 발원문, 소원성취문, 사업성취문, 조상발원문,
학업성취 소원문, 부적 등을 넣어 가정에 두고 정성드린 마음을 가지면 영험적 좋은 운으로 바꾸어 주고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게되며 명당육氣방을 가진 인연공덕으로 근심걱정 사라지고 행운과 소원을 이룰것입니다.



신비의 황금 보물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가정집, 점포, 사무실, 집터, 공장터, 묘지터에 氣가 약하면 근심과 불화로 변해가고 氣를 모아주면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갑니다. 불화가 오고 안될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1. 모든 일들이 불행으로 변해가시는 분
2. 사업이나 장사가 잘안되시는 분
3.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있으신 분
5. 하라는 데로 다해보아도 안되시는 분
6. 큰꿈을 품고 할려고 하시는 분

좋은 氣운을 모아주면 명당이 됩니다.
명당육氣방은 가정, 점포, 사무실, 공장등에 氣를 모아주고 수호하여 액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모이는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氣가없고 수호없는 자리는 액운과 불화가 따르고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잘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배(선박)에는 예고없는 대형사고나 재난이 날수 있으므로 총명한 氣운과 지켜주는 氣운이 융합 안전운행이 되도록 합니다.
명당육氣방은 집터, 공장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액운과 풍파가 없는 명당터를 만들어 줍니다. 터에 氣가 없고 액운이 가로막고 악터가 되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명당육氣방은 묘지, 납골묘지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악귀 없는 명당터로 만들어 줍니다.
氣가 약하고 잡귀와 수맥과 자기 결핍증에 시달린 영가들이 힘들고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면 직계가족 또는 후손에게 악성적 좋지않는 파장이 올수 있습니다. 氣가 모인 명당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불러오고 氣가 약하면 악터가 되여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고 잘되는 일이 없으며 불화가 따릅니다. 옛부터 조상이 도와야 잘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명당육氣방 : 051-865-9933
홈페이지주소 : 명당육기방 www.6kibang.co.kr

불행과 행복은 氣의 원리하에 좌우하고 氣가 약하면 불행이 올 수 있으며 氣가 강하면 부귀로 변해갑니다.

종류: (골드 1호, 2호 : 가정집, 점포(상가), 사무실 전용) (홍, 은, 흑 : 묘지, 집터, 공장터, 상가터 전용) (1호 : 모든 자동차, 배(선박) 전용)

기차타고

봄꽃 가득한 산사로...

남녘으로부터 꽃소식이 들려온다. 동백꽃은 남해 바다를 빨갛게 물들였고, 매화꽃도 차츰 북쪽으로 걸음마를 띄우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서는 동백, 매화와 산수유, 벚꽃 등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앞다퉈 꽃봉오리를 활짝 열 예정이다. 이에 철도청과 여행사에서는 봄꽃 군락지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산사를 연계한 '봄꽃여행 상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주말 교통혼잡 때문에 집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겐 매우 유용할 듯 싶다. 울긋불긋 봄꽃이 어우러진 산사에서 부처님의 법향과 봄기운을 마음껏 마셔보자.



◇올해도 꽃소식과 함께 철도청은 3~4월 꽃놀이 열차를 운행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을 가로질러 봄꽃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다.

동백꽃

동백꽃은 한 겨울에 잎을 열어 봄에 만개한다. 그래서 동백꽃 여행은 겨울에서 봄으로 옮아가는 나들이다. 여수 오동도, 해남, 남해, 거제도 등 바닷가 인접 지역에선 이미 꽃망울을 피어올렸고 만개정도는 60~70%정도.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까지. 또다른 동백꽃 명소인 전북 고창 선운사는 이달 말에 꽃이 펴 4월초까지 이어질 전망.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의 향일암은 요즘 동백꽃을 감상하려는 봄나들이객들로 붐빈다. 오동도는 5,000여그루의 동백이 섬전체를 빨갛게 채색했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숲이 울창한 섬 일주 산책로엔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동박새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취를 더한다. 오동도는 바다풍광이



◇해남 미황사에 활짝핀 동백.

수려하고 향일암(061-644-4742)에선 수백그루의 동백나무가 사찰 암자를 둘러싸고 있다. 동백을 군호로 지정할 만큼 인연이 깊은 전남 해남은 두륜산의 신라고찰 대둔사(061-534-5502) 입구 1.5km의 동백터널로 유명하다. 중순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며, 달마산 서쪽 미황사(061-533-3521)아래의 동백꽃 군락지도 지금 꽃망울이 틔웠지만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가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남도 답사의 1번지로 불리는 강진 백련사(061-432-0837)도 동백숲이 울창하다. 약 2만여평의 넓이에 3,000여 그루가 자란다. 다른 곳보다 색이 더 붉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주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말까지 동백을 볼 수 있다. 해마다 3월이면 동백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계획이 없다.

매화꽃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매실단지는 벌써 매화의 폭설에 꽃동산을 이뤘다. 매화잔치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청매실농원(061-772-4066)에서 25일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농원에 가면 50년동안 청매실농원을 일군 홍쌍리 여사의 강연을 듣고, 남도의 봄냄새가 물씬 풍기는 봄나물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매실원액, 매실 장아찌 등 매실로 만든 갖가지 특산품도 살 수 있다. 청매실농원일대에서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7회 광양매화축제'에서는 '매화꽃길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매화 마라톤대회' '매실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산수유꽃

지리산엔 매화 못지 않게 산수유꽃이 아름답게 핀다. 노고단 기슭 남서쪽 마을인 전남 구례구 산동면은 돌담길과 개천을 따라 산수유꽃이 핀다.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산수유꽃이 군락을 이룬 곳은 산동면의 상위마을. 절정기엔 온통 노랑 꽃구름속에 파묻힐 수 있다. 21~23일까지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대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산수유꽃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사진촬영대회', '꽃차 시음회' 등이 열린다. 행사 문의 구례군청 (061-780-2496). 경기도의 이천 산수유마을은 4월 초순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벚꽃

벚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해에서는 16만 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고, 수양버들 사이로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터널을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진해군항제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1~10일에 못박아 개최한다. 진해시청 관광계(055-548-2043), 축제준비위원회(055-546-4310). 화개장터에서 쌍계사(055-883-1901) 들어가는 입구의 십리 벚꽃길과 경주 보문단지에서도 4월초면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채꽃

제주도에선 이달 중순이면 유채꽃이 노란 꽃물결을 이루기 시작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과 산방산 주변이 유채꽃 감상의 포인트. 성산일출봉 터진 목 일대 1,000여평에 걸쳐 한폭의 그림 같은 노란색 꽃물결이 넘실대며 산방산의 우회도로 주변 500여평을 가득 메운 노란 유채꽃도 아름답다. 이들 유채꽃은 '돌유채'라 불리는 조생종. 관광객들에 사진 촬영지로 제공하기 위해 재배한 것들이지만 실제 유채꽃 못지 않게 아름답다. 유채꽃은 이달 중순에 개화하기 시작해 4월 중순이후 절정을 이뤄 5월초까지 제주도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기차여행 상품

섬진강 매화꽃열차

▲기간 : 8일~13일
▲일정:서울역 출발(07:10)→구례구(12:15)→섬진강변 드라이브→매화마을(청매실 농원)→매화꽃 감상 →구례구역 출발(17:35)→서울역(22:40) 도착
▲가격:평일(29,500원) 주말(31,000원)

해남 매화꽃열차

▲기간:14~20일
▲일정:서울역(22:40)출발→목포역(04:05)→땅끝마을 전망대→미황사 참배→보해 매실농원 매화꽃 감상→목포역(14:50) 출발→서울역(20:21) 도착
▲문의: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55,600원

지리산 산수유 꽃맞이열차

▲기간:21~23일
▲일정: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온천단지→상위마을 산수유축제 관람→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문의: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청송여행사(02-853-7787)에서 패키지발매
▲가격 : 49,400원

삼천포 선진리성 벚꽃열차

▲기간:25일
▲일정:서울역(22:10)출발→남원역(03:00)→문수암 일출 및 관광→삼천포 유람선관광→선진리성 벚꽃 관광→화개장터(쌍계사) 벚꽃관광→남원역(18:30)→서울(22:52) 도착
▲문의:프른여행사(02-882-7733)
▲가격:57,600원

진해군항제 벚꽃열차

▲기간:31일~4월 7일
▲일정:서울역(07:10)출발→진해역(12:23)→진해 군항제 관람, 벚꽃 감상 및 자유시간→진해역(16:55)출발→서울역(22:10)도착
▲승차권발매:전국 각 역(국철역)
▲가격:46,000원

하동 쌍계사 벚꽃열차

▲기간:4월1일~5일
▲일정:당일코스 / 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 쌍계사 벚꽃길 산책→남원관광단지 관광→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무박2일코스 / 서울역(23:55)출발→남원역(04:35)도착→지리산 온천욕→쌍계사 벚꽃길 산책, 쌍계사관광→남원역출발(15:25)→서울역(19:52) 도착
▲문의:청송여행사(02-853-7787), 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당일코스(43,200원) / 무박 2일코스(53,400원)

